

메가 부동산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홈캐시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앙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JJ Watch & Jewelry Repair
금은 매입 합니다
703.691.1993
11706-L Fair Oaks Mall, Fairfax, VA 22033

대표전화 : (703)281-9660 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467호

Wednesday, January 14 2026 A

트럼프, 이란과 대화 보류... 시위대에 “기관 점령하라”

‘외교 최우선’ 기조 달라졌다
공습과 관세에 이어 추가 압박
이란내 미국인에 “즉각 떠나라”



2026년 1월 3일 이란 수도 테헤란 시내 거리에 그려져 있는 반미 벽화 앞을 한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이란의 반정부 시위대에 미국의 도움을 약속하며 정부 기관 점령 등 더 강경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근 이란과에 대한 압박과 대화 등 두 갈래 길을 모두 제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전자에 무게를 두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의 애국자들이여, 계속 시위하라. 여러분의 (정부)기관들을 점령하라"고 썼다.
그는 "여러분을) 살해하고 학대하는 이들의 이름을 남겨라. 그들은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난 (이란 정부가) 시위대에 대한 부분별한 살해를 멈출 때까지 이란 당국자들과의 모든 회의를 취소했다.

도움의 손길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상황과 관련해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전반기 에어 포스 원에 동승한 기자들에게 이란 정부가 미국에 핵 협상을 제안해 왔다면 "회답은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전날 기자들에게 "공습 역시 최고 군 통수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옵션 중 하나"라면서도 "외교는 항상 대통령의 첫 번째 선택"이라고 말했다.
또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스티브 윗코프 미국 중동 특사와 지난 주말에 소통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조만간 양측 간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조건으로 이란 정부가 시위대 유혈 진압을 먼저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면

서 미국이 더 강경한 기조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아직 미국의 공습이 임박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사이버, 경제 조치 등 가능한 선택지를 모색하기 위해 브리핑을 받았다고 행정부 당국자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계속 죽이면 "강력히 타격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전날에는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25% 관세를 즉각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갈수록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온라인에서만 운영하는 주이란 가상(virtual) 대사관은 이날 홈페이지 공고에서 "이란 전역에서 시위가 격화해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국민에게 즉각 이란을 떠나라고 권고했다.

SSA 대규모 감원 전화 통화도 어렵다

1년새 직원 9%나 줄여
온라인·전화상담 전환
시니어들 답답함 호소

지난 1년 사이 거주 지역 사회보장국(SSA) 사무실 인력이 약 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 서비스가 개선됐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지난해 처리되지 못한 전화만 2500만 건에 달하는 등 인력 부족으로 인한 현장 서비스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단체 전략조직센터(SOC)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SSA 오피스의 직원 수는 1년 새 평균 9% 줄었다.

이 기간 현장 직원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인원은 약 4000명으로 늘었다. 2024년 3월과 비교해 12% 증가한 숫자다.
가주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1년 동안 SSA 현장 인력이 228명(약 9%) 감소했다. 고령 인구와 사회보장 연금 수급자가 많은 지역 특성상 인력 축소의 체감도는 더 크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47개 주와 워싱턴 DC, 미국령 3곳 등 대부분 지역에서 현장 인력이 감소했다.
와이오밍주는 현장 인력이 22%나 줄어 전국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하와이(-21%), 뉴멕시코(-20%), 웨스트버지니아(-17%), 오리건(-16%), 몬테나(-15%)도 큰 폭으로 인력이 감소했다.

연방 정부는 효율화를 이유로 SSA 조직 축소까지 추진 중이다.
SSA 측은 "불필요한 조직을 줄이고 비핵심 인력을 감축하겠다"며 "전체 인력을 7000명 줄여 5만 명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현장 인력 일부는 대표 전화인 '800번' 상담 업무로 전환 배치됐다.
현장 인력 감축은 대면 서비스 축소로도 이어지고 있다. SSA는 올해부터 오피스 방문 업무를 대폭 줄이고 온라인·전화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방문 예약 건수는 절반 수준으로 제한된다. 시니어와 디지털 취약 계층에게는 사실상 문턱을 높이는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김진(71)씨는 "시니어들 가운데는 온라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많고, 새로 배우기도 쉽지 않다"며 "문제가 생기면 직접 SSA 오피스를 찾는데, 지금도 예약이 어렵고 대기 시간이 긴 상황인데 대면 서비스까지 줄어든다고 하니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SSA는 대신 전화 서비스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의원의 요청으로 실시된 감사에서, 2025회계연도 SSA 대표 전화의 평균 응답 시간은 30분대에서 한 자릿수 분대로 줄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통화량은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했다. 지난해 처리되지 못한 전화는 약 2500만 건에 달했다. 연결 도중 끊기거나 콜백이 이뤄지지 않거나 통화가 취소된 경우들이

다.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공무원연맹(AFGE)은 "매일 65세가 되는 미국인이 1만 명씩 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현장 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SSA 측은 "기술 개선과 전략적 인력 재배치로 더 많은 국민에게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의 과장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관리직 축소와 온라인 전환이 오히려 고객 서비스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가주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서는 현장 인력 감소와 대면 업무 축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전화와 온라인으로 대체되지 않는 수요가 여전히 많은 가운데, 서비스 공백에 대한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강한길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정,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아가 팔면지팔기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교통사고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암 환자들 희망 잃지 않길...”

김범준 시티오브호프 전문의
완치 환자와 로즈 퍼레이드에
“암 생존 가능성 보여준 행진”

서부에서 가장 큰 새해 축제 중 하나로 꼽히는 캘리포니아주 로즈 퍼레이드에 올해 특별한 행렬이 추가됐다. 애틀랜타 한인 두경부암 전문의가 완치 8년을 맞은 암 생존자와 함께 꽃차를 타고 희망과 용기를 전했다.

지난 1일 새해 패서디나에서 열린 제137회 로즈 퍼레이드에는 조지아주 뉴난의 시티오브호프 암센터 두경부암 전문의인 김범준 씨와 그의 환자 타일러 블루(63) 씨가 함께 손을 흔들며 5.5마일 행진에 참여했다.

퍼레이드 차량에는 이들 외에도 같은 병원의 암 생존자 4명과 췌장 이식 환자 1명이 함께 탑승했다. 겨울철에도 장미가 피어날 정도로 온화한 이 지역 기후는 알록달록한 꽃차 수십 대로 추위에 지친 동부인들에게 잠시나마 봄의 기운을 느끼게 해준다. 작년 전국 2800만여명이 TV로 시청했다.

올해의 주제는 ‘팀워크의 마법’(The Magic in Teamwork). 의료진과 암 환자의 관계를 적절히 설명하는 단어다. 블루 씨는 10년 전 인후암과 갑상선암 4기 판정 후 25회의 방사선치료와 수



김범준씨(왼쪽)와 타일러 블루(오른쪽)

[시티오브호프 애틀랜타 제공]

술을 받는 과정에서 완치와 재발을 반복하다 김씨를 만났다. 김씨가 2018년 후두 전체를 잘라내는 전절제술을 시행한 뒤 그는 암 전이 없이 호흡기를 빼고 완치 8년 차에 접어들었다. 지금은 진동을 인공적으로 발생시키는 인공 후두를 목에 가져다 대는 방식으로 목 소리를 낸다.

김씨는 “몇 차례의 수술을 거치며 블루 씨의 식도와 후두가 크게 변형된 상태였다”며 “음식 섭취가 어려워 튜브로 영양과 수분을 공급받고 있던 상황에서 수술을 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2021년부터 애틀랜타에서 두경부암과 재건 전문 의사로 일하고 있다. 완치 판정 후에도 매년 정기검진을 통해

암 추적검사를 돕고 있다.

이들이 로즈 퍼레이드에 나선 이유는 암 인식 개선이다. 발생 위험이 높은 유방암·대장암·췌장암과 달리 인후암은 환자도 드물고 완치 후 생존 경험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블루 씨는 시티오브호프 암센터에서 후두 절제술 환자 지원그룹을 이끌고 있다.

그는 “한때 교회 성가대원으로 노래 하길 즐겼지만 수술 후 오랫동안 언어 치료사와 새로 의사소통하는 법을 익혀야 했다”며 “이젠 전화를 할 때도, 식당에 가서도 인공후두를 당당히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고가시계 배송 받고도 “못 받았다” 우편사기 40대 남성 징역형

타이슨스 거주 40대 징역 21개월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 재판부가 고가의 시계를 배송받고도 받지 못했다고 속여 대금을 가로챈 사기범에 우편사기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21개월 형을 선고했다.

연방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버지니아 타이슨스 에 거주하는 자이빈 레이 카르니아(45세)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6월 사이 영국 런던의 하로드(Harrods) 백화점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롤렉스, 모저(모제트), 오리스 등 고가시계 23점을 주문·구입했다.

주문한 시계는 정상적으로 배달됐으

나, 피고는 물품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결제에 사용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에 대금 결제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가 배송 받은 시계를 되팔 의도를 지니고 범행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당국은 피고가 본인 명의 외에도 두 개의 가명을 사용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해 4월부터 잠복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피고가 첫 범행에서 68만 달러 상당의 시계를 가로채는 데 성공한 뒤, 이후 거의 100만 달러 규모의 시계를 추가로 시도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김윤미 기자



아동 성폭행 한인에 33년 징역

증거 불충분 석방됐다 재수사

아동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한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워싱턴주 샌후안 카운티 고등법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형량 공판에서 아동 성폭행 4건, 아동 성추행 4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던 최찬수(45) 씨에게 징역 33년형이 내려졌다.

지역 매체 샌후안 아일랜드 저널은 당초 형량이 20~26년이었으나, 앞서 유죄 판결을 내렸던 배심원단이 사건의 심각성과 가중 범죄 요소를 인정하면서 형량이 늘어났다고 12일 보도했다. 당시 배심원단은 판결 사유로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가 취약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 ▶18세 미만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행위 ▶가중된 가정폭력 ▶신뢰와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송운서 기자

이번 사건은 2024년 4월 한 미성년자가 최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피해자는 7세 때부터 최 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으며, 신고 몇 주 전까지도 범행이 계속됐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당시 아동 성추행 혐의 4건으로 기소됐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2024년 5월 말 석방됐다.

이후 지난해 1월 피해자는 최씨의 범행과 관련해 추가 진술을 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성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었다.

검찰은 이후 아동 성폭행 혐의 4건을 추가 기소했지만, 지난해 4월 열린 첫 재판은 배심원단이 만장일치 판결에 이르지 못해 무효 재판으로 끝났다. 이후 지난 11월 재개된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도산 안창호 표지판 또 파손

다운타운 10번 프리웨이

LA 다운타운 110번 프리웨이와 10번 프리웨이 인터체인지에 설치된 ‘도산 안창호 기념 표지판(Dosan Ahn Chang Ho Memorial Interchange)’ 4개 가운데 1개가 파손됐다.

파손된 표지판은 10번 프리웨이 서쪽 방면에 세워진 것으로 강한 충돌로 인해 심하게 찌그러진 상태이나 아직 보수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24년 10월 LA한인회와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 당시 미겔 산티아고 거주 하원의원은 기념 표지판 낙서를 제거하고 분실됐던 표지판 2개를



LA다운타운 10번 프리웨이에 설치된 도산 안창호 표지판이 심하게 찌그러진 채 방치돼 있다. 정윤재 기자

재설치한 바 있다.

오늘(13일) 제123주년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 과

도원 회장은 “가주 교통국 담당자에게 연락해 빠른 보수 작업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

워싱턴 날씨 (°F)

☁️

1월 14일(수)53-27

15일(목)	31-19	☀️	18일(일)	37-20	☀️
16일(금)	35-30	☁️	19일(월)	32-14	☁️
17일(토)	43-24	☁️	20일(화)	27-15	☀️

📍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RE/MAX Executives

12001 Rt 50, 2nd Fl, Fairfax, VA 22033 (703) 489-7899

SALE

특점

교통 좋은 알렉산드리아

3층 타운 홈

\$749,900

차고 2, 방 3, 화장 3½

RENT

특점

가치학 가까운 매나세스

3층 End 타운 홈

\$2,900

차고 2, 방 3, 화장 2.2

1억5천500만원

통합보험

5 in 1

Retirement Income 은퇴자금

Chronic Illness Rider 간호자금

Life Insurance 생명보험

Critical Illness Rider 병원비 보조

Terminal Illness Rider 사망선고시

MetLife, John Hancock, Genworth Financial, Transamerica, ATHENE, Allianz, Prudential, Pacific Life, ZURICH, Accordia Life, Columbia Life Insurance Company, Nationwide, Lincoln Financial Group, AIG, MassMutual, Aetna, National Western Life, etc.

재정교육 (Financial Education)

생명보험 (Life Insurance)

노후대책 (Retirement Plan)

원금보장 연금상품 (Annuity)

재산상속 (Estate Planning)

주택/비즈니스 용자

장기 간호 보험 (Long Term Care Ins.-Living Benefit)

학자금 교육 (College Financial Aid Education)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개인 건강보험(Personal Health Ins.)

단체 건강보험 (Group Health Ins.)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메디케어(Medicare)

로리 문

Cell. 703-895-7648

send2lorimoon@gmail.com

귀하에게 딱 맞는 보험회사로 맞춰 드립니다!

MDRT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703.865.8788

703.865.8788

410.995.8074

버지니아 (VA) 3701 Pender Dr, Suite 160, Fairfax, VA 22030

버지니아 (리치몬드) 14321 Winter Breeze Dr, Suite 15, Midlothian, VA 23113

메릴랜드 (MD)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페어팩스 학군 재조정안 22일 표결...학부모 반발 확산

친구와 다른 학교 우려 못물
학군 변화가 집값에도 직격탄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오는 22일 학군 재조정안 표결을 예고한 가운데, 재조정으로 학교 배정이 바뀔 수 있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이번 안이 시행될 경우 약 2200여 명의 학생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주말 루터 잭슨 중학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일부 참석자들이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처사라며 교육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형제·자매가 서로 다른 학교로 배정되는 경우, 또는 친구 대부분이 진학하는 학교에 배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카운티 교육청은 2024년 조례 개정을 통해 매 5년마다 학군 경계를 재조사하고, 학급 과밀화 문제를 포함한 교



육 여건의 불균형을 점검·시정하도록 제도화했다. 이번 재조정안은 그 절차

의 일환으로, 교육청이 외부 용역업체에 의뢰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학군 재조정이 단순한 ‘통학구역 조정’을 넘어, 지역사회에선 주거 가치와 직결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도 갈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불만이 특히 큰 집단이 명문 중·고교 학군에서 이탈하게 되는 지역 거주자들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정보업체 질로우(Zillow)는 우수 학군으로 새롭게 편입되는 지역

의 주택 가격이 유사 조건의 다른 지역보다 10%에서 최대 30%까지 높게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비영리 씹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는 SAT 등 대입시험 성적이 좋은 학교 인근 주택 가격이 성적이 낮은 학교 인근보다 평균 약 20만 달러 높았다는 분석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학교 시험 점수가 1%포인트 오를 때 스퀘어피트당 주택 가격이 약 0.52달러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됐다. 김윤미 기자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연석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 2026년 연석회의 개최

한국학교 발전방향 모색
44회 학술대회 7월 예정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총회장 권예순)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뉴저지주 티벡 글렌포인트에 위치한 메리오프호텔에서 ‘2026년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연석회의는 미주 전역의 지역협의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회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며, 오는 7월 열릴 제44회 재미한국학교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NAKS 집행부와 9개 지역협의회장과 이사장, 그리고 강병구 주

미대사관 교육관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9일 오후 열린 첫날 개회 행사에서 권예순 총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어 교육과 한인 정체성 교육을 지켜온 각 지역 한국학교와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회의가 협의회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 제44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 소개 및 협조 요청이 있었는데, 참석자들은 학술대회가 한국학교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긍심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

를 다짐했다. 둘째 날인 10일에는 협회회의 실질적인 운영과 주요 사업 전반을 점검하는 일정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집행부 및 이사회의 사업보고가 있었다. 행사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NAKS와 지역협의회 발전을 위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고, 1월13일 ‘미주 한인의 날(Korean American Day)’을 기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44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는 오는 7월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뉴저지주 티벡에 위치한 ‘메리오프 티벡 호텔 글렌포인트’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성한 기자



미주한인재단 워싱턴, ‘한인의 날 기념식’ 연방 의회서 열어
미주한인재단 워싱턴(회장 로사 박)은 제21회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을 13일 오후 4시 워싱턴DC에 위치한 연방 의회 하원 레이번 하우스 빌딩에서 개최했다. 기념식은 한·주류사회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의 이민 역사와 지역사회 기여를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로 치러졌다. 이날 기조연설은 마크 김 전 버지니아 주하원의원이 했고, 자랑스런 미주 한인 수성과 장학금 수여식, 그리고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특별 문화공연이 이어졌다. 김성한 기자

워싱턴 한미 미술가협회 총회 개최

워싱턴 한미 미술가협회(회장 김홍자) 총회가 오는 1월 17일(토) 오후 4시 버지니아 소재 설악가든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화가 수미타 김 몽고메리 칼리지 교수를 초청해 ‘천경자 화백, 한국화단의 이단아’란 주제로 특강을 갖는다. 수미타 김 교수는 고 천경자 화백의 차녀로 천경자 재단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홍알빛 기자

협회 측은 “지난 한해동안 워싱턴 한미 미술가협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여러 전시를 선보일 수 있었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번 총회는 미술가협회 회원만 참석이 가능하고, 이메일로 참석여부를 알려 달라고 협회측은 전했다. 문의: 240-506-874 김홍자 회장, 410-713-0924 김진철 부회장, 703-53-6585 김태동 총무, 201-638-6800 김현정 총무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옴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라웃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추천이 고려될 무는 부동산

갤럭시부동산

- 20년 이상 경력
- 주택 매매·렌트 전문
- 연 80 ~ 100여 채 주재원 렌트

로리 정
대표 에이전트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발등의 불 세대교체, 존속과 소멸의 갈림길

이슈 진단: 한인 단체 현주소

새해 들어 한인 단체들이 조직 재정비에 한창이다. 이처럼 한인 단체들이 명맥 유지를 위해 ‘세대 교체’라는 과제에 발을 내딛고 있지만, 정작 차세대 한인들 사이에서는 “참여해야 할 실질적인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며 냉담한 반응이 나온다. 본지는 한인 단체들이 직면한 세대 교체 과제의 현실과 대안을 짚어봤다.

1세대 중심으로 한계 차세대 참여 유도 필요 릴레이보다 함께 뛰어야

LA에 사는 황선우(27) 씨는 “그동안 한인 단체 행사나 활동에 참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2017년 대학 진학을 위해 LA로 온 황씨는 “젊은 층 중에는 LA 지역 한인 단체들의 이름조차 모르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며 “젊은 한인들이 단체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참여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코리아소사이어티와 뉴욕총영사관 등이 주최한 차세대 네트워킹

행사에 참여한 20대 이모 씨 역시 비슷한 인식을 드러냈다.

이씨는 “한인 행사에 굳이 참여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다”며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돼 있고, 투자하려면 분명한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주류 사회에서 커리어를 쌓고 있는 만큼 네트워킹 역시 주류 사회 중심으로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식 격차의 원인을 단순한 무관심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에서 찾고 있다.

민병갑 전 뉴욕시립대 퀸즈칼리지 석좌교수는 “차세대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험은 반복될 경우 단체 활동은 성장의 기회가 아닌 부담으로 인식돼 참여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말

했다.

문화 비영리재단 ‘이노비’의 김재연 사무총장도 “20~30대가 ‘와블 만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과 분위기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며 “사람을 만나는 재미와 함께 실질적인 기회가 보장될 때 참여는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 단체장들 역시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로버트 안 LA한인회장은 “1세대가 쌓아온 경험과 헌신 위에 차세대의 역량과 주류 사회 네트워크가 더해져야 한인 사회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급격한 세대 교체보다는 공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 회장은 세대 교체를 “이어 달리기 가 아닌 손을 잡고 함께 뛰는 것”에 비유하며 “모든 세대의 한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조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한인 사회의 정체성과 유산 역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클라라 원 전 대한인국민회기념재단 이사장은 최근 “세대 교체는 단체 운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과 역사 계승의 문제”라면서 “차세대가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면 아무리 중요한 독립운동사와 이민사도 생활 속에서 이어지기 어렵다”고 덧 붙였다.

김경준 기자

뉴섬 주지사 “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 막을것”

“이미 시행중인 누진 소득세가 정당”

미국 민주당의 차기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사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일부 노조 등이 요구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억만장자 부유세 도입을 막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13일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는 전날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반드시 저지될 것”이라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州)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오랫동안 부유세에 반대해 왔으나, 보수 진영에서는 부유세 논의의 배경에 뉴섬 주지사가 있

다는 프레임을 씌우려 하고 있다.

최근 파장을 일으킨 캘리포니아주의 부유세 논의는 보건의료노조인 전미서비스노조 헬스케어

노동자연합 서부지부(SEIU-UTW)와 캘리포니아의 진보 성향 민주당 정치인들이 주민투표 안건을 마련하면서 촉발됐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순자산 10억달러 이상의 억만장자들에 게 재산세 5%를 일회성으로 내도록 법제화하는 안건을 올해 11월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약 8만 5천명의 주민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억만



장자들 중 일부는 크게 반발하며 캘리포니아를 떠나겠다고 공언했다.

유명한 벤처 투자자인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최근 자신의 회사 사무실을 텍사스주 오스틴으로 옮겼다고 밝혔다.

또 구글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플로리다로 이주하기 위해 새 주택을 물색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뉴섬 주지사는 NYT 인터뷰에서 이런 움직임을 두고 “이게 바로 내가 두려워했던 일이고, 결국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부유한 주민들이 부담해온 세수 이탈이 현실화할 경우 캘리포니아주 예산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저지 ‘빅토리아 이’ 법 발효

경찰 무력 사용 2년마다 점검 정신건강 문제 한인 피살 계기

뉴저지주에서 경찰 무력 사용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빅토리아 이’ 법이 12일 공식 발효됐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이날 주 경찰의 무력 사용 지침을 2년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한 법(A-4175)에 서명했다.

이 법은 2024년 7월 포트리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던 빅토리아 이씨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앨런 박 주하원의원 등에 의해 본격 추진됐다.

발효된 법에 따르면 주검찰총장은 짝수 해마다 경찰의 무력사용 지침을

검토하고 필요시 개정해야 하며, 개정된 지침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지역사회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경찰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무력을 사용한 사례는 모두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세부내용도 제공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빅토리아 이의 죽음은 우리 지역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법사위원장으로 인종과 종교,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더 안전한 뉴저지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총기 안전 관련 다양한 법안들도 주지사 서명을 받아 법제화됐다.

김은별 기자



미주 한인의 날 기념행사 한인 이민 123주년을 기념하는 미주 한인의 날 행사가 12일 LA 한인타운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에서 열렸다. 이병만 미주한인재단 LA 회장이 최석호 거주 상원 의원이 보낸 기념 결의문을 들고, 참석자들과 함께 미주 한인의 날을 축하하고 있다. 강한길 기자

‘전과 불체자’로 검거 한인 추가 공개

살인·마약범죄 등 5명

국토안보부(DHS)가 범죄 전력으로 체포된 불법체류자들을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업데이트 한 가운데, 한국 국적자도 기존 4명에서 9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DHS측은 12일 추가로 체포된 불법체류자들을 공개했다. 추가로 공개된 한국 국적자는 성범죄 혐의로 켄터키주 런던에서 검거된 마규석씨, 가주 이스트베일에서 살인 전과로 인해 체포된 최정씨가 포함됐다.



또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는 암페타민 판매 전과와 이종 씨 등이 포함됐다. 유타주 프로보에서 확인된 원종씨는 범죄 유형이 공개되지 않았다.

강한길 기자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 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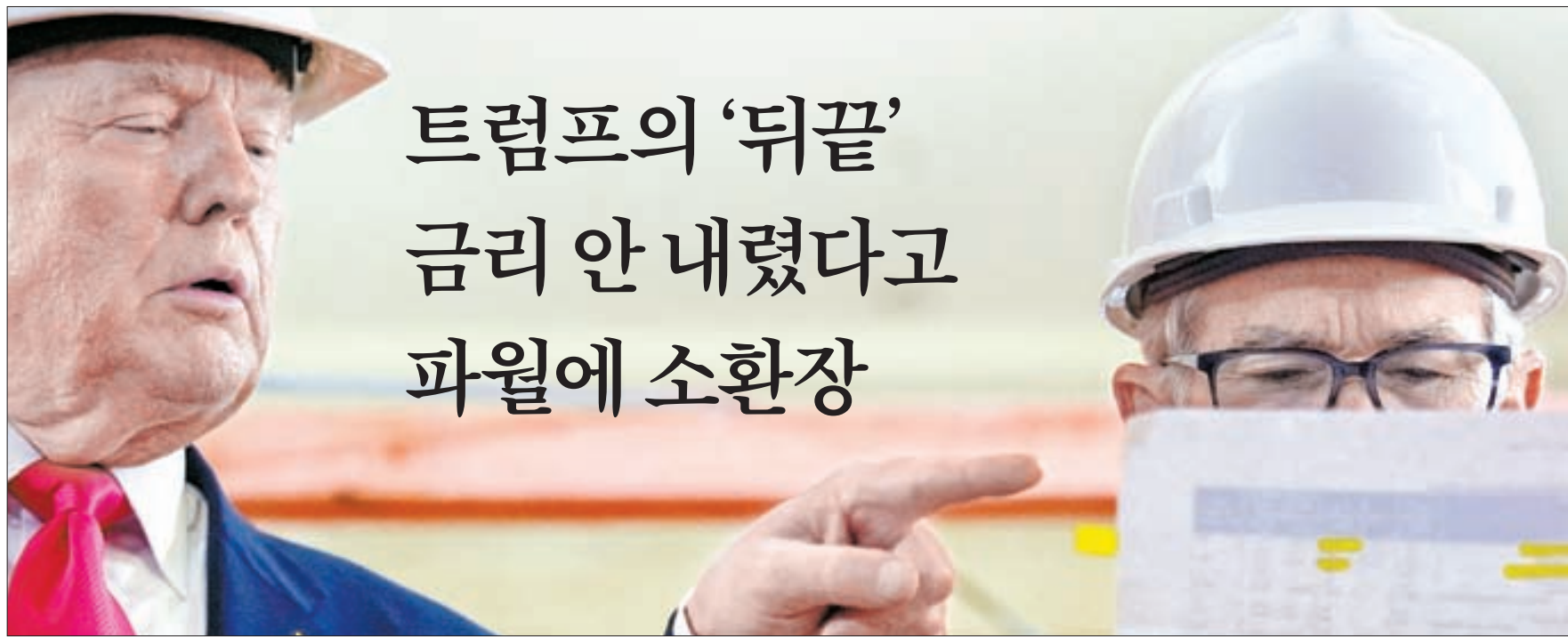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시오.



지난해 7월 24일 워싱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청사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사비가 늘었다고 지적하자, 제롬 파월 의장(오른쪽)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 대통령·연준 의장 초유의 충돌

미국 대통령과 중앙은행 수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미 법무부가 ‘연방 자금 유용’ 혐의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파월 의장이 “대통령의 지시대로 금리를 내리지 않은 데 대한 위협”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사태가 미국 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발단은 연준 청사의 개·보수 비용

이었다. 파월 의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공개한 영상에서 “연준 청사 개·보수에 대한 지난해 6월 나의 의회 증언과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소환장과 형사 기소 위협을 9일 받았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증언한 내용의 허위 여부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에도 현지 대통령으로는 이례적으로 연준 청사를 ‘습득’해 생중계 카메라 앞에 파월 의장을 세워 놓고 “(청사) 공사 예산이 27억 달러에서 많이 상승한 31억 달러가 됐다”고 몰아세운 바 있다.

트럼프, 연준청사개보수 문제삼아
“공사예산 계획보다 크게 늘어”

파월 “금리 결정에 전례없는 위협”
공화당서도 “연준 정치개입” 비판

연준의장 후보 넷 모두 '비둘기파' 누가 되든 금리 인하할 가능성

그러나 개·보수 비용이나 증언은 구
실일 뿐, 기소 압박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에 저항한 자신을 향한
‘보복’이라는 게 파월 의장의 판단이

다. 그는 영상에서 “이 전례 없는 행위는 행정부의 위협과 지속적인 압박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한다”며 “형사 기소 위협은 연준이 대통령의 선호를 따르기보다 공공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방향에 따라 금리를 결정해 왔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부터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했고, 파월 의장은 이에 야랑곳하지 않고 '마이 웨이' 행보를 걸었다. 지난 1년간 금리를 세 차례에 걸쳐 0.75% 포인트 내려 현재는 연 3.5~3.75% 수준

이다. 트럼프가 파월을 “너무 늦은 사람(Mr. Too late)”이라고 깎아내린 이유다.

대통령이 국가 기관인 법무부를 움직여 다른 국가 기관인 연준의 수장을 공격한 이번 사안에 대해 미국 정치, 경제계에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벤 버냉키, 앨런 그린스펀, 제닛 옐런 등 역대 연준 의장과 경제학자 13명은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수사를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공격”으로 규정하며 “이는 인플레이션과 경제 기능에 매우 부정적 결과를 수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존 톨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이날 “이 사안이 신속히 해결되고 연준에 대한 정치적 개입으로 비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정치매체 와이오스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9월에 대한 수사가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행정부 내부에서까지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오는 5월 퇴임하는 파월 의장의 뒤를 이을 차기 의장 후보로는 4명이 거론된다. 케빈 해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릭 리더 블랙록 글로벌 채권 최고투자책임자(CIO)다. 모두 금리 인하에 찬성하는 '비둘기파'다.

강태화 기자

JP모건, 파월 수사에 “연준 독립성 중요…역효과 날 것”

중앙은행의 독립성 중요

미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
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사진)는
13일 법무부가 제출 파월 연방준비제
도(Fed·연준) 의장을 위증 혐의로 기
소하려는 것과 관련해 중앙은행의 독
립성을 침해하고 물가와 금리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비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다이먼 CEO는 이날 작년 4분기 실적 관련 언론과의 콘퍼런스콜에서 법무부가 연준에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한 것에 대



다이먼 CEO는 이어 “인플레이션 기
대를 높이고 아마도 시간에 걸쳐 금리
를 상승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
라고 지적했다.

뉴욕멜론은행의 로빈 빈스 CEO도

이날 실적발표에서 파월 의장 기소 시
도와 관련해 “채권시장의 근간을 흔
지 말고, 잠재적으로 금리를 상승시킬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신뢰에 다소 부족함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 11일 공개 성명을 내고 자신이 연준 청사 건물 개보수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수사를 받고 기소당할 상황에 처했다면서 이번 수사가 연준의 독립성에 관한 전례 없는 행정부의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세계 중앙은행장들, “전적인 연대” 성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급속한 금리 인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행사 기소 위기를 맞은 가운데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한 파월 의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유럽연합(EU), 캐나다, 영국, 호주, 한국 등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장들은 13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과월 연준 의장에 전적인 연대의 뜻을 표한다”며 “과월 의장은 청렴성을 바탕으로 자신

의 의무에 충실한 가운데 공공 이익에 대한 흔들림 없는 헌신으로 봉사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물가 안정, 금융 안정, 경제 안정의 초석”이라며 “법치주의와 민주적 책임성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가운데 이런 독립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동 성명에는 유럽중앙은행(ECB)을 비롯해 영국·캐나다·호주 등 10개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여했으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름을 올렸다.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2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시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 상업융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리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제”**

무료 체험 가능 · 무이자 할부 가능 (K- 마켓 안에 위치)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여성용 골프 의류,
가방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 M&T ● 대장금 (미락조 물)
- 웨일리노래방

영아패션

Pine Orchard Ln

40

300m

● 뉴타운홈

미락조 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 지은 뉴타운홈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Albert Kim 보험

albert@wk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Baltimore
(301) 962-8300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6) 7400524

“여대생 뒤통수에 총 쏘았다” 즉결처형 수준 학살 정황

(이란 반정부 시위)

인권단체 “이란군 저격수 동원 의혹”
이란 정부 관계자 “사망자 2000명”
미국, 자국민에 “즉시 이란 떠나라”
이란 “미국이 위협 멈추면 핵 협상”

이란 전역에서 격화되고 있는 반정부 시위에 이란 정부가 ‘즉결 처형’ 수준의 폭력적인 진압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란 정부는 ‘군 개입’을 시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13일 이란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시위 진압 과정에서 당국 치안 인력을 포함해 약 200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규모 사망자 발생을 인정한 첫 사례다. 구체적인 사망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노르웨이 기반 인권단체 이란인권(IHR)은 “군이 맨손으로 맞서는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사용하고, 저격수를 동원한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IHR이 지난 8일 여대생 루비나 아미니안(23)이 근처거리에서 뒤통수에 총을 맞아 숨졌다는 유족과 목격자 진술을 공개하며 그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아미니안은 이란 서부 쿠르디스탄주 출신 쿠르드족으로, 아미



MAGA 아닌 MIGA 12일 영국 런던 주영 이란 대사관 앞에서 열린 이란 반정부 시위 지지 집회서 등장한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MAKE IRAN GREAT AGAIN)’ 팻말. 위 작은 사진은 시위 도중 사망한 23세 여대생 루비나 아미니안. [연합뉴스, IHR 홈페이지 캡처]

니안의 어머니는 수백 구의 시신 사이에서 딸의 신원을 어렵게 확인했다고 한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란 시위대에 의료 자문을 해 온 카이반 미르하디 미 클리프턴 스프링스병원 내과 과장도 X를 통해 “테헤란의 의사들로부터 머리에 총을 맞은 사망자 20명이 한꺼번에 도착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테헤란에서만 1000명 이상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란 정부가 지난 8일부터 인터넷과 통신을 전면 차단한 탓에 외부에 공개되는 사진과 영상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정부가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 접속까지 차단하기 위해 군사 장비를 동원해 전파를 교란하고, 사용자 단속에 나섰다”고 이날 보도했다.

시위가 격화하자 미국과 프랑스 등

은 자국민 보호 조치에 나섰다. 미국 정부는 이날 이란 거주 자국민에게 “즉시 이란을 떠나라”는 출국 권고를 내렸다. 같은 날 주이란 프랑스대사관도 비필수 인력 철수를 시작했다. 한국 외교부는 13일 주이란대사관에 “유사시 교민들이 대피·철수해야 할 가능성까지 감안해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이란 정부는 일단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

란 외무장관은 이날 아랍방송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위협이나 명령을 중단한다면 핵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와 최근까지 연락을 이어왔으며 직접 면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이란을 향해 “매우 강력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군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협상 재개를 촉구한 직후 나왔다.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역명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란의 외교적 접촉은 내부 불안을 관리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조치를 앞두고 시간을 벌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란 당국은 체제 결속 메시지도 강화하고 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이날 X를 통해 테헤란 아자디 광장을 가득 메운 친정부 시위대 사진을 공개하며 “이란 국민은 적들에 맞서 결의와 정체성을 확고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근 반정부 시위대의 지지를 받는 팔레비 왕조의 마지막 왕세자 레자 팔레비는 이날 미 CBS 인터뷰에서 “이란에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이 더 빨리 개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혜 기자**

트럼프, 관세폭탄부터 때렸다 “이란과 거래하면 25% 부과”

‘이란 석유 80% 수입’ 중국 동시경제
미국 “군사행동 유력 선택지 중 하나”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고 있는 이란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전방위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관세 조치를 공개하고 ‘군사 옵션’을 시사하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이

란 정부를 옥죄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의 모든 거래에 대해 25%의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알렸다.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2차 제재’를 가함으로써 이란을 간접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는 이란산 석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을 겨냥하는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미군이 최근 공격한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기도 한 만큼 이란산 원유 거래에 관세 25%가 부과될 경우 에너지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 2025년 기준, 중국은 이란이 선적한 원유의 80% 이상을 구입(원자재 시

장분석업체 케플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적 해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되 군사행동 역시 유력 선택지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나 핵프로그램 억제를 위한 이란의 마지막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서 나오기도 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는 이란을 공격하는 쪽을 선호하지만,

현지 상황 등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WSJ에 말했다.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은 어떠한 불법적인 일방적 제재와 확대 관할권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해 합법적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형구 기자

이란 사망 얼마나… “1만2천명 사망, 하메네이 발포령” 주장도

이란의 경제난 항의 시위와 관련해 사망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신뢰할만한 집계 나오지 않으면서 미확인 추정치가 난무하고 있다.

13일 미국에 기반한 인권운동가통신(HRANA)에 따르면 전날까지 시위가 16일간 이어지면서 646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505명은 시위 참여자이며 133명은 군과 경찰관 등

보안인력이다. 검사 1명, 시위대와 무관한 시민 7명 등도 사망했다고 한다. HRANA는 추가로 579명의 사망 보고를 확인하고 있다.

노르웨이 기반 단체 이란인권(IHR)의 경우 시위대 648명이 숨지고 수천명이 다쳤다고 집계했다. IHR이 입수한 미확인 정보에 따르면 사망자가 6천명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 인터내셔널은 이날 “지난 8~9일 이틀에 걸쳐 이란 현대사에서 가장 대규모의 학살이 자행돼 최소 1만2천명이 죽었다”고 보도했다.

사망 사례 대부분이 이란 신정체제를 수호하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그에 연계된 준군사조직 바시즈민병대 소속 대원들의 총격에 따

른 것이라고 이 매체는 추정했다.

또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와 대통령실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아야톨라 세에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직접적인 지시로 3부요인의 승인 하에 발포 명령이 내려졌다고 이 매체는 언급했다. 이같은 발표는 외부 검증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란 현지에서 실제로 대규

모 사상자가 나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의 한 관리는 시위 국면에서 숨진 이들이 약 2천명에 이르며, 시민과 군경 사망자가 발생한 책임을 ‘테러범들’에게 돌렸다고 한다. 불커 튀르크 유엔 최고인권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이란 사태를 두고 “끔찍한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안 된다”며 “공정, 평등, 정의에 대한 이란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Think eMarketing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광고비는 쓰는데, 매출은 그대로인가요?"

구글에서 안 보이면, 고객은 오지 않습니다.

- 구글 검색 & 지도에서 고객이 먼저 찾게 만들고
- 광고비 낭비 없이 실제 문의와 방문으로 연결하고
- 매출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흐름을 만듭니다.

2주 안에 새고객과 매출 향상을 경험을 하세요!



지금 연락주세요 - 무료 로컬 마케팅 진단 (신문독자 한정)

571-506-0220

sales.intelisystems.com/k1



구글 지도 랭킹,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광고,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소셜미디어, 유튜브 광고, 온라인 쇼핑몰, 이메일 마케팅, 웹사이트 제작

www.intelisystems.com

직수정수기의 기준 쿠쿠 직수정수기 BIG EVENT

기간: 12.27.2025-1.28.2026 조건: 기간내 주문 & 1월 내 설치

렌탈가
월

\$19.99 부터
+ 최대 6개월 FREE

 **GIFT**



BRAND STORE 쿠쿠 AS 공식 수리처

- **VA 직영점** 13826 Braddock Rd #C, Centreville, VA 20121 Tel. 571-321-7776
- **롯데마트 Ellicott City** Tel. 410-750-8011 • **H Mart Annandale** Tel. 240-595-2257

프리미엄 제품 CP-SN102HW, CP-TN100S/DS, CP-TN102S, CP-TN102GPK, CP-P012T/G, CP-P011T/G, CP-QN1401SW, CP-KN501HW, CP-FR601HW, CP-FR601SW, CP-FR602SW, CP-ACR1620SW, CP-ABNC100GWH, CP-WN601HW, CP-WN601SW, CAC-F3010FW, CAC-D2020FW
일 반 제 품 CP-ADR051UW, CP-MN031W/WH, CAC-C1020FW, CAC-AA0910FW, CBT-IS1131REW/RRW, CBT-I1030RW, CWS-AO201W

사은품은 지역/매장/판매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권 및 결정권은 CUCKOO RENTAL AMERICA INC. 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쿠 렌탈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판매처 및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해당 프로모션 복수 고객 시 사은품 중복 증정, 단 패키지 상품은 사은품 적용 제외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CUCKOORENTAL.COM | 888.700.0425

CUCKOO

강경파 반발 하루만에…대통령 “보완수사권, 당 의견 수렴”

범여 강경파 “정부 개혁안은 괴물”
검찰개혁추진단 6명 항의성 사퇴
정청래 “법안 얼마든지 수정 가능”
검찰 개혁 주도권 당으로 넘어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검찰 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실이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전날 발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입법 예고안에 대한 여권 내 불만이 커지자 이 대통령이 하루 만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서울공향 환담장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 대표는 “의원들·당원들 안에서 이견이 도출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을 만들 때의 고민도 있다”며 “완벽한 안은 없다. 의견이 있으면 활발하게 토론해 중지를 모아 수정할 게 있다면 수정하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전용기를 탑승하려 가는 장면을 찍은 영상에는 이 대통령이 정 대표에게 “검찰의 권한이 없어지는 데… 지금 단계에서는 상호 견제해야지”라고 말하는 음성도 담겼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오후 페이스북에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란 글을 올렸다. 검찰개혁추진단 역시 “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당과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정부가 발표 하루 만에 뒤로 물러선 건 여권 내 반발이 그만큼 거셌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여당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유지 가능성을 법안 곳곳에 숨겨놨다. 주는 걸 전제로 만든 법안”(김용민), “매뉴얼을 꼼꼼히 만들어서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낼 줄 알았다”(김승원)는 의견을 잇따라 냈다. 김

어준씨도 “제도적인 고민은 하지 않고 이걸 관계로 권력을 되살리려고 한 것”이라며 맞장구쳤다. 민주당 의원 24명 등 범여권 의원 30명이 참석한 ‘바람직한 검찰 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도 비판이 터져 나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 검찰은 다르다는 말은 틀린 말”이라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안의 중수청은 또 하나의 괴물을 만드는 위험한 조직”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때문에 수사를 받다 돌아가셨다. 검찰권을 유지·확대하는 체제가 계속되면 정권이 바뀔 뉘 살아남을 분은 봉용 민정

수석뿐”이라고 했다. 서 교수 등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은 정부안에 합의하는 차원에서 14일 자문위원직을 사퇴하기로 했다.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의 논의 주도권은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법의 통과는 국회 몫이다. 얼마든지 수정·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토론회에서 “정부안은 대통령 말씀처럼 토론 소재로 제공됐다. 빨리 소란에서 대안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5일 정책 위원총회를 열어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여성국·하준호 기자



한파에 서울 버스 올스톱
시민들 지옥철 출퇴근 분통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3일 첫차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면서 출퇴근 시간 서울 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빚어졌다. 이날 오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전광판에 버스 출발 대기 안내 문구가 나오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서울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이 퇴근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노사는 14일 오후 3시 임금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여한구 만난 미 공화당 의원들 “쿠광 향한 마녀사냥, 대가 따를 것”

(통상교섭본부장)

한국 조치를 미 기업 탄압으로 해석
로저스, 경찰 출석 조율 중 미 출국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난 미국 공화당
인사들이 쿠광이 한국 정부로부터 부
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
다. ‘마녀사냥’ 같은 원색적 표현도 동
원됐다.

공화당 강경파인 대럴 아이사 미 연

방 하원의원은 12일(현지시간) X(옛 트위터)에 “오늘 여 본부장과 좋은 논의를 했다”며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쿠광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70년 동맹인 국가(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이사 의원은 또 “미국 기업과 시민

을 겨냥한 국가 차원의 적대적 행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고 경고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해 미국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스콧 피츠제럴드 하원의원도 이날 X에 “정치적 동기에 따른 마녀사냥에 근거해 쿠광의 미국인 임원의 기소를 요구한 한국 정부 조치에 경악한다”고 밝혔다.

쿠광은 한국 법인 자본 100%를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 모회사 쿠광Inc가 갖고 있다. 미국 공화당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쿠광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국회에서 이뤄지는 책임 추궁을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탄압’으로 해석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 본부장의 이번 방미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입법을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 등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탄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불만이 나오는 상황에서 추진됐다. 한편 경찰이 출석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했던 해럴드 로저스 쿠광 대표는 지난 1일 이미 출국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경찰은 뒤늦게 법무부에 입국시 통보 등을 요청했다.

김기환·김남준 기자

내년부터 늘어나는 의사 정원 전원 ‘취약지 의무복무’ 적용 검토

내년부터 현 모집인원을 넘는 의과대학
정원 초과분을 전부 ‘지역의사제’ 정원
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역의사제란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
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
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의사 인력 추계를 존중한다고
재차 강조함에 따라 의대 정원은 늘
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7년 의대 정원

등 의사인력 공급 규모를 결정할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13일
서울에서 제3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한 2027년 이후 의사 인력 규모를
정하는 기준 적용에 대해 논의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회
의에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
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정책적 고려와 판단을 할 것”

이라고 강조하며 ▲지역·필수·공공의
료 접근성 향상 ▲인구구조·기술·근무
환경 ▲보건의료 정책 변화 ▲의대 교
육 여건과 질적 수준 ▲예측 가능성과
추계 주기 등을 논의의 기준으로 삼을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정심은 이 중 첫번째 기준인 ‘지필
공’ 인력 부족 상황 해소를 위해 2027
년 이후 올해 의대 모집인원(3천58명)
을 초과하는 의사 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
을 검토했다. 또 공공의료기관(가
칭)과 의대 신설로 생기는 인원도 고려
해 공급 추계에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
에서 증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대 교육 기준과 관련해서는 올해
모집인원 대비 20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024년·2025
년 입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더
블링’ 현실히도 고려하기로 했다.
예측 가능성 기준과 관련해서는 법

령상 수급 추계 주기(5년)를 고려해
2025년 추계에 따른 정원을 2031년까
지 적용하고, 차기 의사 추계는 2029년
에 실시하는 것을 검토했다.
이번에 결정된 정원이 5년간 적용되
는 점을 고려해 수급 관리 기준 연도는
2037년으로 하고, 해당 연도에 인력이
부족하게 되는지를 논의의 시작점으로
하기로 했다. 보정심은 이날 보고된 기
준 적용방안을 반영해 다음 주 예정된
회의에서 의사 규모 검토안을 안건으
로 상정한다.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호프스프링 아동 가족 상담소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학무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능,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중언어자
환영

703-259-5617, 410-241-2520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셀러

1. 집 고쳐서 팔까? 아님 AS-IS 로 팔까? 고민되시는 분 전화 주세요.
2. 집 팔기전에 고치고 싶은신 분들, 큰 돈들이지 않고 집수리 깔끔하게 하여
확실히 팔아 드립니다. 고친 비용은 이자없이 크로징에서 내셔도됩니다.

바이어

투자용 주택 사시거나, 처음 집 사시는 분들은 엉뚱한 집 사서 후회 하지 마시고 꼭 비키리
부동산과 상담해 주세요. 자산 증식이 될수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임대 주택

확실한 세입자 찾아드립니다.
임대주택 관리-매릴랜드, 디씨 임대 면허 관리 해 드립니다.

RENT

콘도, 알렉산드리아 \$1,750
방1, 주차 2, 모든 관리비 포함
싱글룸, 포토크 방3, 화장
타운홈, 센터빌 \$3,300
방3, 화3.5, 주차 2, 즉시 입주
타운홈, 페어팩스 \$3,600
방3, 화3.5, 주차 2, 2월초 입주
타운홈, 센터빌 \$3,500
방4, 화3.5, 주차 2, 즉시 입주

매릴랜드

싱글룸 \$700,000
완벽, 1991년
방4, 화3.5, 차고 2,
지하 물수리 업그레이드,
넓게 확장한 가설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애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매릴랜드 / 301-399-0140

문의전화 703.658.1717 / www.hanstravel.com / hanstravelusa@gmail.com / 버지니아 본사 7601 Little River Tnpk., #201 Annandale, VA 22003

데이빗한

재키조

조앤한

세라정

애나김

김문배

HANS TRAVEL

TALK

한스관광 hanstravelusa Hans Travel

친구 추가! 실시간 상담 가능

버스

버스가 필요할때?
한스관광에 문의하세요!

HANS WORLDWIDE

“한 번의 출발로, 아시아 3개국 완주! 한국 가는 길에 일본과 중국까지!!”

일본 맛여행 + 환상의 벚꽃축제
12박13일 3/30(월)~4/11(토) **마감임박**
\$5,995항공불포함 인솔자:재키 조

한국의 남해, 땅끝 마을을 찾아서
7박8일 4/11(토)~4/18(토) **딜릭스 리무진버스**
\$2,590항공불포함 인솔자:재키 조

중국 실�크로드
8박9일 4/20(월)~4/28(화)
\$3,490항공불포함 인솔자:조앤 한

베네룩스 3국 봄에 만나는 진짜 유럽!!
독일/벨기에/룩셈부르크/네덜란드
8박9일 4/9(목)~4/17(금) **노옵션!**
\$3,890항공불포함 인솔자:세라 정

스페인 & 포르투갈
1차 마감! 11박12일 4/20(월)~5/1(금)
2차 출발! 11박12일 5/2(토)~5/13(수)
\$3,790항공불포함 인솔자:애나 김 **빠른 마감! 예약서두르세요**

뉴멕시코 여권없이 가는 미국 국내여행
알버커키/산타페/텐트룩스/로즈웰/칼즈배드/화이트샌즈/엘파소
4박5일 4/29(수)~5/3(일) **NEW! 노옵션!**
\$1,690항공불포함 인솔자 동행

한스 인솔자와 떠나는 2026 여행 스케줄		한스 인솔자와 떠나는 2026 여행 스케줄		한스 인솔자와 떠나는 2026 여행 스케줄	
항공 불포함 인솔자		항공 불포함 인솔자		항공 불포함 인솔자	
01/22(목)~01/27(화) 코스타리카 골프 & 온천 마감		04/20(월)~05/01(금) 스페인 & 포르투갈 1차 마감		08/15(토)~08/28(금) 그린랜드 + 아이슬랜드	
01/29(목)~02/08(일) 신비의 북인도 여행 10박11일 마감임박! \$3,590 재키 조		05/02(토)~05/13(수) 스페인 & 포르투갈 2차 11박12일 \$3,790 애나 김		13박14일 \$12,990 재키 조	
01/29(목)~02/10(화) 북인도+두바이 Stop Over 12박13일 마감임박! \$4,850		04/29(수)~05/03(일) 뉴멕시코 4박5일 \$1,690 인솔자		08/15(토)~08/22(토) 그린랜드 7박8일 \$5,995	
02/09(월)~02/14(토) 발렌타인 코스타리카 5박6일 마감임박! \$2,190 항공포함 애나 김		05/04(월)~05/14(목) 서유럽 3개국 프랑스/스위스/이탈리 10박11일 \$3,690 세라 정		08/21(금)~08/28(금) 아이슬랜드 7박8일 \$6,995	
02/09(월)~02/14(토) 코스타리카 골프 & 온천 5박6일 \$2,350 항공포함		05/06(수)~05/18(월) 그리스 & 터키 12박13일 \$3,690 조앤 한		09/07(월)~09/16(수) 북스페인+산티아고 순례길 9박10일 \$3,890 애나 김	
02/06(금)~02/21(토) 두바이,아부다비+남인도+스리랑카 15박16일 마감임박! \$6,450		05/18(월)~05/26(화) 동유럽 4개국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 8박9일 \$3,290 애나 김		9/13(일)~9/22(화) NEW 북노르웨이-오로라 투어 9박10일 \$5,360 조앤 한	
02/09(월)~02/21(토) 남인도+스리랑카 12박13일 마감임박! \$5,150 재키 조		05/31(일)~06/11(목) 알프스 파노라믹 투어 11박12일 \$5,995 재키 조		09/17(목)~09/25(일)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돌로미테 8박9일 \$3,590 세라 정	
02/14(토)~02/21(토) 스리랑카 문화탐방 7박8일 마감임박! \$2,980		06/02(화)~06/14(일) 코카서스 3국 12박13일 \$4,490 조앤 한		09/19(토)~09/27(일) 이스터 아일랜드 & 칠레 8박9일 \$6,590 재키 조	
02/17(화)~02/26(목) 이집트 & 나일강 크루즈 마감 9박10일 \$4,190 조앤 한		06/15(월)~06/25(목)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스카이 섬 10박11일 \$6,695 재키 조		9/27(일)~10/10(토)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3개국 13박14일 \$5,390 조앤 한	
03/14(토)~03/22(일) 페루 일주 8박9일 \$3,590 재키 조		07/13(월)~07/17(금) 콜롬비아 보고타 골프 4박5일 \$1,590 세라 정		09/28(월)~10/08(목) 서유럽 3개국 프랑스/스위스/이탈리 10박11일 \$3,690 애나 김	
03/22(일)~04/01(수) 모로코와 사하라 사막 탐험 10박11일 \$3,690 조앤 한		07/16(목)~07/29(수) 북유럽 4개국 & 발틱 3개국 13박14일 \$6,695 재키 조		10/05(월)~10/17(토) 음악과 예술을 찾아가는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12박13일 \$6,595 스페셜 기획!! 재키 조	
일본 + 한국 + 중국		07/27(월)~08/01(토) 캐나다 록키 벤쿠버 IN/OUT 5박6일 \$2,190 항공포함 세라 정		10/12(월)~10/23(금) 포르투갈 & 스페인 11박12일 \$3,790 세라 정	
03/30(월)~04/11(토) 일본 맛여행+환상의 벚꽃축제 12박13일 \$5,995 재키 조		08/07(금)~08/21(금) 케냐, 빅토리아 폭포, 남아공 & BLUE TRAIN 14박15일 \$16,400		10/12(월)~10/24(토) 그리스 & 터키 성지순례 1차 마감	
04/11(토)~04/18(토) 한국의 남해, 땅끝 마을을 찾아서 7박8일 \$2,590 딜릭스 리무진 버스 재키 조		08/07(금)~08/19(수) 아프리카 사파리,빅토리아 폭포,남아공 12박13일 \$12,900 조앤 한		10/14(수)~10/24(토) 한국의 맛과 멋, 가을 여행 10박11일 \$2,990 인솔자	
04/20(월)~04/28(화) 중국 실�크로드 8박9일 \$3,490 조앤 한		08/07(금)~08/14(금) 아프리카 케냐 7박8일 \$5,950		10/26(월)~11/07(토) 그리스 & 터키 성지순례 2차 12박13일 \$3,490 조앤 한	
04/09(목)~04/17(금) 베네룩스 3국 8박9일 \$3,890 봄 특선! 세라 정		08/12(수)~08/18(화) 알래스카 앵커리지호텔 업그레이드 6박7일 \$3,090 애나 김		10/30(금)~11/11(수) 일본 알프스 투어와 맛여행 12박13일 \$5,995 재키 조	

한국 뮤지컬 브로드웨이를 장악하다!

어쩌면 해피엔딩

5차 2026년 2/21(토) \$289
티켓 포함, 점심식사 포함
1차~4차 마감

MAYBE HAPPY ENDING

대형버스 당일투어

3명이상 출발가능 워싱턴 DC \$100
당일투어 루레이동굴 \$125

8명이상 출발가능 **미리 예약하세요!**
뉴욕 1박2일 1/29(목),2/9(월) \$399

캐나다 나이아가라 목요일 출발
& 뉴욕 2박3일 \$650

캐나다 나이아가라 수요일 출발
& 뉴욕 3박4일 \$899

미동부 캐나다 월요일 출발
5박6일 2/9(월),2/23(월) \$1,350

러시모어, 크레이지호스
록키산맥 국립공원/러쉬모어/
베드랜드 국립공원/크레이지 호스
2026년 5/22(금)~5/25(월)
3박4일 \$1,040 항공불포함

서부4대캐년 5박6일
\$990 항공불포함 일요일 출발

미서부 일주 8박9일
\$1,540 항공불포함 일요일 출발

이외에도 다양한 여행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www.hanstravel.com 에서 더 확인하세요. **한스 여행사** 에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상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토로 인한 가격 오류시 정가를 지불하셔야 하며 상품 예약 후 꼭 컨펌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이 대표” 손 꼭 잡은 장동혁… 이준석 “거악 앞 공조”

장·이 첫 회동, 불 지핀 야권 연대
“공천현금·통일교 특검 함께 추진”
장, 보수 확장 위해 적극 러브콜
6·3 지방선거 연대 언급은 안 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
신당 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을 겨
냥한 특검법 공조를 위해 손을 맞잡았
다. 두 대표가 공식 회동을 한 건 이번
이 처음이다. 장 대표는 “우리 이준석
대표”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쓰며 환대
했고, 이 대표도 “제안에 화답해 감사
하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표보다 먼저 국민의
힘 회의실에 도착해 앉은 자리를 살폈
고, 2분 뒤 도착한 이 대표를 맞았다. 두
대표는 각 당을 상징하는 분홍색·주황
색 넥타이를 매고 만나 웃으며 악수했
다. 회의실 벽면에는 전날 이 대표가 당
파색이 없는 문구를 고심해 국민의힘
에 제안한 ‘차이를 넘어 민주주의를 지
킨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회의실에 앉은 뒤 장 대표는 “우리
이 대표 먼저 한 말씀 하시라”며 발언
순서를 양보했고, 이 대표는 먼저 “정
치와 사법 제도를 망가뜨리는 거악 앞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공천현금 의혹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에서는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고 운을 뗐다. 그리고는 “김병기·강선
우 특검,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
검, 대장동 검찰 항소 포기 경위 규명
세 가지를 반드시 함께 추진하자”고 제
안했다. 이 대표의 연석회담 제안을 거
절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서
는 “민주당의 종속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우리 이 대표가 정확한
말씀을 다 해주셨다”며 발언을 이어
갔다.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에 대한 진실 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
고, 통일교 특검과 공천 뇌물 특검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어 민주당을 향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특징은 눈감고 죽은 권력에 대한
부관참시 특검만 계속 추진한다”고 꼬

집었다.
두 대표는 15분에 걸친 비공개 회동
뒤 함께 회의장을 떠났다. 양당은 민주
당의 공천현금 의혹과 관련해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
를 촉구하기로 합의했다. 최보운 국민
의힘 수석대변인은 “수사가 미진하면
양당이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두 대표는 이날 오후엔 우원식 국

회의장을 함께 찾아가 민주당의 일방
적 법안 강행 처리에 공동 항의했다.

양당 모두 “6·3 지방선거 연대 관련
언급은 없었다”며 말을 아꼈지만 국민
의힘에선 “첫 회동은 논의의 출발점이
자 연대의 시작점”(정희용 사무총장)
이란 희망 섞인 발언이 나왔다. 실제 장
대표는 최근 ‘보수 연대’ 러브콜에 적극
적이다. 지난 7일 비상계엄 사과 기자회견
때 개혁신당 상징색인 주황색 넥타
이를 매고 “이기는 선거를 위한 폭넓은
정치 연대”를 강조한 데 이어 11일엔 이
대표가 회담을 제안하자 직접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반해 이 대표는 지난 12일 “연
대해서 다 같이 지는 게 제일 바보”라
며 선거 연대와 거리를 두고 있다. 개혁
신당은 그러면서 ‘99만원 출마’ 등 독
특한 지방선거 전략을 내세우며 독자
완주 체제를 하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는 “두 대표가 서로 ‘밀당’을 하고 있
다”며 “정책 연대를 통해 민심을 시험
하고, 서로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
서면 선거 연대까지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수민 기자

서부지법 난동 1년 만에… ‘배후 혐의’ 전광훈 구속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 역할
을 한 혐의로 전광훈(사진) 사랑제일교
회 목사가 13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이날 특수건설팀 침입 교사, 특
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

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
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
후인 지난해 1월 19일 지지자들
을 운집하도록 하고,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
해 집기를 파손하거나
경찰을 폭행하는 등
의 행위를 하도록 부

추진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
석하기 전 기자회견에서 ‘압수수
색한 결과, 증거물 등이 없었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적힌 경찰의
수색 증명서를 들고 “서울경
찰청에서 나를 압수수
색하고 서부지법 사태
와 관련이 없다고 써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
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
와 금전 지원 등의 방식으로 측근과 보
수 유튜버를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서
부지법 난동을 부추긴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압수한 증거물 분석 및 관련
자 조사를 이어나간 끝에 지난해 12월

12일 검찰에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을 신청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한 차례 반려했지만, 경찰은 혐의 보강
과정을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
고, 검찰도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
했다.

전 목사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동
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연합 예배에서 “이번에 (감옥) 가면 네
번째인데 대통령이 되어 돌아오겠다”
고 말하기도 했다.

이아미 기자

윤석열 사형 구형

특검, 내란공판서 “헌법 파괴행위”
‘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무기징역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06일 만이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3
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
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에서 사형을 구
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
의의 법정형인 사
형, 무기징역, 무기금
고 중 가장 중한 형
이다.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
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정보사
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을 구형했다

박역수 특검보는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히 단
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30년 전인 1996년 이 법정에
서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
항쟁 관련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
월 3일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전사·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 상황이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
해 헌법을 파괴하려 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근거로 당시
야당의 정부 인사 출탄핵, 예산 삭감 등
을 들었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7개월 뒤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측근들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비상계
엄을 계획했다고 결론내렸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동기에 대해
“야당을 일거에 척결하고 헌법을 개정
해 독재와 장기집권을 하려는 권력욕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
도)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실체를 왜곡했다”고 윤 전 대

통령을 질타했다.

또 박 특검보는 “전두환과 노태우 세
력에 대한 단죄의 역사가 있음에도 내
란을 획책했다”며 “비극적 역사가 반
복되지 않도록 전두환, 노태우보다 더
엄격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고 재
발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 참
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고, 대
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라고
해도 사형은 구형되고 선고되고 있다”
고 했다.

박현준·김보름·최서민 기자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2/9 ~ 2/13 → 전화 예약 필수!
Home Care RN 구함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나라별 언어를 배정, 관리하
는 차별화된 홈케어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페어팩스,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버지니아와 남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Centreville (Main Office)

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

Annandale (사랑방)

4324 Evergreen LN. #D (2FL)
Annandale, VA 22003

Annandale (V)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Gaithersburg (MD)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2026 메디케어 플랜 가입 및 변경

ONE STOP FINANCIAL SERVICES
UNI와 함께 하세요!!

최적의 메디케어 플랜을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메디케어 플랜 가입 및 변경, 전문가의 도움으로 더 쉽게!
상담에서 신청까지 무료! 라이선스 에이전트가 도와드립니다.



문로리

703-895-7648



이린다

443-515-8522



안은신

804-464-3662



이은경

571-303-9060



장미원

703-486-6082



오경자

443-690-4290



올바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선 올바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UNI가 원스탑 재정 서비스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MD 엘리콧시티

1/14 (수요일@5pm)
1/31 (토요일@10am)

한국 CPTPP 가입·일본산 수산물 수입, 공동발표서 빠졌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다카이치 “핵미사일 문제 포함
북한의 완전 비핵화 긴밀히 공조”
이 대통령 “한·중·일 최대한 협력”

“저는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
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奈良)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회담한 뒤 공동언론발표
에서 이렇게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확대
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이 지역의 안
정을 위해 공조해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이 대통령과) 다시금
다졌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 뒤 일본과 중국
의 갈등은 고조됐다.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
는 발언을 한 뒤 중국은 최근 일본에
대한 회토류 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조
치를 한 상태다.

지난해 8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
일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당시 총리는 “저는 힘
또는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
도에 반대한다는 뜻도 밝혔다”며 중국
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반면에 이번엔

민감한 발언은 없었고, 이 대통령은 3
국 협력을 강조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을 향한 중국의 분노가 상당하
고, 중국의 수출 통제로 일본도 민감한
상황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
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
혔다. 다카이치 총리도 “핵미사일 문제
를 포함한 대북 문제 대응에 대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일·한·
일·한·미 간 긴밀히 협조해서 대응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 협력과 관련
해선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
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
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고 발표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
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
다”고 밝혔다.

한·일 경제협력의 영역을 ‘무역’에서
‘경제안보’로 확대하기로 한 부분이 눈
에 띄는 점이었다. 일본은 중국의 수출
통제로 경제안보에 위협을 받는 상황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총리 주재 만찬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등 참석자들과 건배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이기도 하다. 한·일 양국은 ‘포괄적인
협력’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난해 8월
정상회담에선 수소, 암모니아, AI 등
특정 분야 협력을 언급했던 것과는 차
이가 있었다.

다만 이번 한·일 공동언론발표에 한
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
반자협정(CPTPP) 가입과 일본 수산
물 수입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CPTPP는 일본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
유무역협정(FTA)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공개된 NHK 인
터뷰에서 “CPTPP 가입 협조를 얻어
내기 위해서는 일본 수산물 수입도 하
나의 중요한 의제”라고 말했다. 일
본 측은 수산물 수입 규제와 관련해
한국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양국 간에 충분한 의사

소통을 해나가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
다고 한다.

양기호 교수는 “공동언론발표를 보
면 경제협력은 주로 이 대통령만 얘기
하고, 다카이치 총리는 안보 이슈를 더
말했는데 양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에
서 얻으려고 한 포인트가 다소 달랐다”
고 평가했다.

윤성민 기자

갈등 적은 조세이 탄광, 위안부 해법 위한 디딤돌

한·일 정상 88분 ‘나라 회담’
조선인 136명 희생된 ‘조세이 탄광’
양국, 발굴된 유해 DNA 감정 추진
이 대통령 “작지만 의미있는 진전”
다카이치 “DNA 감정 협력 환영”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
市早苗) 일본 총리가 13일 한·일 정상
회담에서 일본 조세이(長生) 탄광에
수몰된 유해의 유전자(DNA) 감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과거사 문
제에 대한 인도주의적 협력에 양국이
손을 맞잡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奈良)
현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
발표를 통해 “1942년 일본 우베시 조
세이 탄광에서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환담장에서 드럼 합주를 하고 있다. 이날 양 정장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인 ‘골든’과 BTS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드럼을 함께 연주했다. 전민규 기자

인이 수몰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80여
년이 지난 작년 8월에야 유해가 처음으
로 발굴된 바 있다”며 “양국은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
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는 1942년 2월
3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안에서
1km 떨어진 해저 경도에서 발생한 붕
괴 사고다. 사망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6명이 강제 동원된 한국인 노동자였
다. 당시 일본 정부가 “대부분 구조됐
다”며 사건을 축소·은폐했으나 1991년
조선인 희생자 명부가 발견되면서 실
체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대해 “과거
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
한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DNA
감정 협력과 관련해 양국 간 조정이 진
전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화답했
다. 이재명 정부 들어 과거사 문제를 두

고 한·일 양국이 합의를 이룬 건 이번
이 처음이다.

그간 이 대통령은 한·일 과거사 문제
와 경제·안보 분야 미래 협력을 분리하
는 ‘두 트랙(two track)’ 전략을 펼쳤
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15 광복절 경
축식에서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
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며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 협력의 길
을 모색하겠다”고 선언했다.

같은 달 21일 공개된 요미우리신문과
의 인터뷰에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
의와 2023년 경제징용 제3차 변제 합의
에 대해 “국가로서의 약속이므로 뒤집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이번 회담 전까지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전 총리와 세 차례, 다카이치 현 총
리와 한 차례 등 모두 네 번의 한·일 정
상회담을 했지만 과거사 문제는 직접
적으로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었다. 〰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6년 over 120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378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종합보험 적용 됩니다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구인

리셉티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dceyeclinic@yahoo.com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버크 타운홈

\$565,000

방3 / 화3.5 / 파킹2
부엌, Bath 등 전체 수리한 집
Walk-out, 펜스, 덱 & 페티오

비엔나 콘도

\$325,000

방1 / 화1+Den, 굿로케이션
전체마루, 넓은 덱
가스, 물 포함한 저렴한 관리비

매나사스 콘도

\$200,000

방1 / 화1
쇼핑몰 근처
New Water Heater & Appliances

COMING SOON

센터빌 타운

\$600,000

방/화2.5, 차고1

페어팩스 싱글홈

\$980,000

방4, 화3.5, 차고2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다카이치, 대통령 숙소 앞 ‘깜짝 영접’…태극기 향해 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나라현 회담장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태극기를 향해 인사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다카이치 “제 고향에 오신 걸 환영”
김혜경 여사에 “정말 아름다우시다”
대통령 “격을 깬 환영, 몸돌바 몰라”

“제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답습한 차량이 13
일 오후 2시쯤 일본 나라(奈良)현의 한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 다카이치 사나

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무릎에 두
손을 모은 채 허리를 숙여 일본어로
“안녕하세요”라고 환하게 웃으며 인
사했다. 이 대통령과 눈이 마주쳤을
때는 눈을 크게 뜨며 반가운 표정을
짓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와 두 손을 맞잡고 인
사를 나눈 이 대통령은 “이렇게 격을
깨 갖고 환영해 주시면 제가 몸돌바를

모르겠다”며 “일본 국민도 그렇겠지
만, 대한민국 국민들도 총리님의 이런
모습에 정말로 감사할 것”이라고 화답
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기쁘다”
고 답한 뒤 김혜경 여사에게도 밝게 웃
으며 “만나서 기쁘다. TV에서 많이 봤
다. 아름다우시다”고 인사를 나눴다.
이후 다카이치 총리는 직접 이 대통령
부부를 호텔 안으로 안내했다. 청와대

는 “당초 호텔 측 영접에서 총리 영접
으로 격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특유의 ‘오모테나시’(극진한 환
대)는 이날 곳곳에서 엿보였다. 다카이
치 총리가 이 대통령을 고향이자 지역
구인 나라에 초청한 것부터가 드문 일
이다. 역대 일본 총리가 지역구에 외국
정상을 초청해 양자회담을 한 건 2016
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블
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야마
구치(山口)현에 초대한 이후 약 10년 만
이다.
일본 총리가 나라에서 외국 정상과
회담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에서 가장 오래된 고도(古都)인 나라
는 한·일 문화 교류의 상징과도 같은
‘유카리노치’(인연의 땅)다. 또 백제에
서 일본으로 건너간 도래인의 영향을
크게 받은 고대 아스카(飛鳥)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내각 총리대신 취임 후 나라
에 외국 정상을 초청한 것은 이 대통령
이 처음”이라며 “이건 저와 대통령님
간 우정과 신뢰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라고 했다.
고교 시절부터 드림 애호가인 다카
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의 일일 드림 교
사를 자처하기도 했다. 두 정상은 언론
발표 후 환담에서 일본 측이 마련한 푸

른색 유니폼을 입고 일본의 대표 악기
브랜드 ‘펠(Pearl)’ 드럼에 나란히 앉
아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OST인
‘골든’과 가수 BTS의 ‘다이너마이트’
를 연주했다. 이때 다카이치 총리는 드
럼 연주 경험이 없는 이 대통령에게 직
접 드럼 연주법을 설명하며 합주를 이
끌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합주 뒤 이 대통령
에게 연주에 사용된 드럼 스틱을 선물
했고, 두 정상은 각각 스틱에 자신의 서
명을 한 뒤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어
릴 적부터 드럼을 치는 것이 소원이였
다”며 “오늘 평생의 로망을 이뤘다”고
말했다. 예정에 없던 이 일정은 “양 정
상 간의 호흡과 친밀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일본 측이 특별히 준비
한 프로그램”이라고 김남준 청와대 대
변인이 설명했다.
김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오사카
에 도착해 나라에 이르기까지 일본 측
은 최고 수준의 경호를 제공했다”고 전
했다.
김 여사는 드라마 ‘파친코’에 출연한
배우 박소희씨와 미술가 김미쓰씨
등 재일동포 예술인과 간담회를 가졌
다. 전날 직접 만든 궁중 한과를 준비한
김 여사는 “여러분은 양국을 잇는 매
우 귀한 존재들”이라고 격려했다.
하준호 기자

그런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비교적
갈등 소지가 적은 조세이 탄광 문제를
논의한 건 향후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
제 등 오래된 난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디딤돌 성격도 있다. 최은미 아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중심의
조세이 탄광 논의에 정부의 노력이 더
해지면서 한 차원 높은 협력의 틀이 마
련됐다”며 “향후 한·일 관계의 어려운
과제를 풀어나가는 동력이자,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두 정상은 13일 스캔(사기)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 공조 협의
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다”며 “양
국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
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
다. 다카이치 총리도 “국경을 초월한
조직적 사기는 양국 공통의 과제”라고
했다. 양 정상은 ▶출입국 간소화 ▶수

학여행 장려 ▶기술자격 상호 인정 확
대 등 교류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이
날 회담은 소인수 회담(20분)과 확대
회담(68분)을 포함해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
제 질서 속에서 한·일 간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긴 하
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지도 이
제 환갑이 지났다”며 “다시 새로운 60
년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다면 지난
해에 일한 관계의 강인함을 보여준 것
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올해도 이 대
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일한 관계를 더
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를 바란다”
고 했다.
오현석 기자

다식·생란·율란...눈길 끈 궁중한과, 셰프는 김 여사

K푸드 알리는 영부인 요리 외교
13일 오후 일본 나라(奈良)현 나라시.
방일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정상회
담을 진행 중이던 시각 김혜경 여사가
재일동포 예술인들과의 차담회를 주재
했다. 차담회에서 눈길을 끈 건 알록달
록한 궁중 한과였다. 참석자들이 감탄
을 자아낸 한과를 만든 이날의 셰프는
김 여사였다.
김혜경 여사가 ‘영부인 외교’에서 한
국 음식을 심본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
서는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지만, 해외
에서는 ‘K푸드’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날 아침부터 한식당 ‘폼 서울’
의 노영희 셰프와 함께 하루 종일 한과
를 만들었다. 송화 다식, 잣엿, 생란, 율
란, 약과를 종류별로 만들어 정갈한 도
기에 담고, 솔잎을 장식으로 올려 일일
이 보자기로 날개 포장했다.
한과 아이디어는 “일본에서 나고 자



김혜경 여사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재일동포 예술인들에게 선물한 궁중 한과. 전민규 기자

란 동포들에게 우리의 전통 간식을 대
접하자”는 취지에서 김 여사가 직접 낸
것이라고 한다. 김 여사는 지난 5일 방
중 때도 한·중 교류에 앞장서온 중국 여
성 인사들을 주중 한국대사관저로 초
청해 손수 떡만둣국을 대접했다.
김 여사는 K푸드를 주제로 한 요리책
출간도 계획 중인데, 이를 위해 서울 한
남동 관저에서 수시로 요리 연구에 매
진하고 있다고 한다. 수십 인분의 음식
을 만들어 나누기도 하는데, 지난 9월
초에는 묵은지와 오징어 등을 속재료
로 김밥 100줄을 말아 꿀물과 함께 경
호처 직원들을 대접해 호응을 얻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여사는 해외 문
화 행사를 주재하기에 앞서 사전에 관
련 국내 전문가들을 꼼꼼히 취재하고
공부해 간다”고 설명했다.
윤지원 기자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정승욱
연방세무사

IRS 감사
세무장감
전문

김영선
연방세무사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김웅용 변호사

미국 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추방재판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생 및 신분 변경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 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Eng/Kor) (구원뽕뽕) (한국어 상담)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뉴욕 오피스
646-256-9156 (Kor) | 212-739-0843 (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또다시 ‘석유의 저주’ ... 멀어지는 ‘베네수엘라의 봄’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약 17% 수준) 보유국인 베네수엘라에 ‘석유의 저주’가 닥쳐오고 있다.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시절 막대한 석유 수입을 복지에 쏟아부었으나 유가 급락과 함께 초인플레이션, 생필품 부족 등 국가 경제가 붕괴되면서 ‘석유의 저주’를 겪었다면, 이번엔 베네수엘라 석유를 노리는 강대국의 개입이다.

지난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해 재판에 회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두로의 측근인 텔시 로드리게스 부통령(현 대통령 권한대행)과 타협해 베네수엘라 석유 확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마약 차단과 민주주의 회복은 이번 군사 개입의 명분일 뿐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야권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지난해 자신이 받은 노벨평화상을 트럼프와 나누고 싶다는 구애 발언까지 하면서 선거를 통한 조기 정권 교체에 미국의 협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무력으로 기존 권력을 붕괴시키는 정권교체 전략 대신 지도자만 제거한 뒤 기존 체제를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고쳐쓰기’ 전략을 택했다.

마두로 체포 군사작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석유 이권 장악은 그야말로 전광석화다. 추가 군사작전 압박으로 마두로 측근 그룹의 협조를 받아낸 트럼프는 먼저 미국의 봉쇄로 수출길이 막혀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인 원유 3000만~5000만 배럴을 손에 넣었다. 원유 수출을 막기 위해 다섯 번째 유조선을 해상에서 나포했고, 베네수

트럼프, 마두로 충성과 손 잡고 베네수엘라 석유 확보 속도전 에너지패권 강화로 중·러 압박 야권 정권교체 요청엔 소극적

엘라산 석유의 쿠바 공급을 차단했다.

이어 엑손 모빌, 셰브론 등 미국 정유회사 CEO를 백악관으로 불러 모아 “안전을 보장할 데니 원유를 채굴하자”며 1000억 달러 투자를 독려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미국이 개입해 석유 생산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석유 판매 수익을 미국 재무부 계좌에 예치한 뒤 사용하겠다는 트럼프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이 계좌를 압류나 사법절차로부터 보호하는 행정명령까지 서명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베네수엘라산 석유 판매를 막아온 제재 해제 의사를 밝혔다.

석유 수출 봉쇄해 중국 경제 타격

석유 판매에 따른 당장의 현금 확보와 함께 미국의 숨은 의도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베네수엘라 석유 확보로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강화해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토대로 중남미 국가들을 우군화했다. 차베스-마두로 정권과 밀착해온 중국은 현재 약 700억 달러 이상의 차관을 제공한 베네수엘라 최대 채권국이다. 이 차관의 대부분은 석유를 담보로 한 자원 담보형 대출이다. 마두로 정권은 중국에



지난 8일 반전 활동가들이 미국 워싱턴의 한 건물 벽에 베네수엘라 석유 확보를 노린 미국의 군사작전에 반대하는 구호를 프로젝트션으로 비추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저렴한 가격에 석유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상환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은 베네수엘라산 중질유를 자국 에너지 공급의 안전장치로 활용해 왔고, 이를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해왔다. 중국 석유공사(CNPC)는 더 많은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PDVSA)와 합작해 유전 개발, 정제 시설 및 수송 인프라 건설 등에 막대한 투자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의 군사 개입으로 중국은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진 것은 물론 향후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반면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본격적인 ‘에너지 패권(Energy Dominance)’ 전략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 대체 가능성 면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중 패권 전쟁에서 중국에 희토류가 있다면, 이제 미국

엔 석유가 있는 셈이다.

러시아의 에너지 영향력도 약화

동시에 세계 2위 산유국인 러시아의 에너지 영향력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이후 유럽연합(EU)이 제재 움직임을 보이자 에너지 수출 카드를 꺼내 들었다. EU의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았기 때문이다.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놓고 EU 회원국들은 내분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틈을 파고들어 자국산 LNG와 석유 수입 확대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트

럼프는 유가 상한선을 배럴당 50달러로 제시)할 경우 석유 및 가스 수출로 전신 국가 경제를 지탱해온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전략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동시에 동맹과 파트너국에 저렴한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미국은 효과적인 외교 레버리지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 저유가로 중간선거 승리 노려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선거 전략이기도 하다. 트럼프 지지율 추이를 보면 현재 보수층 지지율은 여전히 견고한 편이지만, 취임 이후 극우 성향의 강경 정책 추진으로 중도 및 청년층이 대거 이탈하면서 전체 지지율이 40% 초·중반대로 떨어졌다. 과거 선거에서 고유가와 인플레이션 상황은 집권당에 최대 악재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저렴한 베네수엘라산 석유 공급과 이를 통한 인플레이션 우려 해소를 통해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한다.

여기에 과거 공화당 출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그레나다 침공(1983년)이나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2003년) 사례처럼 ‘힘을 통한 평화’를 구현하는 리더십 이미지는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의 친환경정책에 비판적인 남부 및 중·서부 유권자와 이른바 ‘독재의 삼각 축(베네수엘라, 쿠바, 니카라과)’이라고 불리는 국가를 탈출해 미국으로 이주해온 유권자들의 지지 확보는 덩이다.

차세현 논설위원

취재일기

계단에서 굴러도 ‘OK’ ... CES라는 실험실과 한국 기업의 숙제

지난 7일 오후, 라스베이거스 소비자가전쇼(CES 2026) 전시장에 마련된 로보락 부스는 몰려든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한쪽엔 가파른 계단, 반대쪽엔 미끄러운 내리막길이 설치된 무대 위로 세계 최초로 이룬 다리를 탑재한 로보청소기 사로스 로버가 모습을 드러내면서다.

시연이 시작되자 현장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아슬아슬한 무대로 바뀌었다. 신형 로보청소기가 발을 헛디디거나 경사면에서 미끄러지는 등 불안정한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됐기 때문이다. 시연이 끝나고 옆에 있던 한 네덜란드 관람객에게 “(퍼포먼스가) 아쉽지

않았냐”고 묻자 그는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뭐 어때요, 여기는 제품 판매 매장도 아니잖아요!” CES는 완성된 제품을 파는 시장이 아니라 혁신의 과정과 가능성을 공유하는 거대한 실험실 아니냐는 의미였다.

올해 CES 2026의 화두가 피지컬 AI였던 만큼 놀랄 만한 로봇들이 다수 등장했지만, 기술 완성도 면에선 투박하고 날것 그대로인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관람객들 앞에서 춤을 추고 하트를 보내던 중국 하이센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애런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부스 풍경은 사뭇 달랐다. 화려하고



‘소비자 가전쇼(CES)’ 개막 날인 6일 라스베이거스 원호텔에 전시된 삼성전자의 ‘마이크로 RGB TV’.

세련된 전시관은 오차 없는 무결점의 미술관 같았다. 한때 삼성의 혁신을 보여주는 듯했던 가정용 로봇 불리는 자취를 감췄고, AI홈 비전을 강조한 메시지도 4개월 전 베를린국제가전박람회

(IFA 2025)에서 보여준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삼성의 로봇 전략을 묻는 질의에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은 “(사내) 제조 거점에서 역량 강화를 한 뒤에 기업·소비자 대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실수하느니 완벽을 기해 다음을 기약하겠다는 경직된 완벽주의로 보였다.


시장의 판을 흔드는 퍼스트 무버로서의 야성도 희미해졌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번 CES에서 주력으로 내세운 RGB(적·녹·청) TV는 사실 중국 하이센스가 지난해 3월 세계 최초로 공개하며 시장의 문을 열었다. RGB TV는 액정표시장치(LCD)의 기존 백색 백라

이트를 적·녹·청으로 분리 제어해 색재현력과 밝기를 동시에 끌어올린 제품이다. 한국 기업은 이번엔 하이센스가 만든 소자 크기 500㎛(마이크로미터)를 10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줄인 것으로 만족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무게감이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완벽한 정답만을 내놓으려 하는 문화는 오히려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저해할 수 있다. 계단에서 미끄러질지언정 끊임없이 혁신을 시도하는 중국의 무모한 실험력이 언젠가 우리를 앞지르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돌아올지도 모를 일이다.

이우림 산업부 기자

김원근 변호사



- 민사·형사·이혼·강제집행·공사관련·세입자분쟁·비즈니스·프랜차이즈 분쟁·세금분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가정폭력·범죄기록말소·임금 연장근로수당·경업금지 소비자 보호법 명예훼손·자동차 교통사고·산재보험·화재보험·자동차 보험·각종 보험사고 기타 각종 재판 및 소송처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주택	주소	상태	가격	특징
매매 및 렌트	1465 Hampton Hill Cir, McLean, VA	COMING SOON	\$1.25M	로리가 Hampton에서 가장 많이 거래를 한 에이전트라고 소문이 나서 본인 집도 팔아 달라고 연락 음. 2/6 마켓에 올라올 예정
	5280 Jule Star Dr, Centreville, VA	UNDER CONTRACT	\$689,000	손님이 꼭 원하는 지역의 차고 1 타운 홈, 경장들 풀고 텀, Buyer So Happy 12/22 세팅먼트 예정
	8110 Squirrel Run Rd, Springfield, VA	SOLD	\$625,000	셀러가 원하는 조건으로 팔, 45일 무료 Rent Back은 보너스. 로리는 파는 것도 잘 함, Seller So Happy. 11/24 세팅먼트 완료
	1477 Hampton Hill Cir, McLean, VA	SOLD	\$1.32M	복수 오피 빌라 경쟁시켜 리스팅 가격보다 2만불 더 받음. Seller So Happy 10/24 세팅먼트 완료
	6758 Brook Run Dr, Falls Church, VA	SOLD	\$775,000	집 사자마자 주재원 장기 렌트 완료 10/21 세팅먼트 완료
	16309 Sandy Ridge Ct, Woodbridge, VA	SALE	\$970,000	Woodbridge의 Powells Landing 단지내 court 에 있는 잘 생긴 싱글홈
사업체 매매	델라샵(DC)		\$150K	DC 내 위치 좋은 잘 사는 곳이나 은퇴 예정 사업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 자녀 집 살 때 다운 페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갤럭시부동산

★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소	기간	세입자	
올 겨울/내년 봄에 파건 나올 주택원 30여명 있음, 렌트 놓을 집 갖고 있는 집 주인 환영	10월 ~ 내년 1월 입주 예정	\$2,000 ~ \$5,500 가격대 렌트	
1423 McLean Mews Ct, McLean, VA	NEW	바로 입주 가능	\$5,500 집 전체 업그레이드 된 차고 1 타운 홈, 방 3, 화 3+1, 카펫 없음, 톱셀로우 중/맥클린 고동
McLean, One Park Crest 콘도	NEW	바로 입주 가능	\$4,000
6518 Alexis Ln, Springfield, VA	NEW	바로 입주 가능	\$2,700 방 2, 화 2, 지정 차고, Springhill ES, Longfellow MS, McLean HS
Centreville, VA	NEW	12/20 입주 가능	\$3,200 집 전체 Renovation 된 차고 1 타운 홈, 풀린 파빌 중동
6605 Anthony Crest SQ, McLean, VA	NEW	12월 말 입주 가능	\$4,800 맥클린에서 유일하게 수영장 있는 차고 1, 타운 홈, 방 4, 화 3+1, 톱셀로우 중/맥클린 고동
7606 Jervis St, Springfield, VA	NEW	1/1일 입주 가능	\$3,300 집 전체 Renovation 된 차고 1 싱글 홈, 교통편리, 방4, 화2, Nice Owner
Vienna 타운하우스 옆 Amblerwood타운 하우스 단지 3채	NEW	현재는 12/20일, 두 채는 1/1일 입주 가능	\$4,600-\$4,800 차고 2 타운홈, Greensboro 역, Westinair 초동 클리어할 수 있는 거리, 집 상태 아주 좋음

일 년에 80~100여 주재원 렌트 구해 중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6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영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우리말 바꾸기

‘맹지’가 뭐예요?

다음 중 ‘맹지’가 뜻하는 것은?
㉠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대지
㉡ 길에서 잘 보이지 않는 땅
㉢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는 토지
토지와 관련한 기사를 보다 보면 ‘맹지’란 말이 종종 등장한다.
‘공공개발 때문에 맹지가 된 토지’ ‘맹지 구매 후 건축허가 받으려면?’ 등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일반인 가운데는 ‘맹지’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대지’는 ‘나대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나대지(裸地) 역시 어려운 말이므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국립국어원의 협의를 거쳐 ‘빈터’라는 쉬운 말로 바뀌 사용하기로 했다.
‘㉡ 길에서 잘 보이지 않는 땅’은 맹지(盲地)의 한자를 유추해 그냥 만들어 본 말이다. ‘맹지’가 뜻하는 것은 ‘㉢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는 토지’다. 도로가 없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다.
그런데 ‘맹지’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아예 나오지도 않는다. 국어원을 비롯, 국토부와 서울시 등 여러 정부기관이 ‘맹지’를 ‘길 없는 땅’으로 순화해 쓰기로 한바 있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제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 · 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홍일범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체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기자의 눈

열심히 살고 있다는 착각



정윤재
사회부 기자

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착각에는 또다른 모습이 있었다.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노력이라는 믿음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오래 고민하는 데서 안도감을 얻는다.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말, 더 생각이 필요하다는 말은 실행을 미루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에게 시간을 벌고 있다고 느낀다.
하지만 고민은 언제나 같은 무게를 가지지는 않는다. 고민은 달려가다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아직 출발도 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고민할 수 있을까. 해보지도 않고, 부딪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고민은 방향을 잡아주기보다 오히려 멈춰 서 있게 만든다. 고민이 깊어질수록 실행은 점점 더 멀어지는 순간도 있다.
이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은 의외로 일상에 많다.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지만, 막상 시작은 하지 않은 채 방법만 고민하는 순간이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할지, 잘할 수 있을지를 먼

저 따지다 보면 하루는 그렇게 지나가 버린다. 반면 아주 작은 행동 하나라도 직접 해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하나의 시도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드러낸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그리고 무엇을 더 해볼 수 있는지가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한다. 직접 해보는 과정 속에서 방향이 생기고 기준이 만들어진다. 그제서야 고민은 의미를 갖는다.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왔는지 살펴보고, 그 방식을 참고해 실행해보고, 결과를 점검하며 다시 수정하는 과정. 우리가 말하는 노력은 어쩌면 거창한 결심이나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이런 작고 반복적인 행동에 더 가까운지도 모른다.
그래서 요즘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가’ 대신 다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오늘 나는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그 일은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한 행동이었는가. 얼마나 피곤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나라도 해보았는지를 기준으로 하루를 바라보려 한다. 하루를 평가하거나 다그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도 묻고 싶다. 당신은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오늘 무엇을 했는가. 지금의 그 바쁨과 고민은, 정말로 당신이 원하는 곳을 향하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열심히 사는 법을 더 고민하기보다, 정확히 원하는 것을 향해 하나라도 해보는 용기가 더 필요한 시점에서 있는지도 모른다.

이아침에

죽음은 고통이어야 하나



정명석
시인


정을 함께하기 위해 스위스로 간다. 둘은 평생 애증 관계로 고통스러워 했음을 서로 고백하고 오해를 풀어간다.
은종이 상연에게 꼭 이 선택(안락사)을 했어야만 했는지, 후회는 없는지 묻는다. 상연은 동성연애자였던 오빠의 자살과 말기 암 환자로 괴로워한 엄마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이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상연이 찾아간 스위스의 안락사 장소는 ‘디그니타스(Dignitas)’라는 비영리 단체다. 이 단체는 실제로 존재하며 외국인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한다.
엄격히 말하면 안락사가 아닌 조력자살로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돕는다. 의사나 간호사가 약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 자신이 구강으로 마

시거나 정맥주사의 밸브를 열어 수면 상태로 유도한다. 다음 혼수상태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디그니타스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 먼저 이 단체의 회원이 되어야 하며 가입비와 연회비를 내고 정신적 올바른 판단력이 있어야 하며 최소한의 체력과 이동성이 있어야 한다.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도 필요하며 간단한 자신의 일대기를 보내고 승인을 기다린다. 일단 서류로 승인되면 스위스에 가서 의사와 인터뷰를 마친 후 최종 승인을 받는다. 이 준비 과정에 따르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과 큰 비용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택하는 경우는 자기 죽음에 대해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마지막 자존감이 아닐까.
그 어떤 죽음에도 정신적인, 신체적인 고통이 따른다. 다만 인간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위해서 현대 의학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한 지인이 “난 죽음은 두렵지 않은데 죽을 때 고통스러울까 너무 두렵다”라고 고민한다. 아직 의식이 있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면 가족에게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면 된다.

‘아니다’라는 답으로 이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현대 의학에서는 환자와 보호자가 원하면 생의 마지막(end of life)을 고통 없이 편안하게 맞이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비교적 최근에 생긴 전문 분야로 통증 완화팀(Palliative Care)은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대부분 말기 암 환자나 죽음이 임박한 환자의 통증을 치료한다. 견디기 힘든 통증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때 전문가의 도움으로 통증 문제를 해결해 삶의 질을 높인다는 의도이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은종과 상연’이라는 드라마를 감명 깊게 보았다. 두 사람의 우정은 분노와 오해를 남기고 몇 번의 절교를 맞이하지만 무슨 악연인지 계속 또 만나게 된다.
10년의 공백을 깨고 40대에 재회한 상연은 은종에게 자신이 시한부 인생의 말기 암 환자여서 안락사를 택해 스위스로 가기로 했는데 동행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한다. 은종은 이 모든 사실을 믿지 않고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쇼를 벌이나 천대하며 밀쳐낸다. 그리고 이것은 “폭력이야”라고 외친다.
결국 은종은 상연의 요청을 수락하며 마지막 여

1. 센터빌 벽돌 타운


SOLD \$589,000



방3, 화2.5, 차고1, Hmart 인근, 29/Braddock/28/66

2. 애쉬번 타운


\$660,000



Under Contract
방4, 화3.5, 차고2, 최고 학교, RT267/7, 엘리스 공향, 전부 리모델링, 새집 같은

3. 맥클린 콘도


\$389,000



Under Contract
방2, 화2, 1,050sqft, Mclean High, RT495/66/267/7, Metro, Tysons Galleria 옆

4. 스티어링 타운


SOLD \$645,000



2014년,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5. 게인스빌 골프 싱글

SOLD \$1,060,000



게인스빌 레이크 메나사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

6. 빌더 새집 구매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Sold

1. Haymarket 55+ Villa

\$670,000

방3, 화3.5 차고2

2. 메나사스 2025 새집

\$670,000

방4, 화3.5, 2400sqft, 차고2


3. Bristow 55+ single

\$750,000

방4, 화3.5 차고2

7. 우드브리지 싱글


SOLD \$649,000



1997년, 방4, 화3.5 차고1, 뒷산, 최고 학교, 전부 리모델링, 포토맥 물/RT195, RT1, Rt234, 디씨출근 편리

8. 도미니언 밸리 컨트리 클럽, 헤이마켓 싱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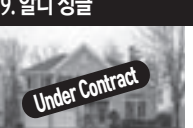
\$1,699,000



1에이커 숲속, 6,700sqft, 방5, 화5.5, 차고3, 섀로, 고급 조경, 트레이 천장, 스파 욕실, 드레스룸, 인로우 스위트, 미디어룸, 게임룸, 바 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9. 알디 싱글

\$869,000




Under Contract
2004년, 방4, 화2.5, 차고2, 전채마루, 국전디션, New Trex deck, New paint, New roof, John Champe High School


황계실 571-239-6054

고객만족 18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건물·오피스·창고·상가

부동산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 앞 빌딩 3층

“한국 교수들 ‘레이더형 인간’ … 권력 액세스서리 자처”

안혜리의 직격인터뷰

논설위원



정치인들이 튀긴 온갖 오물 탓에 나라가 어지럽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보수 진영 출신 이해훈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관련 1일 1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정부 첫 집권당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공천 현금과 같은 각종 비리 의혹에도 당의 자진 탈당 요구를 거부해 12일 끝내 제명 처분을 받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에나 있을 일…너무 충격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별로 없을 듯하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이른바 ‘비명횡사(비 이재명계 탈락)·진명횡재’ 공천을 주도한 김 의원 본인이 공천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일찌감치 제기됐지만 경찰이 덮어줘 아무 문제 없이 여당 원내대표까지 됐으니 하는 말이다. 게다가 뒤늦게 공개된 김병기·강선우 대화 녹취 음성 파일 덕분에 민주당의 서울시의원 공천 시제가 1의혹이라는 사실도 만천하에 공개됐다. 이런 시대 퇴행적이고 후진적인 비리를 보며 평범한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그런데 영국노동당을 전공한 정치학자이자 『조지 오웰 지식인과 권력』을 쓴 고세훈 고려대 명예교수는 “이렇게 흘러갈 거라 아주 구체적으로 예상했던 일이라 전혀 놀랍지 않다”고 했다. 그가 이런 말을 한 배경엔 한국 지식인들 정체를 드러낸 조국 사태가 있었다. 초판(2012) 낸 지 14년만인 올 초 이 책 개정판을 낸 고 교수를 지난 9일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개정판 낸 이유는.

“서문에 썼지만 부패한 정치가 뒤엉켜 나뒹구는 시대라 다시 오웰을 소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원래 한길사에서 내고 3쇄까지 나오는 등 성과가 꽤 좋았다. 그런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조국의 시간』(2021)을 한길사가 출간하는 걸 보고 계약을 해지했다. 김언호 대표한테 역사와 이름있는 출판사가 (조국 변명을 담은) 이런 책을 내셔야 되겠느냐고 했다. 흥분하면서 한국 사법이 썩었느니, 당신이 그러면 안 되느니 하더라. 거기서 출판한 내 책을 다 중단시켰다. 이게 소문이 나 다른 출판사 제안이 와서 개정판을 냈다.”

부나비처럼 권력 향한 지식인들

-김 대표 외에 교수들도 조국에 감정이입 많이 한다. “정체성이 일치하니까 그렇게 느낄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걸 뛰어넘지 못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다. 여기서 지식인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19세기 말 반유대주의 광기가 빛은 드레퓔스 사건 앞에서 에밀 졸라는 상식을 지키려고 ‘나는 고발한다’

를 썼다. 그런데 한국에는 조국과 같은 편에서 그런 상식을 말한 지식인이 한 명도 없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목격하고도 모든 걸 진영 논리로만 이해한다.”

-진영 논리의 어떤 점이 문제인가.

“진영 논리가 모든 걸 집어삼켰다. 진영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어디나 진영이 있고, 정치는 수많은 사회 갈등을 진영으로 엮어 해결한다. 그게 제대로 기능하려면 진영의 내용(사상적·이론적 토대)이 잘 정비돼 있어야 한다. 내용 정비가 지식인의 역할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진영의 내용은 비어 있는데 지식인이 그 비어있는 진영 속으로 부나비처럼 뛰어든다. 특히 좌파 지식인들. 조지 오웰이 비판했던 것과 똑같아.”

※오웰은 “좌파지식인들은 진실이 상대 진영 선전에 악용된다는 이유로 자기편 범죄엔 눈을 감고 상대방에 대한 연민은 멈춘다”고 비판했다. 또 “늘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 주변을 서성이는 지식인의 기회주의는 가장 가공할 권력의 형식이면서 전체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라며 “지식인이 전체주의에 취약하다”고 봤다. 민주당을 둘러싼 한국 좌파 지식인 비판으로 읽어도 무리가 없다.

-좌파 지식인이 왜 문제인가.

“진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우리 좌파 진보는 사상적 뿌리가 없다. 그저 북한·중국과의 관계에서 형성돼와 진짜 진보를 공부할 틈이 없었다. 그럴 시기가 지났는데도 계속 공부를 안 했다. 그 결과 진보라는 이름으로 지금 한국 정치를 주도하는 이 진영의 모습이 뭔가. 무도하고 무례하고 비굴한 행태들이다. 학문과 이론을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 그냥 한마디로 반 상식적이다. 한국의 비극이다.”

-한국 지식인은 왜 그럴까.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는, 지식에 대한 보상이 여전히 굉장히 강한 나라라서 그렇다. 한국에선 지식 자체가 권력 자원이고, 그걸 이용하려는 권력자가 넘친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다 보니 객관화해서 보질 못한다. 한마디로 권력의 액세스서리를 마다치 않는 지식인의 권력욕 탓이 크다. 좀 과장하자면 사회과학 교수들은 전부 잠재적 폴리페서들이다.”

-무슨 의미인가?

“자연과학에선 세계적 학자와 경쟁하는 연구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 반면 사회과학은 찾기 어렵다. 세계 지식계에 이름을 내놓지 못한다. 이들 학자(교수) 대부분 영미권에서 유학하는데, 학위 받은 다음이 문제다. 영어 논문을 발표해서 끊임없이 동료 학자들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한국 교수들은 영어 장벽 등의 이유로 자각 있는 저널에 논문이 실릴 기회가 우선 없고, 더 중요하게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힘들게 그런 연구 안 해도 이미 많은 걸 누리는데 뭐 하러 하나. 일단 교수 타이틀만 따면 막강한 프레스티지(권위)가 주어진다. 단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걸 얻어 돈으로 환산되는 프레스티지다. 미국·영국 등에서 학자들이 존중받는 건 다 이유가 있다. 우린 아니다. (현실정치나 학

조국 사태, 민주주의 붕괴 시발점
철학 없이 진영 논리에 함몰돼
비상식에 침묵한 지식인에 절망
민주당 공천 돈 거래는 예상 수준



『조지 오웰 지식인과 권력』을 쓴 고세훈 고려대 명예교수. 부패한 정치권력의 시너를 자처하는 지식인을 비판했다. 김경록 기자

계)에 기여에 비해 보상이 터무니없이 많다. 이런 풍토에선 치열하게 공부할 유인이 없다.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내 지식이 활용될 만한 권력을 갈구한다는 의미에서 잠재적 폴리페서라고 한 거다. 교수들은 그렇게 레이더형 인간이 된다.”

-레이더형 인간은 무엇인가?

“굳이 더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시간적 금전적 여유는 있다면 어디에 눈을 돌리겠나. 나를 써줄 만한 데를 향해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나. 남 비판할 것 없다. 나부터가 그렇다. 사실 오웰은 내 전공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 정치학을 철저히 공부해야 했다면 (500페이지 넘는) 오웰 책을 쓸 수 없었다. 학교가 허용한 여유와 금전적 혜택에서 나올 수 있었다. 진영에 속해 권력을 탐하진 않았지만 큰 범주에선 같다.”

-체대로 된 지식인의 역할은 뭔가.

“먼저 묻자. 우리가 아무리 역사와 사상과 철학을 공부해도 달라지는 것 없이 끝없이 (과오가) 반복되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역사·사상·철학 공부를 할까. 인간은 변한 게 하나도 없고, (무도한) 권력 속성도 그대로인데. 그건, 내일 또 잘못되더라도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걸 말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모순 속을 살아간다고 해도, 그 모순이 모순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지식인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런

데 지금 한국은 지식(인)이 권력의 도구로만 활용된다. 지식인 스스로 지식이 권력이라는 걸 알기에 조금만 지식을 쌓아도 남과 차별화하려고 과장하고 자랑한다. 정치의 큰 방향 설정은 못 하고 지식인이 정치의 시너로 전락했다. 조국 사태가 결정적이다.”

‘최소 상식’ 마지노선 무너져

-조국 사태가 왜 그렇게 특별한가.

“지금 삼권분립, 즉 민주주의가 다 무너져간다. 그 시발점이 2019년 조국 사태다. 사안의 본질은 권력자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다. 사상이나 원칙, 이성이나 이론을 들이댈 필요도 없이 그냥 상식이다. 그런데 지식인들이 논쟁과 이론의 여지 없는 이 상식 앞에서 침묵하거나 동조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최소한의 상식이라는 마지노선이 무너진 거다. 조국은 공인이고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큰 권력자였다. 자기 연구실 안 사인 얘기가 아니라 공인의 비리가 만천하에 공개됐다. 그런 권력자의 비행에 지식인이 침묵한다는 건 지식계가 그만큼 부패해있다는 얘기가.”

-그 이후 또 실망한 사례가 있나.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는 하기도 싫다. 이걸 제외한다면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민주당 공천이다. 정당의 가장 큰 두 기능이 정책과 인사, 즉 공천이다. 그런데 조국 사태 못지않게 백주에 공당이 (비명횡사·진명횡재와 같은) 반상식적 일을 자행하는데 지식인이 비판 대신 가담했다. 그런 맥락에서 김병기·강선우 사태는 필연이다.”

-다 예상했다는 말인가.

“그렇다. 조국 사태로 선이 무너졌으니 비명횡사 공천 같은 무도한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진다. 금전적 권력적 거래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구체적으로 예상했다.”

-관심 한복판인 서울 당 지도부의 공천 장사 의혹이 충격적이다.

“굉장히 순진하다. 변두리만 혼자 썩지 않는다. 중심부는 언제나 썩어 있다. 이익공동체니까. 그래서 무섭다. 정권이 이익의 문제가 돼버렸다. 돈과 권력의 이해관계로 얽혀있으니 정작 정상적인 진영 싸움은 일어날 수 없다. 이념이나 연대의식이 아니라 이익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터무니없는 상황을 너무 많이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무감각을 넘어 냉소주의로 흐른다. 아무 원칙 없는 시대, 사람들이 잣대로 삼는 기준은 딱 하나, 내 이해관계다. ‘이해관계의 철학’을 눈치 빠른 정치인이 먼저 포착한 결과를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

-바로잡을 방법은 뭔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문제라고 인식을 해야 한다. 인식조차 못 하는데 어떻게 해결책이 나오나.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다. 그럼에도 지식인 본연의 역할대로 말하자면, 희망은 언제나 당위다. 희망이 있어서 갖는 게 아니라 희망을 가져야 하므로 희망을 품는다.”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1961년생 메디케어 가입 상담 및 신청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571-225-0110



헬렌 서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오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가)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시 설

윤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민주주의 훼손 다신 없어야

어제(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내란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는 중죄다. 국민의 손으로 뽑힌 대통령이 다른 범죄도 아닌 헌정을 파괴하는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사형까지 구형받은 것 자체가 참담한 일이다.

실제 한국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임에도,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는 것은 그 의미가 가볍지 않다. 특검은 이날 “12·3 비상계엄은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으로 피고인은 모의부터 실행까지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라며 “가장 극한 형벌로 대응해야 한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또 “전두환·노태우 세력을 단죄한 역사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내란을 획책했다”며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군부 세력보다 엄격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도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계엄 선포는 정당한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 돼야 한다. 12·3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 행위인지의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하지만 내란 성립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앞서, 선출된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한 권력 분립의 한계를 넘어 군을 동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게다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겠다

는 명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 자체가 위헌적인 것임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이미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를 부인하고 ‘계몽령’ 운운하는 것은 궤변일 뿐이다.

재판 과정에서 보인 윤 전 대통령의 태도도 전직 국가원수의 품격과는 거리가 있었다. 재판에는 선택적으로 출석하고, 자신의 명령을 따른 장군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미안하다”는 말을 군장성들에게 전했지만, 정작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한 사과를 끝내 하지 않았다. 대신 일관되게 국가 운영의 발목을 잡는 국회에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헌적 행동이 정당했다고 강변하는 또 다른 궤변이었

을 뿐이다.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리에는 한때 동정적이던 일부 보수층조차도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점이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의 명분으로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내세웠지만, 오히려 국민의힘과 보수세력이 내부 갈등으로 지리멸렬한 지경에 이르렀다.

윤 전 대통령이 발동한 12·3 비상계엄은 시대착오적 이었고, 한국 사회에 남긴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컸다. 공동체가 갈라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흔들린 대가까지 포함하면 한국 민주주의가 입은 상처는 훨씬 깊다. 실제 사형을 선고할 것이냐는 재판부의 판단이지만 이번 구형은 선출된 권력이 군과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도 더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통렬한 사과와 반성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일 것이다.

“강자는 할 일 하고 약자 감내한다”

고정애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강자는 할 일을 하고 약자는 감내할 뿐이다.” 실감한다. 냉혹한 국제정치의 정수(精髓)로, 2500년 전 아테네가 중립국 멜로스에 항복하거나, 침공당하거나 하라며 한 말에서 유래했다(『펠로폰네소스 전쟁사』). 당시 아테네는 “‘당신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정복하려고 하느냐’는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 멜로스는 반박하며 정의를 말했고, 신(神)을 말했고, 동맹을 말했다. 아테네는 냉소했다.

“우리의 지배권에 설사 종말이 오더라도 그걸 생각해 동요할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여기에 온 건 우리 지배권의 이익을 위해서며 귀 도시의 존망을 논하기 위해서란 두 가지 점을 명백히 하고 싶다.” “그런 신은 우리에게도 많다. 신들의 세계에서 강한 신이 약한 신을 지배한다.” “당신들은 자신의 생존에 관해 얘기하지 않고 미래에 있을지 모를 희망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 무엇이 합리적인 선택인가 생각하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의 희망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무감각하고 오만한 것이다.”

마두로 축출 작전에서 미국이 마두로의 측근들에게 미국의 지침을 따르거나, 제거되거나 선택하라고 했다. 기시감이 들지 않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유연한 현실주의(flexible realism)’라고 했다. 누군가는 “미국이 힘과 자국 이익만으로 외교정책이 성립할 수 있는지 공개적으로 실험하고 있다”(라파엘 S 코헨)고 평했다.

트럼프의 ‘실험’이 현란하긴 하지만 트럼프만 그러고 있는 건 아니다. 마·중 패권 경쟁이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베네수엘라·이란·그린란드 등은 개별 사안 아니다. ‘원유’로 꿰어도 알 수 있다. 에너지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베네수엘라·이란·러시아로부터 (때론 유령 선단을 통해) 혈값에 원유를 사들이고 있다. 사방 제재 때문이다. 전체의 20%가 제재 지역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만일 제값을 내야 한다면? 국제가스연맹 회장 출신의 에너지 전문가 강주명은 “일대일로(一帶一路)도 단순하게 표현하면 중국의 석

유·가스 확보망”이라며 “제재의 최대 수혜자인 중국으로선 이 체제가 흔들리면 힘들어진다”고 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유럽의 반발에도 러시아와의 휴전을 밀어붙이고, 이란 상황에도 개입하려고 한다.

그린란드도 다르지 않다. 트럼프가 요란하게 중국을 압박하다 물러선 게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린란드는 희토류 말고도 북극항로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중국은 러시아를 통해 북극에 접근하고 있다. 트럼프는 오랜 동맹(유럽)과의 갈등도 불사하며 저지하고 있다.

한 서구의 전문가가 19세기 영국과 러시아가 중앙아시아를 놓고 벌인 경쟁에 빗대어 “21세기 그레이트 게임”(라나 포루하)이라고 했다. “유럽·한국·일본·호주, 아프리카 일부와 라틴 아메리카 모두가 이 게임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이들은 마·중 사이에서 이분법적이지 않은 선택을 내려야 한다”면서다. 공감한다. 80년간 미국의 안보 우산에 있던 유럽

현실주의 앞세운 마·중 패권 경쟁
전 지구적 ‘21세기 그레이트 게임’
대논쟁 통해 우리 방향 정리해야

은 스스로 방아라는 낯선 숙제를 받아 들었다. 러시아 혐오증과 “러시아를 약화시키면 그 자원을 중국이 장악하기 쉽게 만들 것”이란 현실론 사이에 길도 내야 한다.

우리도 역시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는 발언을 “공자님 말씀으로 들었다” “착하게 잘살자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넘기려 했는데 며칠 뒤 주한 중국 대사가 한·미·일을 언급하며 국제적 배경과 밀접하게 관련 있다고 사실상 반박했다.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넘길 상황이 아니다. 핵을 가진 북한과도 ‘잘 지내자’ 만으로 어렵다. 대논쟁이 있어야 한다. 정권 때마다 달라지는 갈지자 행보로 신뢰를 얻기 어렵다. 방향만이라도 공감대를 만들어내야 한다. 정치 양극화가 극심한 미국도 중국 견제엔 수긍한다.

결국 멜로스는 지워졌다. 우리의 생존이 걸려 있다.

중앙SUNDAY 편집국장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life.joongang.co.kr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물품·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전담 고객서비스 미국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FINANCIAL TIMES 일본 読売新聞, 日本経済新聞 구독료 월정 20,000원 1부 1,000원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중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지오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그라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리치몬드
페닌슬라
상당원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사무장 김진주 ※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 변호사 임종범 ※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김우기

통증·한방·재활 물리치료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CORE Integrative Care & Wellness

○ 센터빌
○ 찬틀리
○ 헌 돈



한국과 미국에서의 통증·재활 분야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양·한방 통합 치료로 집중 케어 해드립니다!

메디 케어

- 각종 의료보험
- 여행자 보험

교통 사고

- 메디케이드
-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 치료
보박스 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 치료
한방 침 치료, 전기 치료
관절/근막이완 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
- 뇌졸중/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Licensed Acupuncturist

원장 김우기 DPT, LAC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김우기

통증·한방·재활 물리치료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받습니다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6년 현재 **30년 이상**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SPECIAL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예초
알
빌딩

건강 & 연예/문화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Wednesday, January, 14 2026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LENNOX, TRAN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추방재판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95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은 별도 \$5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703)303-4556 / f.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실천 가능한 운동 목표 수립, 성취감 느껴야 작심삼일 극복

지속 가능한 운동 루틴 설정법

‘매일 운동’ 높은 목표 설정은 걸림돌
부담 적은 식후 5분, 숨차게 2분 운동
욕심 내려놓고 꾸준함에 집중해야

새해가 되면 야심 차게 계획을 세우지만, 실천하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며칠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되기 일쑤고, 계획은 어느새 잊혀진다. 그럴 때 사람들은 흔히 의지를 탓한다. 하지만 알고 보면 잘못 세운 목표가 원인일 수 있다. 특히 운동 계획은 목표 설정이라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순간 실패로 이어지기 쉽다. 목표를 잘 설정하고, 그에 맞춰 운동의 강도와 구성을 자신의 몸에 맞게 조정해야 계획을 이룰 수 있다.

‘주 3회 헬스장’ 구체적 목표 세워 실천
많은 사람들이 ‘10kg 감량’ ‘매일 운동하기’처럼 막연하고 높은 목표를 세운다. 하지만 처음부터 대단한 걸 해내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중앙대병원 가정의학과 조수현 교수는 “주 3~4회 운동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한 주라도 못 지키면 ‘실패했다’며 아예 운동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며 “과도한 목표 설정이 중도 포기의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운동 목표는 실현 가능해야 한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서 시작해야 첫발을 떼기가 수월하다. 운동은 일단 시작해야 반복할 수 있고, 반복을 통해 습관이 만들어진다. 목표가 너무 낮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최근 짧은 운동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식후 2~5분 걷기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1~2분씩 숨이 찰 정도로 하루 몇 차례 움직이면 암이나 심혈관 질환 관



실현할 수 있는 목표는 성취감을 만들고, 성취감은 운동을 지속하게 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련 사망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중요한 건 짧더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체력 향상은 물론 암, 만성질환 예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목표는 구체적일수록 좋다. 단순히 ‘운동하기’보다는 ‘일주일에 3일 이상 헬스장 가기’처럼 구체적으로 정해야 실천으로 이어지기 쉽다.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임정선 교수는 “체력이 조금씩 좋아지거나 몸의 지표가 서서히 변하는 ‘과정’을 목표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러한 목표는 성취감을 만들고, 그 성취감이 운동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목표를 대하는 유연한 태도다. 한 시간을 운동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다면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된다. 이를 실패로 여기지 않

고 운동을 이어가야 습관이 만들어진다. 완벽함만 고집하면 작은 실패에도 좌절하게 되고, 운동은 점점 멀어진다.

이제 실천 방법을 정할 차례다. 운동 초보자라면 ‘어떤 운동을 할지’보다 ‘얼마나 꾸준히 할 수 있을지’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운동 습관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운동 시설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집과의 거리, 이용의 편리성부터 고려하자. 운동 기구나 시설의 규모는 습관이 자리 잡은 뒤에 고민해도 늦지 않다. 시설 이용이 어렵다면 야외나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운동도 좋다. 러닝이나 앱·영상을 활용한 홈트레이닝 등 혼자서도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다.

운동 강도는 천천히, 기록은 꾸준히
운동 루틴을 짤 때는 준비·마무리 운동, 유산소, 근력, 코어 운동을 균형 있게 구

성해야 한다. 이때 많은 사람이 고민하는 부분은 유산소와 근력 운동의 비율이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일반적으로는 유산소 운동의 비중을 조금 더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최근 비만과 만성질환이 늘면서 체지방 감소와 심폐 기능 강화에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유산소 운동 50~60%, 근력 운동 30~40%, 코어 운동 10~20% 정도의 비율이 적당하다. 물론 이 비율은 나이와 건강 상태, 운동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임 교수는 “체중은 정상이지만 체지방률이 높은 경우에는 근력 운동 비중을 높이고, 기저질환 환자는 비교적 안전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중심으로 운동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낙상 위험이 커지고 심폐 기능이 저하되는 만큼 저강도 유산소 운동과 균형 운동을 함께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에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강도를 높이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이때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도를 한꺼번에 높이면 통증이나 부상이 생겨 운동을 멈춰야 하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힘줄, 인대, 관절을 다치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이로 인해 운동을 멈추면 시간·횟수·무게를 하나씩 간격을 두고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관절에서 소리가 나거나, 복근 운동 중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는 등 목표한 부위가 아닌 다른 곳에 힘이 들어간다면 자세 점검이 먼저다.

운동을 거르는 날이 찾아진다면 기록의 힘을 빌려보자. 복잡하게 적을 필요도 없다. 운동하는 장소에 갔는지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SNS에 인증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김기영 기자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Ebenezer
Total Wedding Service
중매 결혼식 드레스 반복 예물, 예단
에어, 메이크업 연회장 피로연 주례 사진촬영
7 Broad Ave STE 106, Palisades Park, NJ 07650
상담 및 예약 : 917.359.1578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락빌의 건강지킴이
황지연 내과 Jiyon Hwang-Ki MD
www.drhwangki.com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만성 성인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황지연 내과와 함께 관리하세요.”
진료 과목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협심증, 해소, 천식,
위궤양, 간염, 알러지검사, 신경통,
관절통 및 신경질환, 갑상선,
종합검진, 각종 예방 주사, 부인과 진료,
수액 주사, 링거 주사
** 메디케어 및 HMO, 각종 일반 보험 취급합니다.
** Amerigroup 받습니다.
Dr. 황지연
Jiki Medical Associates, LLC
Internal Medicine
301-610-6630
15200 Shady Grove Rd, Ste 108, Rockville, MD 20850
Fax. 301-610-5431 | Email. jikimedical@gmail.com

‘두통도 병이다’ 인식 개선 이끌고 치료법 개발에도 앞장

편두통·긴장형 두통... 종류·통증 다양
20년간 무너진 일상 일으켜 세우

“눈 주변으로 두통이 온 환자가 있었어요. 진료실에 와서 표현하기를 ‘눈으로 아이를 낳는 느낌’이래요. 상상도 못 할 고통인 거죠. 제 환자 중에는 두통 때문에 고등학교를 자퇴한 이들도 세 명이나 됩니다.”

강북삼성병원 신경과 문희수 교수가 말했다. 두통은 흔하다는 이유로 종종 가볍게 취급되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넘어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만큼 위협적인 질환이다. 문 교수는 20여 년간 이런 환자들의 일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힘썼다.

레지던트 시절부터 그는 두통 환자가 겪는 좌절을 가까이서 지켜봤다. 당시 신경과에서조차 두통은 병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했다. ‘두통으로 죽지 않는다’ ‘성격이 예민해 그런다’는 식의 말들도 오갔다. 환자의 고통을 제대로 알아주고 치료해 줄 의사가 필요했다. 문 교수는 “문제의식을 갖던 중 삼성서울병원 지도교수님을 따라 초창기 대한두통학회 일을 돕게 됐고, 두통 분야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생각보다 두통의 종류가 다양하다.

“크게는 일차와 이차로 분류한다. 일차는 특별한 질환이 없는, 즉 두통 자체가 질병인 경우다. 편두통과 긴장형 두통, 군발두통 등이 여기 속한다. 반면에 이차 두통은 특정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두통으로 뇌출혈·뇌종양·뇌수막염 등이 원인일 수 있다. 이 중 치료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편두통 환자들에게 특히 관심이 많다.”

-편두통은 한쪽 머리가 아픈 두통인가.

“이름 탓에 생긴 오해다. 한쪽만 아플 수도 있지만, 양쪽 머리에 번갈아 두통이 생기기도 한다. 편두통은 타고나는 문제다. 쉽게 흥분하고 통증에 예민한 뇌를 가진 거다. 이런 상태에서 밤을 새우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등 환경적 요인이 더해지면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편두통으로 오진되는 두통도 있던데.

“군발두통이다. 외대 6년 과정 중 두통 관련 강의가 2~3시간에 불과하다 보니 신경과 의사가 아니면 군발두통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다. 군발두통은 주로 눈 주위나 관자놀이에서 나타나는 두통으로, 통증이 생기는 군발기와 증



문희수 교수는 “대한두통학회에서는 ‘두통도 병이다’라는 슬로건을 쓴다”며 “말 그대로 두통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지, 마음가짐이 잘못돼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은주 객원기자

상이 없는 관해기가 번갈아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두세 달간 매일 비슷한 시간에 증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봄가을처럼 특정 계절에만 생기기도 해 ‘알람 두통’이라고도 불린다.”

-통증은 어느 정도인가.

“알람 두통 외에 ‘자살 두통’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통증의 강도가 극심하다. 지속 시간이 15분에서 3시간 정도로 편두통보다는 짧지만, 그사이 한쪽 머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몰

아치고 눈물·땀물 같은 자율신경계 증상이 나타난다. 너무 괴로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마저 든다. 그 고통을 알기에 군발두통인 환자가 ‘군발기가 시작됐다’며 연락하면 외래 예약이 다 차도 당일 진료를 보려 노력한다.”

-일부는 병원 대신 약국 진통제로 버틴다.

“실제 약국에서 진통제를 구입해 하루에 8알, 10알씩 몇십 년간 먹는 사람도 있다. 문제는 과도하게 진통제를 먹으면 내성이 생기고 진통제 때문에 두

통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험상 매달 한두 번이라도 진통제를 복용할 정도로 반복되는 두통이 있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좋다.”

문 교수는 그간 진료실 밖에서도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모색했다. 신약 개발을 위한 국제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국내에 들어온 약제를 의사와 환자에게 소개하는 학회 활동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두통 치료제의 변화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다.

그는 “과거 편두통약은 고탐압약이나 항우울제처럼 다른 용도로 개발된 약이 우연히 환자에게 효과를 보여 사용하는 방식이었다”며 “편두통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피로, 체중 증가, 어지러움 같은 부작용이 환자를 더 힘들게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최근 몇 년 사이 편두통 표적치료제가 개발돼 국내에 도입됐다”며 “이 약들은 효과는 더 크지만, 부작용은 적다”고 했다.

치료제 사용과 더불어 일상에서 두통을 유발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조절하려는 환자의 노력도 중요하다. ▶두통약 과용하지 않기 ▶스트레스 줄이기 ▶건강한 식습관 갖기 ▶작업할 때 올바른 자세 취하기 ▶카페인과 담배, 술 피하기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수 기자**

해충·자외선 견디며 자란 황칠나무 성분, 면역력 높여준다

강인한 생명력 품은 식물

해안가에서 자라는 우리나라 고유종 살아남기 위해 사포닌·베를린 합성 항염·항균·항산화 물질 다량 함유

남해와 제주 해안가에는 우리나라의 고유종인 황칠나무가 자란다.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며 면역적으로 단단한 성질을 품고 있는 게 특징이다. 황칠나무는 해풍과 강한 자외선, 해충, 곰팡이 등 끊임없이 밀려드는 스트레스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항산화·항염 물질 다량 함유해낸다. 오늘날 건강강화적으로 황칠을 재조명하는 배경이다.

황칠은 나무에 상처를 내면 황금빛 수지가 흘러나온다 해서 얻어진 이름이다. 삼국시대부터 조선 왕조에 이르기까지 황칠은 왕실과 사찰의 도료로 귀하게 취급됐다. 빛깔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오래도록 부패하지 않는 기

능도 있어서다. 황칠 수지에는 벌레와 곰팡이를 막는 강력한 항균 성분이 들어 있다. 조선 후기의 농업·약학서 『산림경제』에서는 황칠을 ‘천금목(千金木)’이라고 기록했다. ‘천금을 주고서라도 살 가치가 있는 나무’라는 뜻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황칠 수지를 위장병, 피부 질환, 관절통 치료 등에 활용했다는 기록도 확인된다.

NK세포 활성화 촉진시켜 면역 반응 강화

한때 황칠나무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시절이 있었다. 조선시대에 중국으로 보내는 조공 중 하나가 황칠이었는데 지방 관청이 백성들에게 무리하게 채취를 요구하면서 주민들은 부담을 피하기 위해 나무를 베어 고사시키는 일이 잦았다. 한동안 숲에서 황칠나무를 찾는 일이 어려워진 것도 이 때문이다. 이후 임산자원 보호 정책이 강화되고 건강 소재로 황칠이 다시 조명되면서 재배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황칠나무의 생명력은 연구로 증명된

다. 식물이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드는 2차 대사산물은 종종 인간에게 강력한 약리 효과를 선사한다. 황칠의 대표 성분인 사포닌과 베를린이 그러한 생체 화학물질이다.

사포닌은 원래 식물이 곰팡이나 해충의 공격을 막기 위해 분비하는 항균성 물질이다. 황칠에 든 사포닌의 구조는 인삼 사포닌과 유사한 형태다. 피로 해소, 기력 증진이라는 전통적 인식이 현대 연구에서 면역 향상성 유지라는 언어로 재해석되고 있는 셈이다.

베를린은 강한 자외선·건조·강풍 같은 물리적 자극 속에서 황칠나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성분이다. 항염·항산화·항종양 연구에서 꾸준히 주목받는 물질이다.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증식하는 세포의 주기를 멈추게 한다는 결과도 다수 보고됐다. 자연살해(NK)세포의 활성을 촉진해 면역 반응을 강화한다는 보고도 있다. 감염과 세포 노화를 줄이고 조직 손상 회복과 관련된 면역을 조절한다는 면에

Tip

황칠이 강한 이유

강한 해충·자외선·해충 위험



생존 위한 방어 물질 분비 (사포닌·베를린·폴리페놀)



항산화·항염·항균 능력 배가



간·피부 보호, 면역 조절에 도움

와 해양성 기후 환경은 황칠이 항산화 물질을 더 많이 합성하도록 만든다.

황칠에는 클로로젠산·페룰산·퀴세틴·루틴 등 인체 건강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항산화 물질이 다량 들어 있다. 이 성분들은 각각 작용 기전이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산화 스트레스 감소→염증 완화→세포 보호→혈관 기능 강화’라는 방향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한다. 황칠을 전체적인 신체 균형을 돕는 복합 생리 활성 식물로 평가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음주·약물 등으로 손상된 간 기능 회복

황칠 연구 중 상대적으로 근거가 많이 축적된 분야는 간이다. 음주·약물·지방 축적 등으로 손상된 간세포는 산화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황칠 추출물은 이 스트레스를 줄여 간 기능 회복을 돕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황칠이 간세포의 대사 환경을 안정화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함으로써 세포 수준에서 회복 기반을 만든다는 의미다.

이민영 기자

+ 임마누엘 홈힐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
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443-288-6677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주2회 방문), 마사지체어실, 탁구대, 당구대, 노래방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 의료동행서비스 (병원 예약 및 진료에 동행, 맞춤형 지원)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즐겁고 활력 넘치는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878-6611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겨울철 고관절 주의보…통증 놔두면 전신 관절 부담 커진다”

인터뷰 곽상준 원장

겨울은 관절에 가혹한 계절이다. 기온이 낮아지면 근육과 인대 수축으로 관절이 뻣뻣해지고 움직임도 둔해진다. 이런 상태에서 눈길과 빙판길을 마주하면 낙상 위험이 커진다. 실제 겨울에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 입원율이 다른 계절보다 11%포인트 높다는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도 있다.

낙상은 넘어짐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고관절 골절이나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고관절 관절염이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처럼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작은 충격만으로도 증상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 문제는 고령 인구가 늘면서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의 낙상 위험이 날로 커진다는 점이다

고관절 질환 환자의 주된 연령대는
“상당수가 골다공증을 동반한 노인층이다. 과거에는 70대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고령층의 활동량 증가로 80대 후반이나 90대 초고령 관절염 환자들의 내원 사례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고관절 통증이 위험 신호인 이유는
“고관절은 몸의 중심을 지탱하는 관절이라 한 번 망가지면 일상으로의 복귀가 쉽지 않다. 거동이 어려워져 장기



곽상준 원장은 “고관절 통증은 방치했을 때 보행과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간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욕창이나 혈전증 같은 합병증이 도미노처럼 찾아온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층은 누워 있는 기간 동안 근육 소모가 빠르게 진행된다. 운 좋게 회복해도 예전처럼 활기찬 일상을 되찾기 어려울 수 있다.”

다른 부위에도 악영향을 미치나.
“고관절이 망가지면 우리 몸은 통증을 피하기 위해 걸음걸이를 억지로 바꾸게 된다. 이로 인해 골반과 척추가 뒤

로인 낙상 입원, 겨울에 11%P 늘어
고관절 질환 방치 땀 삶의 질 하락
제기능 못하면 인공관절 수술 필요

틀리고 요통이 유발될 수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무릎 부담이 커지고, 보행 균형이 무너진 탓에 발목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기울어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연쇄적인 문제를 ‘인접 관절 증후군’

고관절 건강 지키는 수칙 4가지

1.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근육의 힘을 기르고 균형 감각을 키워요.
2. 매년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하기
필요시 시력 조절에 적합한 안경을 써요.
3. 안전한 가정환경 만들기
화장실 물기를 제거하고 환한 조명을 설치해요.
4. 현기증 유발 약 확인하기
이런 약을 먹는다면 일어날 때 더 조심해요.

자료 : 질병관리청



출처: Gettyimagesbank

김은주 객원기자

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고 양쪽 다리 길이를 미세한 오차 없이 맞추기 위해 의료진은 모든 감각과 지식을 총동원해야만 한다.”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로봇을 활용하는 거다. 로봇은 리허설을 완벽하게 마친 뒤 본 수술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 정밀 CT(컴퓨터 단층촬영)를 통해 환자의 고관절을 3D 영상으로 구현한 다음 가상의 수술을 사전에 시행하는 식이다. 이 단계에서 인공관절을 미리 적용해 다리를 이리저리 움직여 보며 뼈와 기구 간 충돌 여부나 특정 자세에서의 탈구 위험 등을 미리 확인하고 최적의 삽입 각도를 찾아낼 수 있다. 개인 맞춤형 계획에 따라 수술이 진행되면서 정확도와 안전성이 함께 높아진다. 환자들에게 일관된 수술 결과도 제공할 수 있다.”

-수술실 환경에 가져오는 변화도 있다.
“기존에는 수술 시 수많은 도구를 펼쳐 놓고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해 X선 장비를 수시로 수술실에 들여와 쓰곤 했다. 그 결과, 감염 위험이 커지고 수술 시간이 길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에 로봇 수술은 사전에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최소한의 기구만 사용하고 불필요한 활용은 최소화한다.”

하지수 기자

퇴행성 관절염 환자 99% “인공관절 로봇 수술 정확도 높고 안전”

**인공관절 로봇 수술
환자·보호자 400명 대상 설문**

43%는 브랜드 기능·성능 차이 느껴
로봇 수술 경험자 91%는 만족·추천

인구 고령화와 함께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연골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0대 이후부터 환자가 급격히 늘어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퇴행성 관절염의 요양 급여비용 추이는 2020년 1조6500억원에서 2024년 2조2300억원으로 약 35% 증가했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엔 관절 가동 범위가 줄고 통증이 심해져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환자가 많다. 이때 많이 고려하는 치료가 인공관절 수술이다. 요즘엔 이 분야에 로봇 수술이 도입돼 주요한 치료 선택지의 하나로 부상했다.

리서치·데이터 전문기업 마크로밀 엠브레인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 퇴행성 관절염 환자·보호자

400명을 대상으로 ‘인공관절 로봇 수술’을 주제로 대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인공관절 로봇 수술의 장점을 묻는 항목(중복응답)에 50.3%가 ‘수술 오차 범위 최소화’를, 48.3%가 ‘안전장치를 통한 정확하고 안전한 뼈 절삭’을 꼽았다.

또 ‘빠른 회복’(48%), ‘수술 전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환자 개개인에 맞춘 수술 계획’(47.5%)이 뒤를 이었다. ‘환자의 다리 정렬에 따른 맞춤 수술 구현’이란 응답도 34.8%를 차지했다. 인공관절 로봇 수술은 수술 전 촬영한 CT 데이터를 기반으로 3D 입체 영상에서 관절 상태를 확인하고 개인별 다리 각도와 균형을 분석한다. 그런 다음 뼈의 절삭 범위와 인공관절 삽입 위치를 사전에 계획함으로써 수술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인공관절 로봇 수술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소로는 ‘수술의 정확성과 성공률’이 66.3%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47.5%는 ‘의료진의 경험과 신뢰도’, 45.5%는 ‘회복 속도와 재

활 용이성’을 골랐다. 이 밖에 ‘수술 비용’(40.5%), ‘인공관절 수명 등 장기적 효과’(37.5%), ‘인공관절 로봇 수술 브랜드의 인지도와 신뢰도’(23.5%) 순이었다.

특히 응답자의 43%는 ‘인공관절 로봇 수술 브랜드 간 기능·성능에 차이가 있다’고 인식했다. 이 중 50대 이하 49.6%, 60대 44.3%, 70대 이상 36.1%로 연령이 낮을수록 브랜드 간 차이를 크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응답자의 92.3%는 로봇 수술을 선택할 때 ‘브랜드·제품의 특징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하 94.7%, 60대 93.7%, 70대 이상 88.9%였다. 브랜드 선택 시 특징점을 고려한다는 이들은 선호하는 세부 요소로 ‘수술 정확도 향상’(58%), ‘빠른 회복과 적은 통증’(42.8%),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40.3%)을 꼽았다.

한편 인공관절 로봇 수술 경험자의 90.6%는 ‘수술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김선영 기자

인공관절 로봇 수술 설문조사 결과 (단위 : %, 중복응답)

어떤 점이 좋은가

수술 오차 범위 최소화	50.3
안전장치 통한 정확하고 안전한 뼈 절삭	48.3
빠른 회복	48
수술 전 3D CT 통한 맞춤 수술 계획	47.5
다리 정렬 맞춤 수술 구현	34.8

수술 선택 시 중요한 고려 요소는 뭔가

수술의 정확성과 성공률	66.3
의료진의 경험과 신뢰도	47.5
회복 속도와 재활 용이성	45.5
수술 비용	40.5
인공관절 수명 등 장기적 효과	37.5

*설문조사 기간은 10월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자료 : 마크로밀 엠브레인

출처: Gettyimagesbank

최지호

가정의학 / 노인의학 클리닉

24/7 전화 진료

전문 노인의학 / 일반 진료

- 처방전 관리(당뇨, 고혈압, 고지혈, 갑상선, 위장약, 기억력/치매, Pain Patches(Lidoderm, ZTlido, Flector, Pennsaid)
- 통증치료(체외충격파 / 치료 초음파)
- 치매(기억력) / 우울증 검사
- 상·하 기도 감염, 요로 감염
- Xray / CT / MRI 리퍼럴
- 종합 피 / 소변 검사
- 심전도 검사

건강백세+건강 지킴이 주사 (수액/정맥주사)

- 기력회복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 머리카락 & 피부 건강
- 뇌 건강(기억력, 집중력)
- 관절통 완화 & 염증 개선
- 심혈관
- 신경 안정

한방 치료 / 치료 마사지 (MD만 가능)

- 한방 치료 Ace Acupuncture 571-438-4644
- 치료 마사지 Healing Hands Massage 703-314-9461

* 메디케어 파트 B 받습니다.

*남자 간호보조원 (MA) 채용합니다.

VA

4216 Evergreen Lane, ste 125
Annandale, VA 22003-3256

진료시간

월 ~ 수, 9am ~ 3pm
토, 9am ~ n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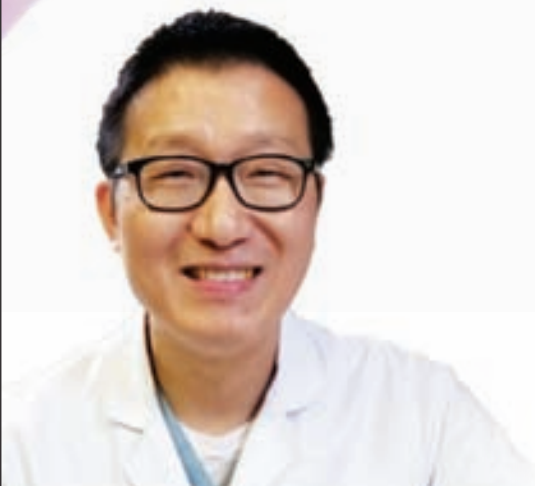
MD

16051 Comprint Circle,
Gaithersburg, MD 20877-1320

진료시간

목 ~ 금, 9am ~ 3pm

*메릴랜드에서만 치료 마사지와 한방 치료가 가능합니다.



최지호, MD
가정의학/노인의학 전문의

-1995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06년 플로리다 대학교 가정의학 전문의 수료
-2013년 조지워싱턴 대학교 노인학 펠로우 수료

전화/문자/사진/비디오

240-232-5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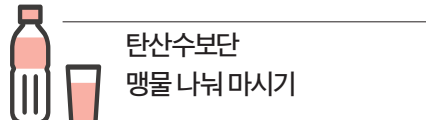
Fax: 703-662-6165

frontdesk@immediatehousecalls.com
immediatehousecalls.com

소스는 부먹보다 짭먹, 재료 큼지막하게 썰어야 과식 안해

새해가 되면 누구나 건강 목표를 세웁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꾸준히 운동하며 술과 담배를 줄이겠다는 다짐이죠. 하지만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결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헬스&은 새해 첫 지면을 통해 주제별 현실적인 건강관리법을 제안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일상에 적용해 보세요.

건강관리의 출발점은 식습관이다. 몸은 매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고 마시는지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보약이나 영양제를 더하기 전 평상시 마주하는 식탁부터 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무심코 지나쳤던 기본 원칙들이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열쇠일 수 있다. 큰 결심 없이도 실천 가능한 식탁 위 선택들을 짚어봤다.



탄산수보단
맹물 나눠 마시기

식단 관리에서 가장 기본이지만 자주 잊히는 요소가 바로 수분 섭취다. 일상에서 손쉽게 수분을 보충하는 방법은 물 마시기. 몸무게(kg)에 0.03을 곱한 값이 하루에 필요한 물 섭취량이다. 권장량은 한번에 채우기보다 범위 내에서 조금씩 자주 나눠 마시는 게 바람직하다. 몸속에 들어온 물은 약 2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한번에 너무 많은 양을 마시면 콩팥에 부담을 주고 혈중나트륨 농도를 급격히 떨어뜨려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마시는 양과 방식만큼이나 어떤 물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하다. 청량감 때문에 탄산수를 즐겨 찾는 이들도 있으나 대부분의 탄산수는 pH 5.5 이하의 산성을 띠어 자주 마시면 치아 보호막인 에나멜(법랑질)을 손상할 위험이 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는다면 복부 팽만감 같은 증상도 악화할 수 있다. 따라서 수분은 되도록 첨가물 없는 순수한 물로 채워주는 게 좋다.

마시는 물의 온도는 상황에 따라 조절한다. 흔히 찬물은 몸에 해롭다는 인식이 강하나 꼭 그렇지만도 않다. 평소에는 갑작스러운 찬물 섭취가 위장 온도를 낮춰 기관에 피로를 일으킬 수 있으나 운동 직후에는 상응한 체온을 식히고 빠르게 수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반면, 감기에 걸렸거나 환절기 일 때는 따뜻한 물이 위장의 부담을 줄이고 컨디션 회복에 효과적이다.

새해 식습관 바로잡기

물은 조금씩 자주 마셔야 효과적
야채 먼저 먹는 '거꾸로 식사법' 도움
아침엔 단맛 강한 시리얼은 피해야



출처: Gettyimages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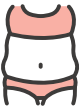


활력 높이려면
아침 식사는 가려서

아침 식사는 수면 중 줄어든 포도당을 보충해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공복 시간을 줄여 폭식과 식후 혈당 급등을 예방한다. 또 생체리듬과 에너지 대사를 조절해 비만 등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 그렇다고 모든 음식이 아침 식사로 적합한 건 아니다. 오히려 피로감을 키우고 집중력 저하를 초래하는 메뉴도 있다. 설탕 함량이 높은 시리얼과 도넛 등이 그렇다. 단맛이 강한 시리얼의 경우 혈당을 급격히 올린 뒤 빠르게 떨어뜨려 피로감을 유발하고, 기름에 튀긴 도넛은 높은 칼로리와 포화지방 탓에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보다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고 에너지를 서서히 공급하는 통밀 토스트, 근육 유지와 에너지 보충에 효과적인

인 그릭 요거트, 오메가3와 불포화지방을 함유해 뇌 활동을 촉진하는 견과류 등을 추천한다.



과식 잦을 땐
재료 크기 조절

배가 차도 눈앞에 음식이 남아 있으면 젓가락질을 멈추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과식하는 습관은 체중 증가와 비만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다. 소화기에도 무리를 줘 기능 이상을 야기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섭취량을 제한할 수 있는 작은 그릇이나 식판 형태의 식기를 이용하는 게 좋다. 식재료를 큼직하게 썰어 조리하는 방법도 있다. 시각적으로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고, 재료에 스며드는 기름과 염분의 양도 자연스럽게 줄어준다.

식사 시 TV나 스마트폰 같은 '밥 친구'는 잠시만 멀리하자. 밥을 먹으면서

동시에 다른 일을 하면 포만감을 덜 느껴 과식할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거꾸로 식사법'도 도움이 된다. 채소→단백질→탄수화물 순서로 먹는 방법이다. 밥·면·빵부터 섭취하는 일반적인 식사법과 달리 야채와 생선·육류를 먼저 먹어 이런 이름이 붙었다. 거꾸로 식사법은 빠른 포만감을 유도해 과식을 방지해 준다.



같은 재료라도
열량 낮은 메뉴로

직장인에게 외식은 피할 수 없는 일상이다. 문제는 외식 메뉴의 열량, 나트륨 섭취량 등이 대개 일반 가정식보다 높다는 점이다. 같은 식재료라도 메뉴 선택에 조금만 신경 쓰면 몸에 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치킨은 전기구이 통닭으로, 볶음밥은 비빔밥으로, 튀김 우동

은 메밀국수 등으로 바꾸는 식이다.

외식 종류별로 나눠 보면 한식의 경우 가급적 염분과 칼로리가 높은 단일 요리보다 밥, 국, 각종 반찬으로 구성된 백반을 택하는 게 낫다. 채소 쌈이나 생선구이, 두부, 찜 요리 등도 추천 메뉴로 꼽힌다. 중식당에 간다면 대표 메뉴인 짜장면과 짬뽕 중 짬뽕이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낮다. 대신 짬뽕에 든 채소부터 먹고 면은 나중에, 국물은 최소한으로 섭취한다. 여럿이 함께 식사할 때도 탕수육 같은 튀김 요리보다는 해파리냉채처럼 열량과 지방, 나트륨 함량이 낮은 메뉴를 주문하길 권한다. 탕수육을 시켰다면 소스를 부어 한꺼번에 버무리기보다 개별로 찍어 먹도록 한다. 샐러드 드레싱도 마찬가지로

하지수 기자

도움말=김윤미 대동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 과장, 손다혜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영양팀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아침! 좋은신문! 중앙일보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진료 과목

- 모든 통증치료 (좌골 신경통, 두통, 목디스크통증, 요통, 오십견, 관절통, 손목통증, 무릎통증 등)
-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 비만
- 불면증, 어지럼증
- 만성피로
- 불임, 생리통, 갱년기 증상
- 소화장애, 순환장애
- 교통사고 후유증



원장 채여혜

- 북경중의약대학 중의과 졸업
- 중국국대사 연정화 교수님께 사사
- 상해중의약대학 중의약박사
- 임상 26년 경험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http://chaorientalmedicine.clinic/

진료 시간

- 평일: 9am-5pm ● 토요일: 9am-1pm
- 야간진료: 예약환자에 한함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소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틀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최소인출금 첫 해만 다음해 4월까지 연장

은퇴자 혼한 실수 4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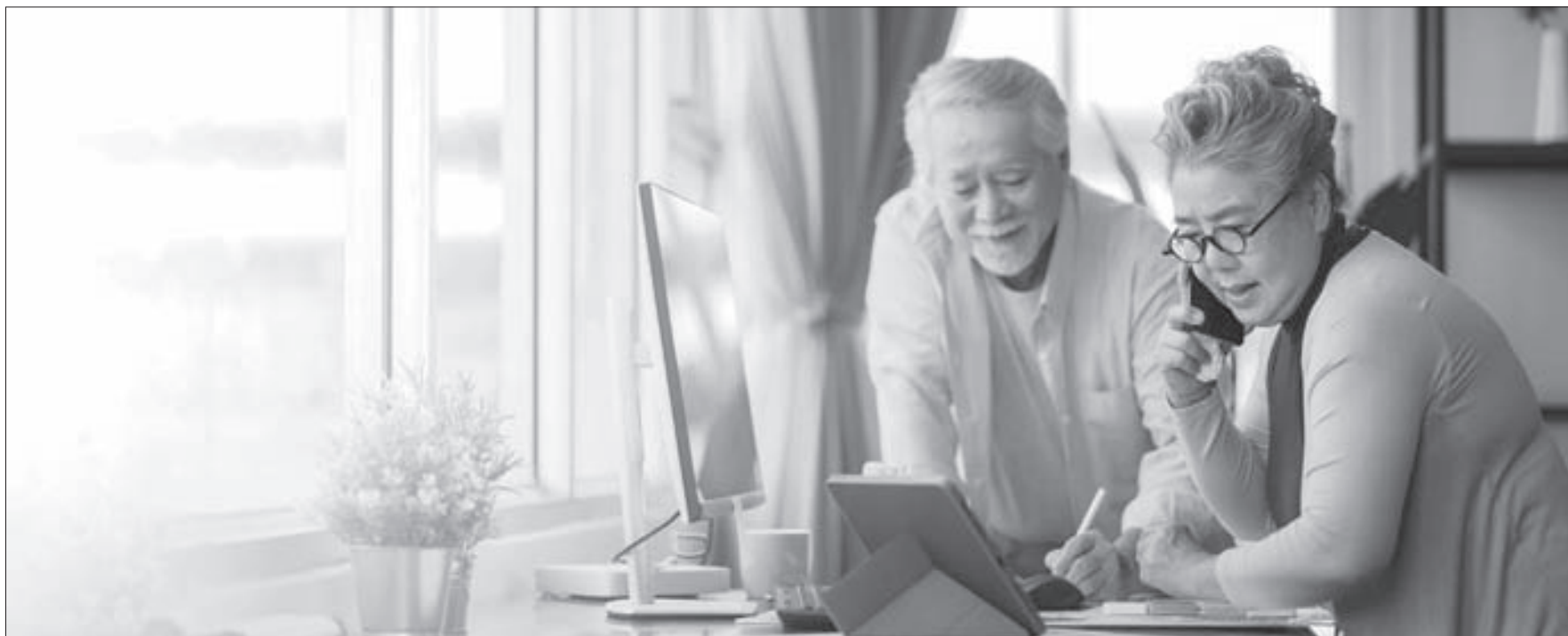
두 번째 인출부터는
12월 31일까지 해야
소득 총액 늘어나면서
소셜연금 과세할 수도

전통 IRA나 401(k)로 은퇴 자금을 준비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세전 소득으로 불입한다는 것이다. 덕분에 적지 않은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단점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일정 나이가 되면 최소인출금(RMD)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현재 기준으로 1950년 이전 출생자는 72세, 1951~1959년 출생자는 73세, 1960년 이후 출생자는 75세에 첫 RMD를 찾아야 한다.

몇 살부터 RMD를 찾아야 하는지 알고 있는 이들도 정확한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RMD는 규정이 명확해 조금만 실수해도 불필요한 세금 부담과 재정적 손실을 본다. 올해 RMD를 찾아야 한다면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 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흔히 나오는 실수는 인출 기한을 넘기는 것이다. 첫 번째 RMD는 73세가 된 다음 해 4월 1일까지 인출하면 된다. 이 규정 때문에 RMD는 언제나 다음 해 4월까지 찾으면 된다는 오해를 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 규정은 처음 RMD를 찾을 때만 해당한다. 두 번째부터는



개인연금계좌에서 최소인출금을 찾을 때는 소득 증가에 따라 세금이 늘어나는 데 대비해야 한다.

매년 12월 31일까지 인출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인출하지 않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하나 더 주의할 점이 있다. 첫 RMD를 다음 해 4월로 미룰 경우, 다음 해에는 의무 인출을 두 번 해야 한다. 올해 73세가 되고 첫 RMD를 내년 4월로 미루면 2027년에 RMD를 두 차례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하나는 미룬 올해 의무 인출, 또 하나는 내년 의무 인출이다. 이 경우 내년에 인출액이 많아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첫 RMD라도 그 해에 찾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실수는 아직 일을 하니 RMD를 미룰 수 있다는 생각이다. 물론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에 대해서는 RMD를 미룰 수 있다. 하지만 회사 지분을 5% 넘게 보유하고 있다면 이것도 미루면 안 된다.

또 이 예외는 개인이 보유한 IRA나 이전 직장의 401(k)은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의 401(k)에만 해당하는 제한적인 규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세 번째 실수는 세금을 생각하지 않고 인출하는 것이다. RMD는 인출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

는 안 된다. 불입할 때 세금을 면제할 것이 아니라 미뤄준 것이기 때문에 찾을 때 내야 한다. 또 RMD를 찾으려면 소득이 늘어나 메디케어 보험료에 소득과 연동한 부담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소득이 늘어 소셜연금에도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RMD는 인출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흔히 사용하는 대안으로는 적격 자선기부(QCD)가 있다. RMD 인출금액을 직접 자선단체에 기부해 과세소득 증가를 줄이는 방식이다.

네 번째 실수는 인출한 돈을 무작정 써버리는 것이다. RMD는 인출해야 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출한 RMD를 세금 혜택이 있는 은퇴 계좌에 다시 넣을 수는 없지만 일반 과세 계좌에 투자하거나 양도성 예금증서(CD) 등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IRA나 401(k)에서 돈을 꺼냈다고 의미 없는 소비를 할 필요는 없다. 계속해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미리 투자 방법을 정하지 않고 우선 찾기부터 하면 돈을 쓸 가능성이 높아진다.

안유희 객원기자

은퇴자 6.7% 최소인출금 안 찾아

최소인출금(RMD)을 제때 인출하지 않아 벌금을 내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뱅크드는 최근 2024년 한 해에만 IRA 고객 가운데 58만5000명이 RMD를 인출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뱅크드는 보고서에서 “2024년 기준 RMD 대상 고객의 6.7%가 한 차례도 인출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의 평균 RMD 금액은 1만1600달러로 잠재적 벌금은 10% 적용 시 1160달러, 25% 적용 시 2900달러에 이른다.

보고서는 또 “전체 고객 중 24%는 RMD 기준에 못 미치는 금액만 인출했고 69%는 RMD 이상을 인출했다”고 덧붙였다.

RMD를 놓칠 가능성은 계좌 잔액

이 적을수록 커졌다. 잔액이 5000달러 미만인 투자자는 인출 시기를 놓치는 이들이 56.8%나 됐다.

고액 자산가도 예외는 아니어서 저축액이 25만~50만 달러인 투자자 가운데서도 약 5%가 RMD를 이행하지 않았다.

자산 규모가 클수록 벌금 액수는 급격히 늘어났다. 계좌 잔액이 100만 달러 이상인 투자자의 평균 벌금은 8792달러에 달했다.

뱅크드는 한 번 RMD 인출 시기를 놓친 투자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 해 RMD를 이행하지 않은 고객의 55%가 이듬해 또 인출 시기를 놓쳤다. 뱅크드의 앤디 리드 행동경제학 연구책임자는 보고서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인출

시기 설정을 해놓고도 있는 것보다는 그냥 잊고 또 있는 패턴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RMD 미이행을 줄이기 위해 뱅크드는 몇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우선 은퇴 계좌 제공 기관이 해당 서비스를 지원한다면 인출을 자동화하는 방법이 있다. 또 은퇴 계좌를 여러 개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하나로 통합하면 관리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뱅크드의 애런 굿맨 선임 투자전략가는 보고서에서 “투자자들은 직장 생활 동안 평균적으로 아홉 번 이상 이직을 경험하기 때문에 모든 은퇴 계좌를 일일이 관리하기 쉽지 않다”며 “IRA를 통합하고 RMD를 자동 인출로 설정하면 잊어버리는 변수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억력 떨어졌다’ 느낄 때 골든타임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 치매는 환자 삶의 질을 훼손하고 가족에게도 돌봄 부담에 따른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안긴다. 이에 따라 치매는 더는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된다. 치매는 증상이 본격화하기 전부터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예방·관리해 질병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최근엔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행을 늦추는 신약인 레캠비(Leqembi, 성분명 레카네맵)가 출시되고, 예방·관리 단계에서 은행잎추출물 성분의 약이 주목받으면서 치료 선택지가 다양해졌다.

치매는 후천적으로 기억력, 언어 능력, 판단력 등 여러 인지 기능이 감소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 상태를 말한다. 가장 흔한 원인 질환은 알츠하이머병이다. 알츠하이머병은 베타아밀로

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에 비정상적으로 쌓이면서 문제를 일으킨다. 오랜 기간에 걸쳐 두뇌의 신경세포가 쇠퇴하고 뇌 조직이 소실되다가 결국 뇌가 위축되면서 증상이 발생한다.

뇌혈관 혈액량 늘려 뇌 신경세포 보호 치매는 중증으로 진행하면 완치가 어렵다. 다행히 대부분은 급작스럽게 찾아오지 않는다. 뇌 기능에 영향을 주는 신경세포가 서서히 쇠퇴하면서 경미한 인지 장애가 먼저 나타난다. 바로 치매 전 단계로 통하는 ‘경도인지장애’다. 경도인지장애는 동일 연령대 대비 인지 기능이 뚜렷하게 저하돼 있으나 일상생활의 독립성은 유지되는 상태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치매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는 2025년 298만 명에서 2033년 408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5457 Twin Knolls Rd., Ste. 300, Columbia, MD 21045
mkim@prosperlawpllc.com



Extremity Specialist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타운에서 3분, 실버스프링 롯데 윌튼 센터(Hi-mart)에서 10분 거리

센터빌/첼렌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롯데/인아몰(Hi-mart)과 첼빌 롯데에서 각각 5분거리

흑백요리사2 백미는 ‘어른의 맛’

승패보다 ‘사람’ 빛났던 시즌2
후덕죽·박효남·선재스님 등
40~50년 신화적 경력 셰프들
후배 지시에 허드렛일도 열심히

최종 우승자는 재도전자 ‘최강록’
“난 특출난 음식 하는 사람 아니다”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 시즌2’가 13일 백수저 재도전자 최강록 셰프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 흑수저 이하성(요리괴물) 셰프와 ‘나를 위한 요리’라는 주제로 대결을 벌인 끝에 상금 3억원을 손에 쥔 최 셰프는 “저는 특출난 음식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국의 요리사들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며 “여기서 들은 말씀 새겨서 더 열심히 요리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넷플릭스 투둠에 따르면, 시즌2는 최근 주간 집계(12월29일~1월4일)에서 비영어 TV쇼 부문에서 시청수 글로벌 3위를 기록했다. 지난달 16일 첫 공개 이후 2주 연속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3주 연속 톱10 상위권이다. 국내에선 3주 연속 1위를 달렸다. 2024년 시즌1이 비영어 TV쇼 부문에서 3주 연속 글로벌 1위를 차지하며 불러 일으킨 신드롬을 너끈하게 이어받았다.

시즌2가 차별화된 몰입도를 제공한 데는 일차적으로 상향 평준화된 흑수저의 대거 출전이 손에 꼽힌다.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되는 1대1 흑백 대결에서 백수저 정호영 셰프와 흑수저 ‘서울



1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시즌2 최종 우승자 최강록 셰프. 2 박효남 셰프가 흑수저 프랜치파파와 1대1 대결을 마치고 포옹하고 있다. 3 후덕죽 셰프가 팀 대결 중 임성근 셰프의 주문을 받아 참외를 무치고 있다.



[사진 넷플릭스]

엄마’(우정옥 셰프)가 맞붙은 아귀 요리는 두 심사위원의 재투표 결과조차 무승부일 정도로 박빙이었다.
미쉐린 2스타인 스승 이준 셰프를 꺾은 ‘빠딱한 천재’의 기발한 전략과 과감한 도전도 반전을 선사했다. “시즌1의 성공 요인인 ‘요리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을 심화시키되, 참가자들의 창의성과 기술에 집중해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주려 했다”는 제작진의 의도가 통했다.
무엇보다 후반부로 갈수록 대결의 성패가 무의미한 경지에 이른 ‘어른’들

이 눈길을 끌었다. 57년 차 중식 대가 후덕죽 셰프, 47년 차 프렌치 대가 박효남, 1호 사찰음식 명장 선재스님, 한식 대첩3 우승자 임성근 셰프 등은 업계에서 이미 신화적인 경력을 쌓았지만 겸손한 자세로 경연에 임하면서 즐기는 모습을 잃지 않았다. 일반적인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상대를 자극하는 ‘트래쉬 토크’가 난무하지만 시즌2의 박효남 셰프는 1대1 흑백 대결 상대 ‘프랜치파파’(이동준 셰프)에게 “나를 얹고 훨훨 날았으면 좋겠다”고 덕담했다. 팀 대결 때 최고령 후덕죽 셰프가 후배들의

지시를 따라 묵묵히 참외를 무치는 모습도 “‘쿨모텔이 되는 어른’”으로 회자되며 ‘숯폼’ 영상으로 수백만 조회수를 낳았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시청자는 승패보다 과정을 통해 진짜 중요한 가치를 깨쳤다”고 짚었다.
앞서 시즌1에서도 흑수저 출연자로 우승을 거머쥔 나폴리 맛피아(권성준 셰프)보다 ‘비빔인간’으로서 정체성 고민을 치열한 요리로 승화시킨 백수저 에드워드 리 셰프가 더 큰 지지를 받았다. 김교석 평론가는 “백수저의 경력과 실력, 스토리에 매료된 시청자들이 단

순히 ‘언더독’이란 이유만으로 흑수저를 일방 응원하지 않는 경향이 시즌2에서 한층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같은 흐름이 서바이벌 특유의 경쟁 구도를 약화시키고 일부 흑수저의 태도 논란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정동현 푸드칼럼니스트는 “도전자는 도전자답게 기성세대를 넘는 패기와 기세가 필요한데 태도 논란이 벌어진 것은 한국적 특성”이라며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현실과 동일시하며 인성을 따지는 게 대중문화 다양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진 않다”고 말했다.
시즌2는 심사위원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일부 제품 원산지 허위 표기 등의 논란에 휩싸이며 우려 속에 출발했다. 공개 방영분에선 백 대표보다 안정재 심사위원(‘모수’ 오너셰프)의 정밀하고 신랄한 평가를 한층 부각시켰으로써 시청자의 거부감을 최소화했다.
결과적으로 요리의 본질과 인물들의 개성이 한층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김교석 평론가는 “시즌1은 흑과 백의 대결 구도에서 나오는 긴장감과 재미로 요리 서바이벌에 충실했다면, 시즌2는 사람의 매력과 요리 자체를 보여주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출전 셰프들의 식당을 둘러싸고 ‘예약 오픈런’ 광풍이 몰아쳤던 시즌1에 이어 시즌2도 요식업계를 들썩이게 하고 있다. 카카오톡도 ‘흑백요리사2 백수저 식당 모임’과 ‘흑백요리사2 흑수저 식당 모임’을 테마로 구성된 운영 중이다.
정은혜 기자

“저작권 훼손” 한국방송협회 등 16곳, 정부 ‘AI 액션플랜’ 반발

한국방송협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작가회의 등 문화 콘텐츠 창작 단체 16곳이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이하 행동계획안)에 대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을 13일 공동으로 발표했다. AI 기업이 창작물을 선사용 후 보상하면 된다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

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행동계획안 중 ‘AI액션플랜’ 32번의 문제를 지적했다. “액션플랜 32번 ‘AI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 및 유통 생태계 활성화’는 AI기업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법적 불확실성 없이’, ‘사실상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장벽을 제거하겠다는 방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사유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국가인공지능전략위는 ‘AI 액션플랜’을 통해 “현행 저작권법상 저



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면책 규정이 존재하나,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해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되는 저작물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AI 모델

개발 및 학습에 한해서는 웹상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법상 예외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정책 권고사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올해 2분기까지 AI기본법 개정안 또는 AI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2일 AI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에 전달한 바 있다.

13일 성명을 발표한 16개 단체는 네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첫째,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 이용’은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장치일 뿐, 사기업의 영리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포괄적·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진정한 글로벌 추세는 정부가 ‘저작물의 AI 학습에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기업이 협상을 통해 정당한 이용허락을 얻도록 유도하는 것”인데도, 일부 국가의 비영리 목적 면책 사례를 들어 왜곡된 ‘글로벌 추세’로 창작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했다.
최혜리 기자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는

www.naturadent.net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 잇몸치료 · 치아교정
Implant · Periodontal Surgery ·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 치아성형 · 신경치료
Emergency · Veneer Lumineers ·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곡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 VA, MD, DC 면허 소지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서울 미곡 한방병원

29 White Oak 도서관
EXIT 28A
650 495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앤서니 김이 LIV 골프에 복귀한다. 11일 프로모션에서 티샷하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인생이 드라마’ 앤서니 김, 또 한편의 히트작

12년 은둔 ‘풍운아’ 골프 천재
복귀 1년 만에 LIV 출전권 따
“곧 우승 트로피 다시 들을 것”

인생 자체가 한 편의 드라마인 ‘풍운아’ 앤서니 김(40)이 2026년 LIV 골프 무대 복귀에 성공했다. 캐나다 교포 리처드 리(35·한국명 이태훈)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수석 합격하며 출전권을 거머쥐었다.

지난 시즌 LIV 골프에서 성적 부진으로 출전권을 잃었던 앤서니 김은 11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리칸도의 블랙 다이아몬드 랜치에서 막을 내린 LIV 골프 프로모션(승격) 대회에서 최종 함께 5언더파를 기록, 3위에 올랐

다. 이로써 상위 3명에게만 주어지는 2026년 와일드카드 출전권을 극적으로 획득했다.

앤서니 김은 한때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를 위협할 유일한 대항마로 꼽혔던 천재였다. 2008년 23세의 나이로 PGA 투어 시즌 2승을 거두고 라이더 컵에서 유럽의 강호들을 압도하며 세계적인 스타로 부상했다. 특히 2009년 마스터스 2라운드에서는 역대 최다인 11개의 버디를 몰아치며 전 세계 골프 팬들을 열광시킨 바 있다.

영광은 짧고 공백은 길었다. 2012년 5월 PGA 투어 웰스파고 챔피언십 1라운드를 마친 뒤, 앤서니 김은 캐디백을 차 트렁크에 집어 던진 채 필드를 떠났

다. 이후 12년간 철저히 은둔했던 그는 2024년 LIV 골프를 통해 전격 복귀하며 다시 세상을 놀라게 했다. 복귀 후 그는 과거 마약 중독과 여러 차례의 수술 등 개인적인 시련으로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음을 고백하기도 했다.

이번 승격전 과정 역시 드라마틱했다. 대회 첫날 마지막 홀에서 버디를 낚으며 가까스로 컷 탈락 위기를 넘긴 뒤, 최종일 36홀 승부에서 턱걸이로 3위에 이름을 올리며 복귀를 확정 지었다. 앤서니 김은 “누군가 틀렸음을 증명하기보다, 내 선택이 맞았음을 증명하러 왔다”며 “곧 우승 트로피를 다시 들어 올리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리처드 리는 이번 대회에서 최

종 함께 11언더파로 2위 비요른 헬그렌을 5타 차로 따돌리고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의 KPGA 투어에서도 활약한 그는 아버지가 최경주의 룸메이트였던 인연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함께 출전했던 왕정훈은 최종 함께 3언더파 공동 4위로 아쉽게 1타 차로 LIV행 티켓을 놓쳤다. 다만 상위 10위 이내 입상자에게 주어지는 2026년 아시안투어 ‘인터내셔널 시리즈’ 전 경기 출전권을 확보했다. 2025 시즌 LIV 골프에서 뛰었던 장유빈은 손목 부상 여파로 이번 승격전에 출전하지 않고 국내 무대 복귀를 선택했다.

성호준 골프전문기자

LIV에 코리안 골프팀 생긴다

아이언 헤즈 팀명 변경
케빈 나·대니 리 등 구성

LIV 골프에서 활약하던 아이언 헤즈(Iron Heads) 골프클럽이 팀 이름을 코리안 골프 클럽으로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LIV 골프의 한국 미디어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스포츠닷컴은 “이번 팀명 변경은 글로벌 골프 문화에서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영향력과 현대 골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시즌 아이언 헤즈 골프클럽은



한국 국적 최초의 LIV 골프 선수였던 장유빈과 케빈 나(미국), 대니 리(뉴질랜드) 등이 팀을 구성했다.

2026시즌에는 장유빈이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복귀를 선언했기 때

문에 선수단 구성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코리안 골프 클럽은 새 시즌 선수 구성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시즌 아이언 헤즈 골프클럽에

는 케빈 나, 대니 리, 장유빈 외에 가즈마 지니치로(일본)가 팀을 구성했다.

코리안 골프 클럽은 팀 상징도 새롭게 발표했다. 코리안 골프 클럽은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서 강인함, 보호, 회복력을 상징하는 존재로 존경받아온 백호를 중심으로 팀의 새로운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원형 엠블럼에는 무궁화를 주요 디자인 요소로 활용했다.

코리안 골프 클럽 마틴 김 단장은 “지난해 LIV 골프 코리아 대회에 현장을 찾은 수천 명의 젊은 팬들이 보여준 에너지는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코리안 골프 클럽은 한국과 전 세계의 한국인을 잇는 새로운 골프 문화를 대표하는 브랜드”라고 말했다.

에드워즈 결승골 미네소타 역전승

샌안토니오 1점차 따돌려

프로농구(NBA) 미네소타 팀버울브스가 ‘에이스’ 앤서니 에드워즈의 결승 득점에 힘입어 샌안토니오에 짜릿한 1점 차 역전승을 거뒀다.

미네소타는 11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타깃 센터에서 열린 2025-2026 NBA 정규리그 홈 경기에서 샌안토니오를 104-103으로 따돌렸다.

최근 6경기에서 5승 1패의 상승세를 탄 미네소타는 26승 14패를 쌓아 서부 콘퍼런스 4위를 달렸다.

이날 패배로 3연승이 불발된 샌안토니오는 서부 콘퍼런스 2위를 유지했으나 미네소타에 1.5경기 차로 쫓겼다.

에드워즈는 결승 득점을 포함해 팀 내 최다 23점을 넣어 공격을 이끌었다.

샌안토니오의 ‘신인류’ 빅토르 웹 반아마는 양 팀 최다 29점을 넣고 7리바운드 3스틸을 결승에 분투했으나 팀 패배로 아쉬움을 남겼다.

애틀랜타 호크스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124-111로 이겨 3연승을 거뒀다.



중양일보
구독 문의
703.281.9660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 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 / 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AIR CLEANER AND HUMIDIFIER
INDOOR AIR QUALITY PROBLEMS
FURNACES & AIR HANDLERS
NEW FURNACE INSTALLATION
FURNACE REPAIR SERVICE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AC INSTALLATION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조?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7023 Little River Tnpk., #409, Annandale, VA 22003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e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e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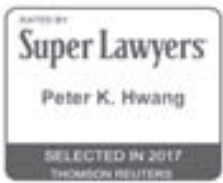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교통사고

Sung Hwang&Kim | LLP
합동법률사무소



www.shkfirm.com
Toll Free: 888.772.3001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폴 김 변호사
PAUL W. KIM, JD, MPH.



대니얼 페이 변호사
DANIEL W. PEI, ESQ.

Columbia, MD
Annandale, VA

T. 410.772.2324
T. 703.436.1444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1월

구인

광고

함께 성장할 회사
임원(Director)을 찾습니다.

미국 FDA에서 정식으로 판매 허가를 받은 제품과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미국 전역에 사업을 런칭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회사 임원(Director)으로 참여하여 회사의 성장과 배내뺏을 함께 나눌 비전과 열정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거나, 문자로 연락 주시면 편리한 시간에 미팅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을 환영합니다

- 미래를 준비하며 안정적이면서도 성장 잠재력이 큰 일을 찾는 분
- 미국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전환점을 만들고자 하는 분
- 역량에 따라 무한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기회를 원하시는 분
-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향, 성실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한 분
-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찾고 계신 분
- 나이, 성별, 이중언어 여부 무관
-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 가능자는 추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 본인의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애난데일, VA (P & A USA Inc)

mydexa21@gmail.com / 571-668-0805 (문자요망)

바른 기사만 담겠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파리 바게뜨 베데스타
Paris Baguette Bethesda

경험있는 제빵사,
케이크 데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구인

Home Improvement
에서 함께 일하실
윈도우·도어
경력자 구함
합법 신분자

703.944.8433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대우 보장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703-225-5500
hr@worldbankcard.net

성공 비즈니스...
시작이 중요합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571-239-6054

구인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마케팅 세일즈 직원 모집

- 영어/한국어 가능
- 출장 업무 필수
- 운전 경력 풍부하신 분
-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 분
-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301.468.8949

www.onnaturalusa.com

급매

Korean BBQ
& Hot Pot
게이더스버그, MD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f 규모
저렴한 렌트
매매가격 Only
\$280,000

최근에 새로 지어서
리모델링 비용절감

240-988-6868

매매

확실한 수익보장 델리

DC SW 매매가 32만불 (cash only)

- 연간 수익 15만불이상 (주매상 만불)
- 수월한 운영 (키오스크 시스템)
- 저렴한 렌트비 (\$2700/월)
- 오랜 경험의 믿음만한 직원 2명
- 주 5일 (6am ~ 3pm)
- 공실위험 없는 건물

703.300.7207 (텍스트)

관심있는 분만 연락주세요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 · 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 Chantilly, VA 지역
- ◎ 이중언어 필수
- ◎ 근무시간 조정 가능 (플타임)
-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6년 1월 14일 수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메릴랜드 몽고메리물 시계 및 주얼리 샵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학생 환영
301-365-7794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직원모집
마케팅 세일즈 분야, 영어/한국어 가능
출장 업무 필수, 운전 경력 풍부하신분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분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문의: 301-468- 8949

콜롬비아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 기사(옴니 거주 환영)
주방 보조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
험자 가능
▶703-598-3316, 703-862-5395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
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니
쉬) 가능한 유, 무경험자 구합니다.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셔
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소는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
& 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
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
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443-828-7777

세탁/이미용/기타

95년형 벤츠 300, 18만 마일, \$3,000
703-966-9597

강아지 분양합니다. 순종 풍산개, 1월중순
703-868-6114

2018년 포드 트랜짓 250, 인슐레이션된
쿨러 박, 차고지 MD
201-681-4470

OK 택시 엘리컷시티, 락빌, 애난데일
장거리 열가로 어디든 가능,
병원/공항/카지노, 24시간 가능
571-332-3987

글렌버니 리커스토어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구합니다. 유경험자, 파트타임
443-262-1813

DC - CUA 메트로 근처
American Breakfast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6 am - 2 pm) \$18/hr + tips
703-785-8763

여큐라 MDX 2012년 134,000 마일리지
타임 벨트 & 배터리 교체, 그레이 색상,
굿 컨디션 \$6,500
703-909-9377 / 703-560-6424

최고급 등산 장비 팝니다.
아래 번호로 메세지 남기시면 바로 전화 드
리겠습니다.
703-869-5919

PG 카운티 리커스토어 라라리스탁하실분
2-9pm 일하실분 구함 (금,토 포함)
301-336-2500

손 사이딩 올드하우스 메케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홀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윈도
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에 한함
703-944-8433

토요 핸디맨 (전기, 목수, 타일, 배관, 창문,
마루, 페인트)
443-994-3415 (전화 메세지 주세요)

엘리컷시티 헤반 한국 식당에서 홀 서버 하실
분 구합니다.
▶443-420-3096

영어 가능한 델리 매니저 구합니다.
DC SW (월 - 금, 6am - 3pm)
703-300-7207 (문자)

파리바게트 베데스다에서 경험있는 제빵사
나 케익 데코분을 모집합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비숙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날싱홈 나이, 학력, 경력, 성
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useb3.com
문의 이메일: admin@eb3recruit.com
전화: 571-546-8683

싱글/타운방 렌트

메릴랜드 엘리컷 시티에서 15분 거리
큰 싱글 지하전체 렌트, 간이 주방, 큰 방, 큰
거실, 큰 욕실, 주차 가능, 유포 \$1,200
703-231-5572

엘리컷시티 롯데 5분거리, 밝고 깨끗한 싱글
하우스 워크아웃 지하 렌트

방2, 욕실, 취사가 가능
443-630-2322

조용/교통 편리한 워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
로 근처 싱글홈 방하나 렌트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환영
301-655-3248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홈 2층방 렌트
유포, 직장인, 잠만 주무실분 \$700
240-393-3615 (문자요망)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홈 방렌트 합니다.
욕실, 주방,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3-1438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반지하 전체 렌트
방2, 부엌, 욕실, 세탁실, 출입문 별도, 롯데에
서 15분 거리
443-797-7293

실버스프링 루트 200, 95, 495 근처,
싱글홈 방하나 렌트 합니다.
301-962-0728 / 240-997-3168

사업체 매매

DC 백악관 옆 픽업 스토어 매매
저렴한 렌트비, 주5일, 좋은수익, 은퇴예정
443-618-8100

1. 주 5일 Deli/Cafe/Cafe 애난데일 근처
\$60,000/1,400sf/렌트 \$2,900/굿 파킹
2. 주 5일 Deli/Cafe DC NW \$70,000
렌트 \$4,300/매상 증대 최적 장소
3. 대형 식당, 패어팩스 \$270,000
7,000sf/180석/연회전문/굿 파킹
4. DC NW 2층 한식당 \$230,000
리뷰 라이선스/퓨전 한식 적합
5. 명품 간장게장 2nd Location 투자자
모집
▶DJ Lee 703-303-8003

1. 치킨 프랜차이즈 95만불, 주매상 3만
2. 일식집, GMU 근처 20만불
주매상 1만5천, 넉넉한 파킹
▶703-303-8003

1. DC NW 잘꾸며진 한식/분식 식당 19만
2. DC NW 드라이브 크리닝 픽업, 주매상 9천,
주 5일, 대로변 위치
3. 치킨 프랜차이즈 3곳, VA, MD
4. 쿵후티, Bakery 등 리스팅
▶DJ Lee 703-303-8003

베데스타 델리 \$170,000
너무 좋은 자리, 1200 SF, 주매상 \$10,000
렌트 \$5,791
▶703-928-5990

델리샵 (DC) \$150K
DC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703-625-9909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애난데일 홈케어 매니저/지점장 구함
매니저 유경험자 우대, 영어/한국어 이중언
어 우대
문의: 571-389-4415

이력서: hr@yicompany.com

Marketing Specialist: Research
market conditions in local, regional, or
national areas to determine potential
customers. Gather information on
competitors, prices, sales, and methods
of marketing and distribution. Operate
marketing campaigns based on
regional preferences and patronizing
habits.
40 hours/week. Bachelor degree in
Marketing, Management or related field
req'd. Send application to Employer
and Job Location: Blue Bell Inc, dba Pure
in Heart Nail Boutique at 700 O St NW,
Washington, DC 20001.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 직원 모집
매니저/시니어 어카운턴트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문의: 571-389-4415
이력서: hr@yicompany.com

버지니아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합니
다. 이중 언어자 환영
▶703-259-5617

노인 의학 클리닉에서 남자 간호 보조원
(MA) 채용합니다.
▶240-232-5989

패어팩스에 위치한 생명보험, 은퇴연금, 비
즈니스 세금 절감 플랜까지 전문적으로 상담
해 드리는 보험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구합니다. 생명보험 라이선스 소지자
703-939-2737

CarePeople Home Health RN 구함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구합니다.
이력서: k546272@gmail.com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
어 가능자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있으며,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wikim0111@gmail.com

BridgeOne Insurance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험자 가능
VA & MD
▶703-598-3316 / 703-862-5395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
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
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 대우 보장
문의: 703-225-5500
이메일 지원: hr@worldbankcard.net
많은 지원 바랍니다.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실에서 일한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hin.esq@gmail.com

리셉셔니스트 (이중언어 필수)를 모집니다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 조정 가능 (풀타임)
급여: 인터뷰 후 조정 가능
전화문의: 703-622-7737
Email: accounting@lbuniversal.com

하이트론스(Hitrons) 버지니아 센터빌 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 모집
가전제품 및 마사지케어, 매트리스 전문 매
장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급구합니다
▶201-417-5350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
능, 자격증 소지자
- 근무혜택: 건강보험/ 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thco.com
▶571-549-6789

김서규 공인 회계사 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
자나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 경력자 우대
- 오후 근무 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Fairfax 풀 / 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센터빌, 챔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금구, 센터빌/챔틀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최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브래덕 패밀리 치과

진료 과목

• 임플란트 • 충치치료
• 신경치료 • 전체/부분 틀니
• 교정 • 일반치과
• 발치 • 미용치과
• 크라운 • 잇몸치료
• 임플란트 틀니 • 응급환자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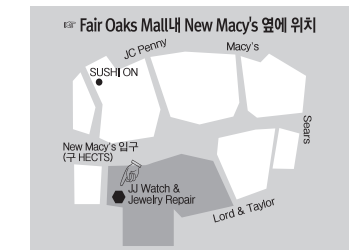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JJ Watch & Jewelry

www.jjwatchusa.com

페어옥스 몰 안에 있는
JJ Watch & Jewelry Shop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하시면서
기술 배우실 분
환영합니다.



703.691.1993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4일 수요일 **중앙일보**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썬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RT-1판티코 근처 편의점에서 신원 확실한
남자 경력자 구함. 문자 연락 요망.
443-618-7141

애난데일 한식당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703-712-7147

애난데일 명품 계장에서 함께 일하실 웨이츄
리스 & 웨이터 구합니다.
703-398-2226

애난데일에 위치한 제과점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캐슈어 풀타임 (유/무 경험자)
제빵사 풀타임 (유경험자)
703-625-8525

DC - CUA 메트로 근처
American Breakfast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6am - 2pm) \$18/hr + tips
703-785-8763

우드브리지 판티코 부대안에 있는 일식당에
서 함께 일하실 웨이츄리스 구합니다.
신분 확실하시고 영어 가능하신분
703-640-7488/443-978-0900

영어 가능한 델리 매니저 구합니다.
DC SW (월 - 금, 6am - 3pm)
703-300-7207 (문자)

Hashi Sushi 일식당에서 서버, 어시스턴트
매니저 구합니다.
영어 필수, 경험자 페이 우대
703-628-9168 (문자)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 -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텀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슈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바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 / 파트타임

▶571-991-4172

이미용

매나사스 파크 바버샵에서 함께 일하실
바버 구함. 일주일에 3, 4일 일하실분
703-473-9771

세탁/얼터레이션

알링턴 DC 지역 세탁소에서 직원 구함
풀/파트타임 카운터 보실분
풀/파트타임 얼터레이션 하실분
571-455-3609

알렉산드리아 테일러 샵에서 바느질 하실분
모십니다.
3일 파트타임 가능하신분
703-328-3064

자동차/정비/바디샵

폴스처치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유경험자 구합니다. 첫째/셋째 토요일 휴무
571-332-6110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기타 구인

맥클린 한국 학교에서 교사 모집
어린이를 사랑하시는분
571-235-8997 / 703-505-5760

가사 도우실분을 찾습니다.
음식 깔끔하게 하시는 분, 세탁, 집안 정리
12:30 - 7:30 주 5일 주급 \$750
경험자 우대, 가족처럼 오래 일하실분
맥클린 VA
703-887-1037

손사이딩 올드하우스 메케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홀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원도
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에 한함
703-944-8433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싱글/타운홈 렌트

애난데일 타운홈 렌트 \$3,400
방3, 화3.5, 최신식 최고급으로 업그레이드된 집, 화려하게 잘 꾸며 놓은 부엌
과 화장실, 집 전체 나무 마루, 넓은 테,
워크 아웃 베이스먼트, 모텔 하우스 보
다 더 예쁜 집, 교통 편리, 즉시 입주
▶703-477-3114

1. 매나사스 타운 \$3,400
(2025년 12월 새집) 2,700 sq, 방4, 화3.5,
로프트(오피스), 2/4층 텍, 차고2, 모던 오픈
스타일 키친, 234/66/GMU 근처, 이노베이
선택 쇼핑몰 인근, 교통 편리, 센터빌 10마일
2. 브리스토 타운 \$3,200

방4, 화3.5, 차고2, 전부 마루, 모던 오픈 스타일
키친, Patriot High 최고 학교, 234/
Sudly manor, near Costco
▶571-239-6054

1. 게이더스버그 타운홈 \$3,300
방4, 화장실 2
2. 제션 타운홈 \$2,800 방3, 화장실 3
3. 엘리컷시티 타운홈 \$2,750
방3, 화장실 2.2
4. 파사데나 타운홈 \$2,600
방3, 화장실 2/2
5. 콜롬비아 싱글홈 (반지하) \$1,500
방2, 화장실 2
▶301-318-4242 / 443-668-0453

스프링필드 타운홈 렌트 \$3,000
방2, 화2.2, 2 Assigned 주차, 밝고 환한집,
업그레이드 많이 함, 교통 편리
▶703-919-0472

1. 센터빌 타운 홈 렌트 \$3,300
방3, 화3.5, 주차 2, 즉시 입주
2. 센터빌 타운 홈 렌트 \$3,500
방4, 화3.5, 주차 2, 즉시 입주
3. 패어팩스 타운홈 렌트 \$3,600
방3, 화3.5, 주차 2, 2월초 입주
▶703-863-0321

매나사스 기차역 가까운 타운홈 \$2,900
방3, 화2.5, 차고2, 앤드 유닛
▶703-489-6926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홈 전체 렌트
방4 화3.5 \$3,200 or 일부 방3 화2.5
\$2,200
470-485-1875

센터빌 H마트에서 10분 거리 타운하우스
\$2,350 (유틸리티 별도)
방3, 화장실 1.5, 뉴 리모델링, 개/고양이가
능, 12월 11일 입주, 단기 렌트도 가능
571-345-6667

콘도 렌트

비엔나 메트로 근처 콘도 렌트 \$2,700
방2, 화2, 차고1, 수영장, 휘트니스 센터,
물값 포함
571-271-2457

센터빌 롯데 근처 콘도 전체 렌트합니다.
방2, 화2.5, 교통 편리, 즉시 입주 가능
\$2,180
301-466-1646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 화1, 주차 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 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현돈 새 콘도 렌트 \$3,000
방2, 화2.5, 차고1, 이노베이션 메트로역 도
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자이언트, 1,600sf, RT267/28, 최
고 교통요지
▶571-239-6054

방 렌트

Fairfax/Burke 지역
노바, 조지메이슨, 버크 H마트 10분 거리
인터넷, 취사, 유포, 여자분 환영 \$650
571-214-0188 (문자 요망)

센터빌 롯데 근처 타운하우스
2층 욕실 딸린 큰방 렌트합니다.
571-970-8048

로튼 싱글하우스 베이스먼트 워크 아웃 전체
렌트, 방2/거실/욕실/주방/세탁실
초중고 걸어서 통학 가능
703-774-4939

애난데일 시루와 방 하나 렌트
가구 완비, 취사 가능
703-973-8123

애난데일 예츄와 타운하우스 마스터 베드룸
또는 작은 방 렌트, 가구 완비, 취사 가능
703-622-2033

센터빌 H마트 5-10분 거리, 싱글하우스 밝
고 조용한 윗층방, 마루, 유포, 교통 편리, 여
자분 환영
571-345-8879 (문자요망)

페어팩스 조지메이슨 & 노바 대학 근처 방 렌
트, 금연자, 즉시 입주 가능
703-472-2295

게인스빌 타운홈 베이스먼트 워크 아웃 방하
나 렌트합니다. 거실/화장실/세탁실/잠만
주무실분
703-732-1246

첼트리 롯데 근처 싱글 하우스 위층방 렌트
남자분 환영
703-344-6273

애난데일 원룸 스타일 방 렌트합니다. 방 안
에 샤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책상 다 갖췄
어져 있고 깨끗합니다.
571-232-6052

로튼 (애난데일에서 15분 거리) 조용한 주택
가 1층 같은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전체
방 3개, 주방, 냉장고, 세탁기, 인터넷, 유틸
리티 포함, 출입분 별도, 2500 sqft
571-488-5860

애난데일 H마트 옆 밝고 조용한 콘도 방 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571-326-5605 / 301-266-1858

애난데일 큰 싱글홈 밝고 큰 화장실 딸린 방
렌트합니다. 교통 편리 롯데 1분 한강 식당 1
분 거리, 입구 별도, 주차 넉넉
703-395-4380 / 703-965-2343

스프링필드 지역 조용한 싱글홈 방 렌트,
간단한 취사, 가구 완비, 인터넷, 학생 또는 직
장인 여성 환영
571-286-2439

스프링필드 (Backlick & Braddock이 만나
는 곳) 조용한 싱글홈 베이스먼트 방 렌트
워크아웃, 간단 취사 가능, 교통 편리, 주차 넉
넉, 남자분 환영
703-750-2795

GMU 근처 조용한 동네 싱글하우스 욕실 딸
린 큰방 하나 렌트합니다.
남자분 환영, 즉시 입주 가능
240-271-1879 (문자요망)

애난데일 타운하우스 밝고 조용한 윗층방 렌
트 합니다.
나무 마루, 유포, 교통 편리, 여성분 환영
고양이 편찮으신분만 문의 바랍니다.
571-345-8879 (문자요망)

애난데일 메시아 장로 교회 뒤 타운홈 2층 방
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703-887-5173

애난데일에서 5분 거리 싱글홈 윗층 (아랫층
과 완전 분리) 렌트합니다.
방3, 풀 화장실, 리빙룸, 큰 욕, 큰 창고, 차고2
개, 넓은 뒷마당, 395/495/95번 3분 거리
703-508-5405 (Julia Jin)

센터빌 CVS 근처 깨끗한 싱글홈 2층 방 하나
렌트, 가구/취사/세탁/인터넷 완비, 여자분
환영, 즉시 입주 가능
571-758-7117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오피스 전체 렌트
나무 마루, Newer Windows, 계단 없는 1층
위치, 새로 단장한 화장실,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 \$2,000 즉시 입주
▶703-477-3114

애난데일 (자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 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킨 뒤 환한 오피스 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 3개, 화1, 오픈 스페이스, 파킹 다수,
RT29/66/28/286
▶571-239-6054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버크 싱글홈 \$975,000
방4, 화3.5, 차고2, 집 전체 리모델링, 새 지
붕, 새 HVAC 시스템, 새 창문, 새 DECK, 새로
단장한 고급 부엌, 모든 화장실 업데이트
▶703-813-8949

센터빌 타운하우스 \$510,000
방3, 화2.5, 새로 단장한 고급 부엌,
Stainless Steel Appliances, 새 페인트, 집
전체 리모델링, 교통 편리
▶703-813-8949

1. Nottingham 타운홈 \$349,900
방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다 새로 고친 집,
HOA 없음
2. 포토맥 싱글홈 \$1,075,000
방4, 화장실 2+1, 차고2, 포토맥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410-417-7080

메릴랜드 랜햄 싱글홈 \$700,000
1991년, 방4, 화3.5, 차고2, 지하 윗수리,
업그레이드, 넓게 확장한 거실
▶703-863-0321 / 301-399-0140

알렉산드리아 3층 타운홈 \$749,900
방3, 화3.5, 차고2, 교통 편리
▶703-489-6926

우드브릿지 싱글홈 \$970,000
Woodbridge의 Powells Landing 단지 내
court에 있는 싱글홈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정크 팔리팔리

이거
어떻게
버리자?

“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탈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571-723-0446

OK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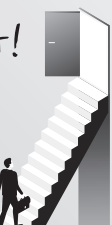
장거리 염가로
어디든 가능
병원, 공항, 장거리
카지노 모두
24시간 가능



엘리컷 시티, 락빌, 애난데일

노기사
571-332-3987

성공 비즈니스...
시작이 중요합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6년 1월 14일 수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703-622-0312
센터빌 타운하우스 \$499,900
방2, 화3.5, 1,740sqft, 지하 full bath, 워크아웃, 브래덕/28,66,29 교통요지, 2017 리모델링,
▶517-239-6054

1. 센터빌 타운홈 \$600,000
방3, 화2.5, 차고 1
2. 센터빌 타운 하우스 \$700,000
방3, 화2.5, 차고 2
3. 비엔나 콘도 \$325,000 방1, 화1
▶703-919-0472

첼탈리 급매 타운하우스 \$300,000
방2, 화1, 아담한 뒷마당
▶703-231-5572

알디 싱글 하우스 \$869,000
방4, 화2.5, 차고 2, 전체 마루, 쿤컨디션, New Trex deck, New paint, New roof, John Champe High School
▶571-239-6054

엘리컷 시티 싱글홈 \$749,000
방4, 화3.5, 차고 2
▶301-318-4242/443-668-0453

1. Elkridge 타운홈 \$625,000
방3, 화장실 2+2, 차고 2, 아주 넓고 이쁜 집, 마루 바닥, 1층에 안방
2. 실버스프링 타운홈 \$750,000
방3, 화장실 3+1, 차고 2
13년된 벽돌로 지어진 고급 타운홈,
3. 엘리컷 시티 싱글홈 \$820,000
방5, 화장실 3+1, 차고 2, 밝고 이쁘게 잘 꾸며진 집, 넓은 뒷뜰
▶410-417-7080

1. 패어팩스 싱글홈 \$999,000
방5, 화장실 4+1, 차고 2, 넓은 구조와 잘 꾸여진 집, 벽돌, 마루 바닥
2. 패어팩스 싱글홈 \$1,050,000
방4, 화장실 3+1, 차고 2, 우순 학군,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
3. 패어팩스 타운홈 \$850,000
방4, 화장실 3+1, 차고 2, 엔드유닛, 아주 밝고 이쁘게 꾸며진 집
4. 비엔나 싱글홈 \$1,875,000
방6, 화장실6, 차고2, 새집같이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 집, 편리한 교통
▶703-899-8999

1. 던로링 메트로 앞 콘도 \$460,000
방1, 화1, 1/2층 오픈 LOFT 835 sqft, 전부 리모델링, 나무마루
2. 맥클린 콘도 \$389,000
방2, 화2, 1,050 sqft Mclean High, RT495, 66/26/7 Metro, Tysons Galleria 옆
▶571-239-6054

도미니언 벨리 컨트리 클럽, 헤이마켓 싱글 \$1,699,000
1에이커 숲속, 6,700sqft, 방5, 화5.5, 차고3, 선로,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욕실, 드레스룸, 인로우 스위트, 미디어룸, 게임룸, 바 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야외 리조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571-239-6054

사업체 매매

DC 백악관 옆 픽업 스토어 매매
저렴한 렌트비, 주5일, 좋은수익, 은퇴예정
443-618-8100

1. 주5일 Deli/Cafe 애난데일 근처 \$60,000
1,400sf/렌트 \$2,900/쿿 파킹
2. 주5일 Deli/Cafe DC NW \$70,000
렌트 \$4,300/매상 증대 최적 장소
3. 대형 식당, 패어팩스 \$270,000
7,000sf/180석/연회전문/쿿 파킹
4. DC NW 2층 한식당 \$230,000
리쿼 라이선스/퓨전 한식 적합
5. 명품 간장 공장 2nd Location 투자자 모집
▶DJ Lee 703-303-8003

애난데일 버지니아 자동차 매케닉 샵
차고 2개, 서비스베이 높습니다. 주차공간 충분, 즉시 운영 가능, 퍼밋 완료, 1백10만불
▶703-928-5990

1. 치킨 프랜차이즈 95만불, 주매상 3만
2. 일식집, GMU 근처 20만불, 주매상 1만5천
▶703-303-8003

1. DC NW 잘 꾸며진 한식/분식 식당 19만
2. DC NW 드라이크리닝 픽업, 주매상 9천,

주5일, 대로변 위치
3. 치킨 프랜차이즈 3곳, VA, MD
4. 쿵후티, Bakery 등 리스팅
5. 나이트 클럽, 주매상 4만, 패어팩스 카운티, 최고 로케이션 5,000sf
▶DJ Lee 703-303-8003

베테스타 샌드위치샵 \$170,000
너무 좋은 자리, 1200 SF, 주매상 \$10,000
렌트 \$5,791
▶703-928-5990

멜리샵 (DC) \$150K
DC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703-625-9909

중고 매매 / 기타

95년형 벤츠 300, 18만 마일, \$3,000
703-966-9597

피아노 레슨 합니다.
초중고 및 임시반, 성인 취미반
Zoom & In-person
703-772-2987 (문자)

강아지 분양합니다. 순종 풍산개, 1월중순
703-868-6114

2018년 포드 트랜짓 250, 인슐레이션된 쿨러 밴, 차고지 MD
201-681-4470

OK 택시 엘리컷 시티, 락빌, 애난데일
장거리 영가로 어디든 가는, 병원/공항/카지노, 24시간 가능
571-332-3987

여류라 MDX 2012년 134,000 마일리지
타임 벨트 & 배터리 교체, 그레이 색상, 쿿 컨디션 \$6,500
703-909-9377 / 703-560-6424

최고급 등산 장비 팝니다.
아래 번호로 메세지 남기시면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703-869-5919

비숙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낄싱홀, 나이, 학력, 경력, 성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 useb3.com
문의 이메일: admin@eb3recruit.com
전화 : 571-546-8683

상태 좋은 남/여 중고 골프 세트 싼 가격에 팝니다.
703-966-9072 (Mr.Kim)

색소폰, 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트럼본, 플루트 - 악기별 개인 맞춤 레슨
757-338-8496

건축/페인트/마루

손 사이딩 올드 하우스 메케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역, 화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JGL 건설 회사
하청없이 25년 이상 숙련된 본사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571-213-8678

JJL CONTRATOR INC.
지붕 고민/돈 걱정 그만 하세요
▶703-835-0945

형제 건축&지붕
가정용, 상업용, 부역, 화장실, 지하실
민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703-928-6255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In,Out), 텍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워 워시, 핸디맨 서비스
▶문의: 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역, 화장실, 텍, 그외 모든 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 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내년도 메디케어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703-961-8811

생명보험, 은퇴연금, 비즈니스 세금 절감 플랜까지 전문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세요.
703-939-2737

지금 연금, 정말 만족하십니까?
한번의 점검이, 내일의 차이를 만듭니다.
703-577-8181

정문기 메디케어 보험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 신청 도와드립니다.
▶703-598-3316

움니화재 사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보험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험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로리 문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703-895-7648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득/가스검사

JD STAR 소득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 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KWK 냉난방 BALTIMORE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 프리저 수리 전문, 믿고 맡겨주세요.
443-540-6922 / 410-292-0001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상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버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 옷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 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 히터
▶443-280-1873

정스냉동 (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 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 지사 오픈, AS 전담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모든 샘플 가지고 방문
▶703-600-9031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스 팀장부,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브러쉬, 파워 폴청소, 응급 수해 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 교체,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Email : 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 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 (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 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 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토요 핸디맨 (전기, 목수, 타일, 배관, 창문, 마루, 페인트)
443-994-3415 (전화 메세지 주세요)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역류장치/MD fire 스프링클러/주방 화재 방지/복구 작업(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 처리 가능/용접(철, 스테인, 알루미늄)/제작 및 설치(키친 후드, 덕트)
301-222-3277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그램 세일즈 및 전기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 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리모델링/부역/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 시공과 마감! 파인애플 홈 Mr. 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H.P. 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 손잡이 전문
703-340-5858 (VA)
443-980-5858 (MD)

▶▶미국 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J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 가능,
▶703-582-7757

유리

JK 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1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C 플랜·약보험·치과·안경·OTC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이 기계 디자인
망설이지 마세요. 유나이버설의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조?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Carrier, Lennox
전문딜러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 헬스케어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KOREA(BUSAN)	USA(LOS ANGELES)	USA(SAN FRANCISCO)
02-2093-2093	051-469-4191	310-767-5699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 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가들 반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융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융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웨딩 플래너

●웨딩드레스 & 텍시도 대여

●웨딩플라워 데코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703.380.2282

궁금한 기사
중양 일보안에
있습니다



① 위싱턴 중양일보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JGL Construction Inc.

igkconstruction.com

JGL 건설회사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MI 이사집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클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EVERSHINE Construction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703.994.2943
Ray Kim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대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형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가정용

상업용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드립니다.

부엌

화장실

지하실

703-928-6255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홈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 수도꼭지 교체

◆ 싱크 / 디스포저

◆ 워터히터 / 물새는것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씽펌프 교체

571.594.4080

VA A 라이선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덕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선스 소지

301-222-3277

블라인드 / 틈트

“100% 한국산 공장직영”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VA, MD, DC, PA, NC 전지역을 총괄하는 지사 오픈!!







● 한국산 지브라셰이드, 전동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향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703.600.9031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How do you like (or take) your coffee (or tea)?; 커피는 어떻게 탈까?

(Kathy is visiting Judy’s house one afternoon ~)

(캐시가 어느 날 오후에 주디의 집에 가서는 ~)

Judy: Would you like coffee or tea?

주디: 커피로 할래 차로 할래?

Kathy: Tea please.

캐시: 차로 할게.

Judy: How do you like your tea?

주디: 차 어떻게 탈까?

Kathy: I take my tea with one sugar and a little milk.

캐시: 설탕 한 스푼하고 우유 조금만 넣어줘.

Judy: I take my tea plain with nothing in it.

주디: 나는 차는 아무 것도 안 넣고 그냥 마셔.

Kathy: So tell me about your new job.

캐시: 그래 새 직장 얘기 좀 해봐.

Judy: I start on Monday. It’s going to be a breeze. I just answer the telephone.

주디: 월요일부터 출근해. 일은 아주 쉬울 거야.

그냥 전화만 받으면 돼.

Kathy: You can’t beat that.

캐시: 그거 최고다.

Judy: This job is a piece of cake.

주디: 이 일은 식은 죽 먹기야.

Kathy: And you found this job so fast.

캐시: 그리고 너 참 새 직장 빨리 찾았다.

기억할만한 표현

▶ *(something) is a breeze: 아주 쉬워.

“My driver’s test was a breeze.” (운전면허 시험은 아주 쉬웠어.)

*You can’t beat that: 최고다. 대박이다.

David: “I won \$10000 in Las Vegas.” (데이빗: 나 라스베이거스에서 1만 달러 땀어.)

Mark: “That’s great! You can’t beat that.” (마크: 잘됐다! 대박이다.)

낱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가로열쇠

(1)간사스럽게 아양을 따는 태도. ~을 땀다 (5)다리를 받치는 기둥. 다리의 다리 (7)여러 번 되풀이하여 간곡하게 하는 부탁. □□당□ (8)각기 다른 여러 가지 모양과 빛깔. □양□□ (9)심청이 공양미 삼백 석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를 제물로 팔아 이곳에 빠졌다 (11)손가락 끝에 종기가 나서 끓는 병 (13)부부의 한쪽에서 본 다른 쪽. 남편 쪽에서는 아내. 아내 쪽에서는 남편 (14)1일=하루, 2일=이틀, 3일=?, 4일=나흘 (15)형의 아내 (16)곡식을 그러모으고 퍼거나, 발의 흙을 고르거나 아궁이의 재를 긁어모으는 데에 쓰는 T자 모양의 도구 (19)돈이나 재물 따위를 쓰는 데에 몹시 인색한 사람 (21)달빛 따위가 몹시 밝은 모양 (23)온통 하얗게 센 머리 (24)여러 산이 겹치고 겹친 산속. 저 산은 내게/우지 마라 우지 마라 하고/밭 아래 젖은 계곡/ ~ /저 산은 내게/있으라 잊어버리라 하고/내 가슴을/쓸어내리네/아 그러나 한 줄기/바람처럼 살다 가고파 (정덕수) (26)얼굴, 몸매가 아름다운 여자 (27)한꺼번에 되게 당하는 손해나 곤란. 넌 내가 ~ 먹는 것이 그렇게 고소하냐?

세로열쇠

(1)간사한 신하 (2)자기 몸을 희생하여 인을 이룸. □□성□ (3)아내와 함께 동행함 (4)높은 열을 내는 기계를 차게 식히는 데 쓰는 물 (5)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임. 잘못된 점을 고치려다가 그 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쳐 오히려 일을 그르침. □□살□ (6)서사시나 소설 따위의 문학 작품을 희곡이나 시나리오로 고쳐 쓰는 일 (10)감자나 고구마 따위에 들어 있는 녹말을 가려 가루로 내어 그것으로 만든 마른국수. 잡채의 재료이죠 (12)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에게 조용히 하라고 할 때 손을 펴서 휘젓는 일. ~를 치다 (13)물을 빼내거나 물이 빠져나가는 곳 (17)빠가 없는 것처럼 좋은 사람. 아주 순하고 착해서 누구에게든 잘하는 사람 (18)물속에서 해엄침. ~ 선수 황선우는 한국 선수로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하며 한국 ~에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20)도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변두리. □매□□ (21)자동차와 항공기 등의 내연 기관의 연료. 가솔린 (22)결혼식에 초청하는 편지 (23)발을 매는 데 쓰는 연장 (25)음식을 그릇에 담은 채 끓는 물에 넣어 익히거나 데움

스도쿠

		7	8	6		5		1
						4	7	
4	1				3		8	
3		4						9
			4		9	6		8
	6	5			7		2	
8		3	5		1		6	7
			3	4			9	
1						8		3



자료제공=올드북 (www.goob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	☞	☞	☞	☞	☞	☞	☞	☞
5	6	1	8	4	3	2	7	9
2	9	2	1	6	5	3	4	8
4	2	3	2	8	1	5	9	6
8	5	9	6	3	4	1	2	7
6	1	2	5	2	9	4	8	3
2	8	6	3	5	2	9	1	4
9	2	4	2	1	6	8	3	5
1	3	5	4	9	8	2	6	2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2주 \$20, 월 \$3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EXP. DATE: / month year CVS: <input type="checkbox"/>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크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사장님의 꿈:
최신형 기계 교체
+ 수수료 절약
+ 최고 서비스

30주년 프로모션으로
리버트뱅크카드와
월드페이 가 사장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대표: 사라 류 박사
https://wikitia.com/wiki/Dr._Sarah_Sun_Liew
Worldpay, Vantiv, Npc ISO office owner.
Liberty Bankcard 대표
30년 프로그래밍 경력
경영학 & 법학박사(J.S.D.)
(전자상거래 & 금융),
영양학, 교육학, 석교학 박사
하버드 경영·교육·정치 대학원
Alumni MIT, Wharton,
Chicago Booth
경영대학원 수학
하버드, 아브라함(J.D.) 수학
퍼시픽(J.S.D.) 법대원 졸업
부대표: 아브라함 이
(경영학 학사, 석사)

미전역
에이전트 구함

상당사 모든분께 책 증정: International best sellers
브라이언 트레이시 & 사라류 박사 공저 Succeeding
In Business In any market E-book 증정,
이메일/전화상담 환영 info@meridianwish.com

▶ 최신형 기계 교체
(WiFi · Wireless · Touch Screen 지원)
▶ 수수료 매달 \$50 ~ \$500 절약!
▶ 세계 1위 회사 Worldpay
+ 30년 경력 Liberty bank card 와 Worldpay NPC Vantiv사로 전화 주세요

www.meridianwish.com 424-332-3779
Info@meridianwish.com 9465 Wilshire Blvd., Suite 300 Beverly Hills, CA 90212

WORLDPAY는 전세계 175 개국 2 M 고객센터, 연간 550억건 거래
Liberty Bankcard (MPS) is a registered independent Sales Organization of Worldpay ISO
and Ecommerce, LLC, a registered ISO of Fifth Third Bank, N.A., Cincinnati, OH, USA

기타 지역

구인

중식셰프 & 스시맨
일라스카, 취업경력사유없는분
숙식제공(853)337-0982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민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Hello Town
미국 생활에 대한
고품질 리얼정보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까지!
All about US Life!
구인
RENT
부동산
미국
가이프의
모든 것
자동차
전문업체
문의 213.368.2525

매달리치마 산책
천공산삼

9월
햇산삼
세일

파운드 이상 구입시 홀세일 가격 판매

30년 1파운드 \$750 → \$550
40년 1파운드 \$1,500 → \$950
50년 1파운드 \$2,350 → \$1,500

Kim's Acupuncture Clini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213)407-4524

치질·출혈 수술 안하고 OK

항문폴립·변비·요실금 출출
직장과 대장암 발병 예방효과
새끼 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동배·뱃살 요요없이 빠져요

기적의 티타늄벨트로
허리통증·냉증도 탈출

실제사례 www.miracletouchusa.com 검색

미라클 터치 (213)675-6877

20년된 한식점 일식당급매

소자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현대자동차 등 협력회사 많은 지역으로 트래픽이 많은 지역입니다.
몽골베리 알라바마지역 가 \$10만 (Nego 가능)
(334) 669-4474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에서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COLDWELL BANKER E-mail: baksusa@yahoo.com

지긋 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히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치료에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10여일 만에
빠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
사례

치료전

치료후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시세요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문의 (832) 605-4890 · (281) 501-2623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어르신을 위한 연말연시 최적의 선물!!
건대추 판매 11월부터

좋은 건대추를
농장에서
직주문 하세요!

전화주문 714.833.4988 (Mrs. Han You)

건대추 미주 전지역 운송비 포함 가격

\$180/10LBS·1BOX
\$150/10LBS·1BOX
\$100/10LBS·1BOX

\$1 대추
\$12/lb 대추
\$7/lb 대추

* \$12/lb 대추는 \$15/lb 대추보다 품질은 같으나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Pay by Zelle or check. No credit card. 하와이 알라스카 추가요금

숙성된 퇴비를
듬뿍 사용하여 재배한
양질의 대추를 100%
천연광으로 정성껏
건조시켜 맛과 영양 보존
상태가 최고인 고급 건강
햇 대추입니다

신선농원 714.833.4988 (Mrs. Han You) 2060 Darby St, San Bernardino, CA 92407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선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Blue Choice
- Anthem
- Aetna
- United Healthcare/GEHA
- CareFirst
- Innovation Health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